

5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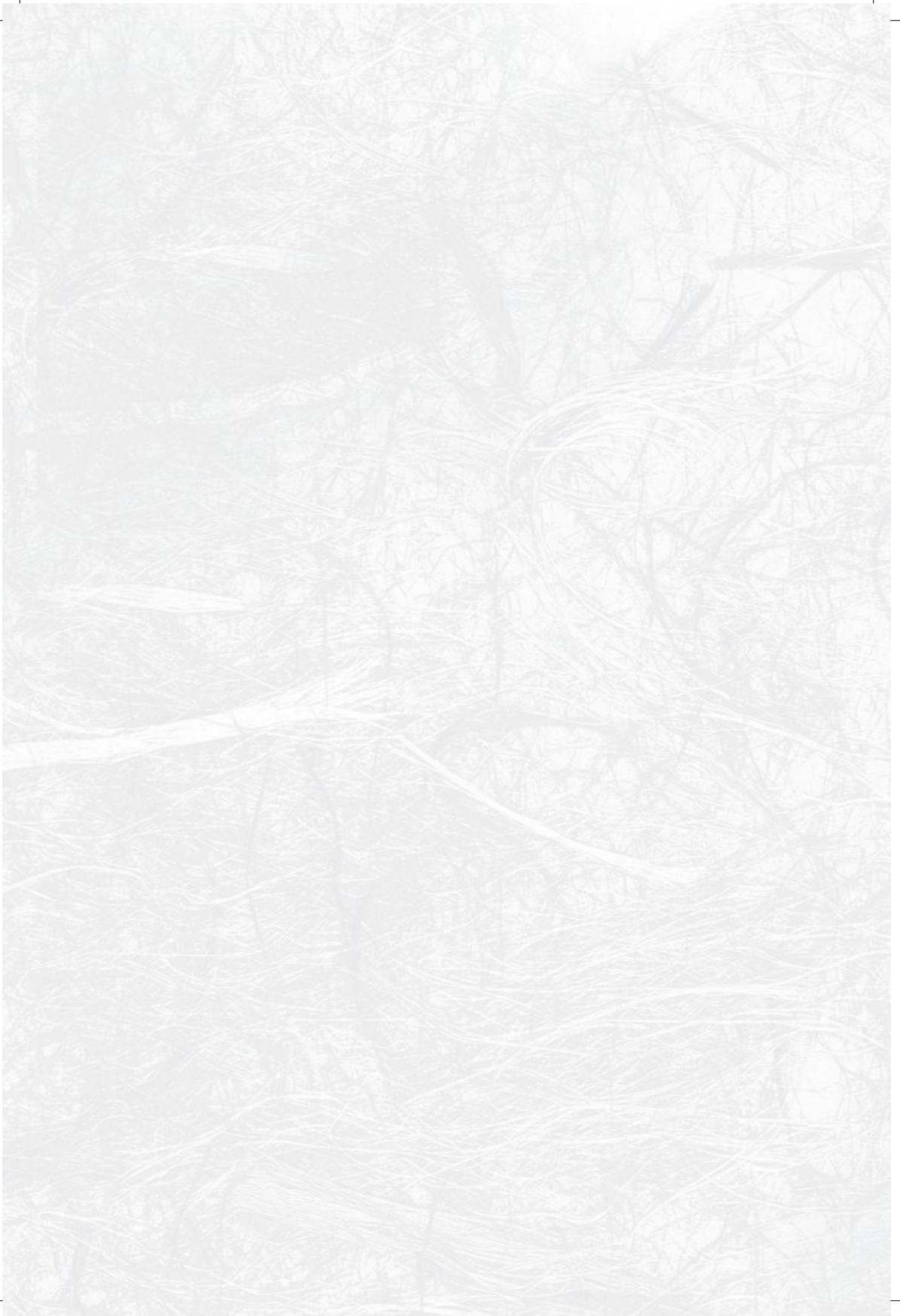
40주년 이후
5·18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8

이 보고서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동 주관한 '40주년 이후 5·18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의 성과를 편집한 것입니다. 광주여성재단과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는 '5·18과 여성', '5·18과 청년' 주제 토론회의 주관단체로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단체와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 5 5·18,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 41 40주년 이후 5·18학술연구 및 5·18교육의 방향
- 113 40주년 이후 5·18 경제 및 기념행사
- 203 마흔살 5·18의 철학적 담론
대중적·보편적 의미의 5·18정신
- 237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 I
- 259 5·18과 여성,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방향 모색
- 293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 II



40주년 이후 5·18의 지향지점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일 시 2019. 7. 29.(월) 14:00

장 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주 관 5·18기념재단

사 회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기조 강연 5·18,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 론 김철원(광주MBC 기자), 류봉식(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박강배(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박강의(전5·18전야제 총감독),
박시영(5·18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이산하(유레카편집 위원장), 이재의(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주진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최용주(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황풍년(전라도닷컴 대표)

5·18 40주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 5·18 40주년을 준비하며

5·18 40주년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5·18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경험했던 섬광기억이 아직도 또렷하여 벌써 40년이 다가왔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 이후의 5월운동에서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5·18이 해방 35주년, 6·25전쟁 발발 30주년의 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전쟁으로부터 5·18까지의 시간보다 5·18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이 더 긴 셈이다. 1980년 당시에 광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을 보고, 전쟁 때도 이렇진 않았다는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표현에 담긴 경험과 감정을 상기하는 과정을 이해할만 하다.

지난 39년 동안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지만, 한국사회가 성취한 것이 적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군부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였고, 약 20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회가 되었으며, 각종 사회적 차별에 민감한 사회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류가 증거하듯이 문화적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런 성취의 과정에서 5·18과 ‘광주’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또 광주라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지난 19년전, 5·18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광주는 ‘천년의 빛’이 되고자 했

고, 또 ‘5월에서 통일로’라는 구호를 외쳤다. 5·18 전야제에서 재현된 횃불 행진의 감격이 지금도 선하다. 그로부터 한달 후에 실현된 남북정상회담은 광주에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통일의 집’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흔적을 남긴 채 비워졌다.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정절에 달했던 민주화와 탈냉전은 5·18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좌절된 꿈의 실현으로 다가왔다. 광주의 인권이나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이런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끈 에너지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 기능하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추동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탈냉전과 신냉전이 얽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내년, 그리고 새로운 40년을 구상할 시점에 이르렀다. 내년의 40주년이 의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냉전의 역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을 위한 분석틀이 필요하다. 미시적으로는 광주가 만들어낸 이행기 정의의 원칙들에 비추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좀더 거시적으로는 광주를 분석하는 다중적 스케일(세계적, 일국적, 도시적)과 함께 복합적(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전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2. ‘5·18민주화운동’론의 의미와 한계

지난 40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우선 5·18(정확하게 말하면 열흘간의 투쟁)과 이후의 오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5·18은 19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광주사태’로 명명되었다. 그것은 사건의 성격까지를 규정하였다. “광주사태론이라는 프레임이 이제는 생명을 다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5·18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폄훼들이 기초하고 있는 것

이 이 프레임이며, 여기에 적대적 반공주의가 결합하여 더 고약한 왜곡담론들이 생산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지만, 한국정치의 지형이 1980년에 만들어진 균열을 관리하는 1987년 체제와 이의 후속으로서의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은 신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서 ‘변혁’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5·18은 민주항쟁론으로 규정되었다. 항쟁 직후에는 ‘무장봉기’론도 있었지만, 이 프레임은 과도한 해석으로 간주되었다. 시민군의 투쟁은 다분히 방어적 공동체주의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9년 전남대에서 열린 5·18에 관한 최초의 심포지움에서 제기되었던 음모론과 자발적 항쟁론의 긴장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1987년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세계적 탈냉전, 그리고 약 10년간의 민주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은 변혁론보다는 시민적 민주주의나 인권운동의 맥락에서 5·18을 재해석하도록 자극했다.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5·18 해석이나 오월운동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지만, 이에 관한 토론은 충분하지 않았다.

1995년에 제정된 광주특별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였다. ‘5·18 민주화운동’론은 양면성을 지닌다. 이것은 ‘광주사태’론과 그에 기초한 광주시민 폭도론에 대한 공식적인 부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항쟁’론을 부정하는 의미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열흘간의 투쟁을 ‘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1980년 5월 27일 이후에 전개된 ‘5월운동’론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광주에서의 열흘간의 투쟁을 ‘사건’으로 볼 것인가, ‘운동’으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논쟁거리인데, 필자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를 ‘사건’으로, 그로부터 약 20년간 또는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단기적 사건에 적용되기보다는 중기적 국면이나 장기적 구조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에 관한 연구와 기록은 1985년 황석영 등의 ‘넘어넘어’의 항쟁론으로부터 출발했다. 1988년부터 시작된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의 진실규명운동은 1989년 최초의 5·18 심포지움과 500여명의 시민들로부터 증언을 채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기초한 학문적 성과가 최정운의 ‘5월의 사회과학’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5월 18일 이후의 시민들의 저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적 투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절대공동체’론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연구성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이 개념이 5월 27일의 ‘결단과 초월’의 의미를 충분히 이론화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우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5월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그것은 1980년 5월의 열흘간의 투쟁이 처절한 패배와 함께 종료된 이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이다. 5월운동은 망월동 참배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6월항쟁이후 이것은 일종의 순례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도시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집합적 노력이 되었다. 망월동과 광주에 대한 세계시민적 부채의식은 국내외적 연대를 형성하는 원천 또는 카치아피카스가 말한 ‘에로스효과’를 가진 것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원천적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오월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실천이론적 성과는 1994년 정립된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김영삼정부의 보상 및 기념사업 우선정책은 불처벌 및 역사적 평가 유보론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광주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광주성역화론과 함께 제기된 ‘광주문제해결 5원칙’은 진실, 책임, 배상, 명예, 기억이라는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제1원칙으로서의 진실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5개 원칙 모두가 실현될 때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유엔에서 제기된 테오 반 보벤의 이행기 정의의 원칙과 동시적이며 동일한 것이다. 그만큼 광주는 한국의 과거청산운동이 이행기의 정의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기초로 1995년 광

주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최대의 난제인 책임자 처벌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40년간 이 원칙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진실: 주지하다시피 오월운동은 5·18진상규명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고,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5·18의 진실은 1985년 출판된 <넘어넘어>, 1988년 개최된 국회청문회, 1990년 출판된 500여명의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밝혀졌다. 진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인정되어야 역사적 진실이 된다. 1995년 광주특별법은 5·18의 사법적 진실을 보증한다. 5·18의 진실은 내용상 발표 명령, 헬기사격,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여부 등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한 현실적으로 사회적 부인이나 왜곡 행위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거나 불안정하다.

책임: 5·18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5·18 책임자 처벌문제는 최고책임자, 신군부 주요 지도자,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들이라는 세가지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문제는 공식적 지휘계통과 비공식적인 비선라인의 혼선 때문에 정확하게 수행되지 못했으며, 미봉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980년 5·18당시 시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탄압과 학살의 최종적 책임자로 상정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5·18이후 대통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주제였다. 전두환에 대한 처벌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직후인 1988년 11월의 백담사 유배로, 그리고 1995년 제정된 광주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1997년의 무기징역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고 한국의 과거청산, 또는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가 모범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은 주로 1979년 12·12사건과 대통령 재임 시의 독직 혐의에 대한 것이었지, 명백히 5·18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것이다. 그에 대한 처벌은 최종적 책임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진솔한 사과없이 사면되어 그 의미를 감소시켰다.

배상과 보상: 5·18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무마용 보상에 대해 거부하거나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보상조치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의 위계적 범주화는 5월운동의 조직화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명예회복: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는 5·18을 광주사태라고 명명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국가폭력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다. 김대중과 정치인들에게는 내란음모라는 뺨을 씌웠다. 또한 당시의 신군부는 자주 5·18 항쟁의 참여자들을 지역감정에 사로잡힌 몽매한 집단으로 표현하거나 북한의 어두운 이미지를 연관시켰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명예회복은 이를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표를 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보증되어야 가능하다. 당시에 이루어진 구속이나 재판의 결과는 사법적 재심을 통해 수정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했다. 명예회복조치는 김영삼정부에 의해 많이 진전되어, 5·18재단이 출범하고, 상무대 영창이 5·18자유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5·18묘지가 조성되었다. 이후 5·18묘지는 국립묘지로 지정되었고, 5·18은 국가기념일이 되었으며, 항쟁 참여자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명예회복은 불안정했다. 진실에 대한 부인과 함께 다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5·18 유공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 5·18의 시민항쟁은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권의 발로였고, 이들의 고투와 희생은 망각되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했다. 여기에는 세대적 재생산이 포함된다. 5·18의 진실은 당시의 엄격한 검열제도하에서 가려지거나 왜곡하여 전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으나, 이를 시인하고 사과한 언론사는 없었다. 올바른 역사적 기억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문화적 장르에서 이루어졌다. 5·18 투쟁을 기억하는 시와 시각적 형상화로서의 판화, 노래로부터 시작하여 연극과 사진은 시간적으로 멀어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잊지 않

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런 문화예술 영역의 5월운동은 한국의 시민문화를 일신하는 원천이 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전야제는 핵심적인 기억투쟁의 장이었다. 1990년대 중반의 '성역화' 프로젝트도 5·18 기억문화를 만들어낸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1995년은 광주특별법 제정, 비엔날레의 창설 등, 5·18의 기억문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민주성지론과 예방론의 갈등과 화해가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전노처벌과 사면은 1960년 4월혁명 이후의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김대중은 1971년, 1980년, 1987년, 1992년의 좌절을 딛고, 1997년 말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는데, 이 승리는 5월운동의 1단계 완성이자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2000년의 20주년 행사를 거쳐 5·18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발전되었는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이 항쟁 기억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도청 원형보존문제였다. 2003년 문화수도론에 입각하여 제기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부지가 도청 이전에 따른 구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맥락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3. 동아시아 냉전 분단체제와 5·18에 대한 재해석

1980년 5월은 정치적으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가, 군부독재로서의 유신체제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한 역사적 시기였다. 광주시민과 신군부의 투쟁은 이를 결정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물리적으로 패배했으나 군부정권의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광주 시민들이 완전 폐지를 희망했던 유신체제는 1972년에 시작되었고, 그의 권력의 기초인 군부통치는 1961년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1980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686달러였다. 사회적으로는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1980년의 5·18은 1979년 부마항쟁과 10.26으로부터 시작된 교차로 국면

의 마지막 사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5.27의 좌절은 1987년 6월항쟁까지의 또 하나의 국면을 구성한다. 이로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가 또 하나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민주주의 이행의 국면에서 5월운동은 책임자 처벌과 함께 '5월에서 통일로'라는 비전을 드러냈다. 이런 국면들을 아우르는 구조가 동아시아 냉전 분단체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 우리는 사건과 국면, 그리고 구조를 아우르는 분석틀에서 5·18과 5월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적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이에 후속한 한국전쟁, 그리고 이어진 세계적 냉전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럽의 냉전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창법적 폭력은 구조적 질서를 만들어낸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의 근대화화 및 정치경제는 이런 동아시아 냉전체제라는 틀에 의해 규정되었다. '냉전하 발전'은 한국인들의 열망과 분투,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서로 연결되면서 역동적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때로는 서로 충돌하면서 때로는 서로 상승하면서 전개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미중 데탕트는 남북 관계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는데, 남북의 지도자는 이를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적대적 상호의존이라는 분단체제의 원리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970년대 후반은 카터의 인권외교와 박정희의 군부 독재가 서로 부딪치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특히 1979년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적대가 종식되고, 관계가 정상화된 반면, 서아시아에서 이란혁명이 발생하여 새로운 긴장이 조성된 해였다.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미중 데탕트의 의미와 미국의 예방혁명에 대한 고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는 자신의 비극적 운명으로 이어졌다.

1980년 5·18은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과 10.26이 만들어낸 역사적 갈

림길에서 민주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제2의 군부 독재로 회귀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건이었다. 1980년대의 제2차 군부독재정권은 1970년대보다 훨씬 더 급진화되고 대중화된 민주화운동에 직면하였는데, 이의 중심에 광주 5월운동이 자리잡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냉전분단체제는 1979년 미중수교에 의해 일차적 균열을, 1990년 한소수교, 그리고 1992년의 한중수교에 의해 이차적 균열을 경험하였다. 한국의 1987년과 1992년의 점진적 민주화는 동아시아의 탈냉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탈냉전은 북미수교나 북일수교를 동반하지 않은 불균형 탈냉전이었고, 이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중관계를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1979년의 중미수교, 중국의 개혁개방, 중국에 대한 미국시장의 개방을 축으로 변화를 맞았다. 이것은 대체로 2008년까지의 중미화해기로 이어지며, 이를 배경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북한에서 ‘광주’는 약간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듯 하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더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은 비대칭적 탈냉전으로 인한 북한의 핵개발, 구조화된 북미간 불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관계는 경쟁적 관계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견제가 강화됨에 이에 따라 한중관계와 북미관계를 매개로 한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트를 타게 되었다. 안보적 고려와 경제협력 사이에서 한중관계와 북미관계도 복잡해졌다. 이런 국면에서 5·18이나 광주의 동아시아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지속된 5·18 기억의 세계화 효과는 동아시아 전체에 미쳤지만, 특히 경제발전과 민주화 모두를 필요로 하는 동남아시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을 의미한다.

4.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5월운동의 직접적 간접적 성과들은 무엇인가? 5·18특별법 제정을 통한

저항권의 인정과 이행기 정의의 확립, 5·18민주화운동에서의 희생자 및 참여자의 국가유공자화와 국립묘지화, 5·18재단의 설립을 통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비엔날레가 창설을 통한 문화제 중요성 인식, 다양한 문화운동을 통한 한국사회(운동)문화의 혁신. 오월문화운동의 세계적 확산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이외에도 인권도시 모델의 정립과 인권도시운동의 확산, 트라우마 치유의 제도화, 5·18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지정을 통한 문화적 유산 개념 확산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난 40년의 광주를 평가한다면, 1987년부터 지금까지 7회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예외없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은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진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광주는 실질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는 보루의 역할을 하였으며, 어느 도시보다 강력하고 뚜렷한 진보적 사회운동을 배태시키고 이끌어갔다. 나아가 다른 지방의 민주화나 이행기 정의의 확립에 모델을 제공하였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인 실험을 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였다. 광주시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민주주의 감수성으로 개념화할지 정의 감수성으로 개념화할지,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물론 한계도 있다. 이런 감수성 발전의 시공간적 격차는 한국정치 발전에 긍정적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니다. 또한 5·18의 진실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한국사회가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화나 통일을 위한 광주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5·18의 현장을 보존하고 5·18 기억의 계승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진전되었다. 광주시는 지난 1995년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년에는 『5·18관련 유적지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기본·설계』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시내 24곳을 첫 사적지로 지정하고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전라남도도 1996년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1998년 도내 8개 시·군에 73개의 안내판과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5·18기념재단은 2001년부터 국립 5·18민주묘지, 5·18자유공원 등 5·18사적지 공간에서 사적지공간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고, 2003

년부터는 5·18사적지 해설사인 ‘오월지기’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5·18 민주묘지나 5·18 자유공원, 그리고 5·18 기록관, 구 전남도청(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광주의 다크투어리즘이나 ‘순례’관광의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은 2003년 53만명, 2004년 60만명, 2005년 58만명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2년 26만명, 2013년 30만명, 2014년 19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8년의 경우 약 60만명으로 과거 최대치를 회복하였다. 이를 월별로 보면 5월에는 34만명, 다른 달에는 12월에 최소 1만 6천명, 4월에 최대 3만 3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외국인은 약 6,500명 정도였다. 연도별 통계가 모두 확보된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이 자료로부터 광주의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몇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광주의 다크 투어리즘은 정치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정치적 지향(진보/보수)에 따라 방문객의 규모가 달라진다. ‘진보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와 ‘보수정권’이 지배하고 있을 때의 참배객이 거의 두 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놀랍다. 둘째, 5·18민주묘지의 참배객은 5월에 집중되어 있다. 참배객의 절반이상이 5월에 몰려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서도 나타난다. 셋째 외국인 참배객의 규모는 전체의 2%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의 경우 연 150만 명이 찾았는데 이중 외국인은 40만명이라는 사실과 대비된다.

5·18자유공원은 2018년의 경우 45,248명이 관람했는데, 이 중 외국인은 586명이었다. 5월 방문객은 12,391명으로 전체의 약 28%를 점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5·18기록관은 2017년의 경우 38,772명, 2018년의 경우 총 40,063명이 내방했고, 이 중 외국인은 각각 1,080명과 994명이었다. 5·18지역문화와 밀접한 투어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

5·18의 현장을 순례하는 것을 다크투어리즘이나 평화인권관광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낯설다.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통계 실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5·18재단, 5·18기록관, 비엔날레재단, 아시아문화의 전당 등등은 정치적인 의미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들이지만, '5·18'라는 개념은 형성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2005년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2005. 6. 30 제정)』를 제정하였다. 전라남도도 2017년 『전라남도 5·18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2017. 8. 10 제정)』를 제정하여 사적지 보존 및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 만들어진 '오월길'은 1차사업(2010~2013년)과 2차사업(2015~2016년)을 거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훌륭하게 제도화된 것이 5·18재단의 아시아인권상과 동아시아 청년들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국제학습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인권상은 한 국사회에서 유일한 것이고, 청년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코이카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역사가 길고 성과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를 찾는 사람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5·18묘지, 아시아문화의 전당, 5·18 기록관, 5·18자유공원, 광주비엔날레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로 방문객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 자료들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5. 과제들

5·18이 발생했던 39년전, 그리고 오월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20년 전과 비교할 때 광주가 처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내외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또한 5·18 경험세대가 공유했던 세계상과는 달리, 사회의 절

반이상을 접하게 된 5·18 후세대의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은 훨씬 개별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5·18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 후세대는 국가주의적 독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치열함과 진정성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국군이 자기 나라의 국민을 향해 야수적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렵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5·18을 간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의 진실과 5월운동의 치열함을 이해하는 후속세대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몇가지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광주의 시정과 거버넌스의 차원을 생각해보면, 현재 광주는 인권현장과 인권지표, 그리고 세계인권도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도시를 지향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사회의 발전, 평화체제의 확립을 이끌고 가는 도시가 되고 싶은 노력이다. 물론 5·18의 유산이다. 그런데 시장을 비롯한 재계, 학계, 시민대표들이 이런 비전을 충분히 공유하고 협력하는 틀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둘째, 광주에는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내세울만한 5·18기념관이 없다. 그것의 내용이 민주인권기념관이 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한 구체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관(5·18관, 오월운동관, 인권도시관)과 문화운동관(음악관, 미술관, 문학관, 연극 영화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5·18 기록관의 자료수집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육 및 인재양성기능도 구심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5·18 기념문화의 하나로 탄생한 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의 전당의 역할이 좀더 도시내 유기적 분업의 틀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1995년 시작된 비엔날레와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문화도시 조성프로젝트의 성과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새로운 도시로의 재탄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비엔날레는 공공미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비엔날레 역사관 건립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구 도청건물의 원형 복구 요구에 못지 않게 아시아문화의 전당 운영의 체계화와 안정화를 위한 시민적 합의와 노력이 절실하다.

넷째,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과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로서의 '5·18경제'라는 개념의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의 체계화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광주가 가진 위상과 역할을 새로운 세계적 환경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토론장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정체성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이 지속되어야 하며, 광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 세계화를 통한 전국화는 과거 뿐 아니라 미래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전략적 틀인지도 모른다. 신냉전의 흐름에 맞서서 동아시아 냉전 분단체제의 마지막 해체를 위한 노력은 지난 40년의 5·18 못지 않게 앞으로의 40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임에 틀림없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소도(蘇塗)’로 자리하고 있는가

김철원(광주MBC 보도국 기자)

소도(蘇塗)는 고조선의 성역이었다. ‘소도’는 신성불가침 구역이어서 죄인이 이 곳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 없었다. 한때 서울 명동성당이 그랬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혹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갈 곳 없는 이들이 이 곳으로 숨어들면 제 아무리 잔인한 군사정권이라 해도 일단 주춤하는 모양새는 취했다. 광주시민들 역시 1980년대와 1990년대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싸움을 벌일 때 서울 명동성당을 소도로 삼았던 기억이 시민들은 생생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라는 도시의 이름이 민주화운동을 하는 이들의 ‘정신적 소도’로 기능하던 때가 있었다. 계엄군에 맞서 죽어간 전사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불의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의기(義氣)를 떠올리며 각자가 처한 싸움의 전쟁터에서 민주시민들은 광주를 ‘민주주의의 소도’로 생각하면서 싸워왔다. 실제로 그 싸움은 1987년 6월 항쟁을 낳았고 30년을 거치면서 2017년의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등대로 여겨지고 있고 광주는 한국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지금은 아시아의 여러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민중들이 광주를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홍콩시민들 30%가 거리로 쏟아져나왔다는 올해 여름의 송환법 철폐시위에서 홍콩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든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 수천명이 광주시청 앞에 운집해 자국의 민주화를 요구했다든지 하는 장면을 보면 광주가 한국을 넘어선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로도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금 광주를 과연 ‘민주주의의 소도’, ‘탄압받는 이들의 안식처’라 망설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5·18을 취재하면서 맞닥뜨렸던 여러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자신이 없다. 지난 2014년 망월동 시립묘지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두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들의 망월동 안장을 두고 마찰이 잇따랐다. 부당해고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기사 故 진기승씨의 안장을 두고 5월단체가 반대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망월동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2014년 1월 1일 서울역에서 박근혜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故 이남중씨를 안장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5월단체는 5·18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인사들을 다 받아줄 수 없다는 ‘안장불가’입장이 강경했다.

하지만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디 오월정신이 5·18관련자로만 국한될 것인가’의 의문이 가지지 않았다. 노동운동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부도덕한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른 이들의 영혼이 광주 망월동에서 함께 쉬자는 데 먼저 묻힌 오월영령들이 과연 반대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지 못했고 학살자 처벌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등 당사자들의 한을 풀지 못했는데 광주를 ‘민주주의의 소도’로 만들자는 얘기는 시기상조의 고민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5·18 40주년, 사람 나이로 치면 장년을 맞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다. 광주의 품을 넓히고 넓혀서 광주를 ‘민주주의의 등대’, ‘민주주의의 발신기지’, ‘탄압받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 즉 소도(蘇塗)로 만드는 일이 과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이후에 나중에 달성해야 할 과제인가 말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문제는 문제대로 진행시키되 광주를 보다 광주정신의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그것대로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망월동 안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권력에 맞서다, 불의에 항거하다 싸운 이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곳. 지

치면 들렀다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광주는 과연 품이 넓은가, 포용력이 있는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 이슈였던 홍콩시민들의 투쟁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진 그 투쟁의 현장에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어깨를 걸겠다는 광주시민이나 단체를 본 적이 없다. 물론 ‘송환법’의 주제가 정치적이고 예민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던 건 심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연상시켰던 홍콩경찰들의 폭력진압과 7백만 인구 중 3백만이 나섰다는 홍콩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보고도 연대 성명서 하나 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협량함의 도시가 어떻게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수식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인권상, 5·18언론상, 5·18문학상처럼 세상 여기저기서 각자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을 광주와 5·18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5·18 전국화’나 ‘5·18 세계화’기치를 내걸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아나 세계 각국에 알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치고 힘든 이들이 광주에 와서 안식할 수 있도록 광주의 품을 넓히고, 광주 안의 민주주의를 더 뛰어나게 우리 안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다지는 일이 되어 한다.

그것은 ‘5·18’를 선언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탄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소도’와 같은 곳, 또 위기에 처한 이들이 손을 뻗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을 넘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어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치있는 곳’이 아닐까. 광주를 명실상부한 민주인권평화도시요, 광주정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시민들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절실하다.

5·18기념·기억 장소·시설물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박강배(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명 칭	완공	주요 시설	소 관
망월묘역	1980	묘역, 조형물 등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1997	묘역, 기념탑, 조형물, 유영봉안소, 추모관 등	보훈처
옛 전남도청		도청 본관·별관, 경찰청, 민원실, 상무관, 분수대 등	문화체육관광부
옛 국군통합병원		병원 시설, 교회 등	광주광역시, 미복원
옛 505보안부대		고문 시설 등	광주광역시, 미복원
옛 광주교도소		수감시설	광주광역시, 미복원
5·18기념공원	2001	기념문화관, 공원, 조형물, 피해자 명단 등	광주광역시
5·18자유공원	1999	법정, 영창, 헌병대 막사, 전시관 등	광주광역시
5·18교육관	2010	강의실, 세미나실 등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5	기록물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1999	전남대학교 정문 등 오월길(표지석)	광주광역시

■ 기념사업

- '93년 김영삼 대통령 '5·13특별담화'로 기념사업 현실화
- 5·13특별담화
 - 세 공간 축 기념 공간 조성 방향 정립. △망월묘역 확장·성역화 △전남도청 이전·기념공원 조성·기념탑 건립 △상무대 부지 추가 무상양여·시민공원 조성

- 「5·18기념사업 종합계획」
 - 5·18모지 ‘추모의 장’, 상무대 ‘발전의 장’, 전남 도청·도청 앞 광장 ‘역사인식의 장’으로 정립

■ 활성화 방안

- 종합 정보 제공 필요
 - 장소·시설 의의, 현황, 조성 경위, 제원, 교육적 활용 방법 등을 담은 정보 필요
 - 5·18기념재단 → 오월길 홈페이지에 탑재 가능
 - 『종합 설명서』, 『여행자용 안내서』 필요
- 활성화 책임 기관 필요
 - 5·18기념재단이 장소와 시설물 통합 활성화 책임을 가짐
 - 단체·개인 관람객 용, 전문가·연구자 / 대중용 안내서 발행
 - 40주년을 계기로 활성화에 예산 투입과 프로그램 시행
- 문화예술 작품 상설화 필요
 - 일부 공간을 개축하여 연극, 음악, 미술 등 작품을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

5·18 40주년 회고, 정근식 교수 발제 토론문

이재의(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발제문에 대한 생각

1. 5·18이후 진행된 5월운동의 궤적을 잘 정리.
2. “역사가 되기 전에 신화가 되어버린 5·18”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 Fact 보다는 의미 부여에 치중했던 5·18연구
 - 5·18왜곡의 텃밭 스스로 제공한 꼴
 - 미세한 Fact 비틀기로 파고드는 왜곡 앞에 무기력한 대응
 - 뒤늦게야 ‘진상규명’ 필요성 깨닫고 나섰지만
 - 가해자들 누구도 반성 없는데, 사면으로 면죄부 쥐버린 결과
(1997말 전.노 사면)
 - ‘응징’을 넘어서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철저한 Fact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필요
(5·18왜곡은 80년 당시부터 지속됐고, 청문회 직전 광범위한 군 문서 조작을 통해 실제 5·18과는 전혀 다른 5·18프레임 창출. 1988 청문회, 1997 전.노재판을 통해 왜곡된 5·18프레임이 정치, 사법적으로 검증된 이미지로 고착...5·18왜곡의 자양분)

[질문]

동아시아 냉전 분단체제의 국제적 지형변화 속에서 5·18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된 질문 하나, 현재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목표로 남-북-미를 비롯, 중-러-일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냉전 분단체제의 새판짜기가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국면에서 5·18, 즉 광주 의미와 향후 역할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제안]

1. 국가차원의 「5·18역사연구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5·18역사왜곡의 교훈은,

- ① 남북 분단이 지속되는 한 5·18에 대한 왜곡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5·18에 대한 공격은 반공체제의 존속에 존립 기반을 둔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이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특정인 몇 명이 제거되면 사라지고 말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② 5·18왜곡은 단지 5·18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5·18이후 한국사회가 어렵게 가꿔온 ‘민주화의 밑바탕’(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공정경쟁시스템, 창의성을 고양하는 교육 및 문화정책, 차별철폐 등)을 송두리째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5·18편취자들은 이런 ‘잘못된 질서’와 세력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5·18이 그 출발점이자 원천이라고 여긴다. 국가차원의 심도 깊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③ (가칭)5·18역사연구소는 5·18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을 정리 체계화하고, 우리역사에서 다른 운동들과의 내적 관계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사실적 근거를 만들고, 후세대에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5·18 40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조직하자.

- 5·18의 현주소를 점검, 새로운 비전제시. 진상규명, 헌법정신 규범화 등.
- 향후 10년간(50주년까지) 5·18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

- 화되어야 하는지 비전제시를 목표로 공론화 장을 마련
- 5·18정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현재 각 국가 지도자들의 성향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주체로서 민중들, 특히 5·18정신에 공감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
 - 40주년 행사는 매년 있어왔던 기념문화 행사의 확대판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조응하고,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선도해왔던 5·18정신과 5월운동이 변화된 환경(5·18비경험 세대가 우리사회의 주력으로 등장, 한국사회 주된 관심사의 변화 - 민주화에서 빈부격차 및 고용 등 경제민주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계기 마련.

[참고자료]

5·18인식조사 결과

(5·18기념재단, 현대리서치 의뢰, 성인(만19세 이상) 1000명, 청소년(중고생) 1140명)

- 5·18이 북한과 연결됐다.
성인 11.9%, 청소년 8.4%
- 5·18은 불순세력이 주도한 폭력사태다.
성인 13.3%, 청소년 12%
- 5·18에 대해 잘 모른다.
성인 13.2%, 청소년 27%
- 5·18특별법을 모른다
성인 51.7%, 청소년 72.5%

- 5·18 국가기념일 지정 사실 알고 있다.

성인 53.6%, 청소년 56.5%

5·18정신의 헌법정신 규범화는 정치적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5·18이 뭔지 조차 잘 모르는 현실에서 헌법정신에 반영하는 것은 요원하다. 대통령의 선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40년 전 고립되었던 광주가 고립된 한국호를 구출하기 위하여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80만 민주시민의 결의

민주시민 여러분!

승리의 그날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시민 의거'는 전남북의 각 시군을 거쳐 부산, 마산, 서울, 충주 등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며 전국 중앙기자협회는 더 이상 허위보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총파업을 단행하며 현재 일체의 신문도 발간이 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각 외신들은 광주시민 의거를 사실대로 보도하고 있어 현 광주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제 7함대 소속 항공모함 2척이 부산에 정박하여 전두환 일파의 더 이상의 모모한 만행을 견제하고 있으며 군부 자체 내에서도 알력이 생겨 전남사단과 향토사단에서는 전두환 일파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어 전두환의 멸망은 머지않아 확실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80만 시민만 똘똘 뭉치면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민주사회'를 안겨주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투쟁합시다.

- 80만 민주시민의 결의 -

-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정부에 있다. 과도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나라!

- 무력 탄압만 계속하는 명분없는 계엄령을 해제하라
- 민족의 이름으로 울부짖노라. 살인마 전두환을 공개 처단하라.
- 구속 중인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고, 민주인사들로 구국과도정부를 수립하라.
-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의를 허위 조작, 왜곡 보도하지 말라.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보상과 연행자 석방만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정부수립”을 요구한다.
-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우리 80만 시민일동은 투쟁할 것임을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

1980년 5월 26일

80만 민주시민의 결의

1.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 부산일보 허종기자, 4.18고대생 피습,
- 광주시민의거, 중앙기자협회, 미제7함대, 민주사회, 민족의 이름으로, 과도정부

2. 5·18민중항쟁과 대통령 선거

- 1963년 10월 15일 5대 대선
- 1987년 12월 16일 13대 대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광주	■ 22,943 4.8%	2,471 0.5%	▬ 449,554 94.4%	1,111 0.2%
전남	■ 119,229 8.2%	16,826 1.2%	▬ 1,317,990 90.3%	4,831 0.3%
전북	■ 160,760 14.1%	17,130 1.5%	▬ 948,955 83.5%	8,629 0.8%

- 2002년 3월 16일 광주경선
- 권력의 이동이 아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광주

3. 5월에서 통일로

- 1995년 광주특별법은 민중항쟁론을 부정하는 의미도 지닌다.
(2쪽 중단)
- 5월운동은 책임자 처벌과 함께 '5월에서 통일로'라는 비전을 드러냈다.
(4쪽 하단)
- 비대칭적 탈냉전으로 인한 북한 핵개발 때문이었다(5쪽 하단)
- 5월에서 통일로는 민중의 과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4. 이후의 80년 5월은

- 4.19학생의거에 머물다가 소멸한 4.19의 운동가들
- 민중과 함께하는 5월운동이 되어야
- 39주기를 맞아 열린 '전국의 5·18들 - 스스로 오일의 영령이 된 열사들'

	장이석	박정희	오재영	윤보선	변영태
전남	22,604	■ 765,712	■ 51,714	■ 480,800	17,312
전북	18,223	■ 408,556	■ 27,906	■ 343,171	18,617

- 망월동 구묘역을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 5월 통일상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전개
- 전국화는 홍보가 아닌 감동으로
- 40년 전 고립되었던 광주가 고립된 한국호를 구출하기 위하여

5·18 40주년 이후를 위한 원탁토론회 토론문

여전히 유효한 광주에 꿈을 어떻게 계승 심화 발전시킬 것인가

정진우 목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우리 시대 광주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었다. 모든 생각은 광주에서 시작해야 했고 모든 현실은 광주의 해석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 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수많은 이성적 역사적 논리에 의해서도 전혀 훼손당하지 않고 이어져 왔듯이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할 진실 그 자체였다. 무슨 말이 필요했나. 광주라는 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 세상은 변했고 상황은 달라졌다. 광주의 첫 세대는 사라져가고 냉전해체와 신냉전, 그리고 신자유주의 허망한 신기루들이 지구마을 곳곳에서 야만을 부추키고 힘없고 뺨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죽어가고 더 많이 아파하는 세상의 질서는 더 강화되어가고 있다. 40년전 그 지구마을의 질서와 오늘의 질서를 비교해 보라. 어느 시대가 더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과 평화의 세상인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다.

그 때 광주는 국가폭력의 야만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자구책을 구하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험한 일을 당했지만 오늘의 글로벌 현실은 광주에서 당한 그 야만의 일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보다 더 무서운 자본의 야만적 폭력은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빼앗아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광주 40년은 단지 연대기적 숫자로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지구적 도전 앞에서 새로운 해석과 대답을 모색해야 할 책임으로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광주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눈뜬 한국사회는 그 꿈을 변화된 오늘의 현실에 계승 심화 발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서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주체의 변화 : 조직 주도형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특히 모든 사업의 기획과 논의 과정에 여성과 청년,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화 해야한다. 모든 기념사업의 주체를 시민주도형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특별한 의식과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 모색되어야 한다.

EX, 5월 18일은 전 시민이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날로, 이 경우 모든 톨게이트 안내부터 아주 세심한 안내가 필수

당시 상징이었던 주먹밥 먹기 행사 18일 점심은 농협이나 농민단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광장에서 주먹밥을 먹는 날로. 점심값을 도네이션 받아 광주와 비슷한 아픔으로 겪고 있는 도시나 지역을 도울 수 있음. 이 행사는 광주 이외의 각 도시에서도 동시 진행할 수 있음,

2.광주의 아픔이 광주라는 도시에 머물지 않고 전지구마을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큰 틀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EX, 광주의 전국화 세계화 논의가 광주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현장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없을까? 세월호 김용균 그들이 아픔을 광주의 아픔으로 끌어 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하고, 광주 전시회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국가폭력 문제를 광주에서 전시하는 것이 우선되는 방식을 고려 해야 함.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생각하면 Global Fol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가 제안한 민주주의 세계도시네트워크에 에 광주시 참여 필요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이 형식적으로 참여 하고 있으나 광주 참여시 글로벌 직접민주주의 리더쉽 발휘할 수 있음, 내년 세계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도 적극검토 할 필요가 있음, 올해 대회는 대만 타이중에서 10월 개최 예정,

이런 일들을 통해 광주가 명실상부하게 민주주의, 인권, 평화, 생태라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도시라는 명성을 지구마을에 각인 시켜야 함,

3. 정근식 교수가 언급했듯이 광주의 심화와 발전은 단지 정치적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구마을이 직면한 새로운 대안적 경제체제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함, 광주형 일자리만이 아니라 광주형 경제정의, 광주형 대안 경제 체제 광주형 사회적 경제, 광주형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 광주를 전체 한국사회에서 대안적 사회경제의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

4. 결국 사람을 키우는 문제가 중요, : 광주의 꿈을 계승 심화 발전 시킬 인재 양성 전문 연구교육기관 육성, 포항공대가 유명한 대학이 되었듯이 광주는 평화 인권과 관련해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한 연구 교육기관의 설립 - 기존의 광주안에 있는 대학을 혁신화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분쟁지역 출신의 새로운 인재 양성 시스템 개발

5·18의 방향 설정을 위한 원탁토론회 토론문

주진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

-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전개되었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100년전 시작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혁명, 박정희 유신독재를 균열시킨 부마항쟁, 그리고 5·18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온 한국인의 DNA에서 나온 것
- 신군부는 당시 광주 시민을 비국민(非國民)으로 규정하여 반인륜적 탄압을 자행한 것
- 4.19와 5·18의 정신이 없었으면 촛불혁명도 불가능했을 것

2. 광주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

-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근현대 100년의 광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도시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한 1890년대와 개방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예술적 정체성이 강화된 1930년대
- 한국전쟁 이후 호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온 1960~70년대, 5월의 상흔을 안고 한걸음씩 나아간 1990~2000년대,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난 2010년의 광주까지
- 광주를 들여다보는 창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해석과 키워드가 공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광주 시민의 기억창고로서의 역사박물관

- 광주의 역사는 5·18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근현대사의 흔적들이 있음.
- 오월은 당연히 광주의 아픔으로 기억되어야 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를 지님
- 하지만 오월의 기억이 두터운 껍질이 되어, 그 아래 광주 시민들의 삶 속 근현대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근현대에 대한 기억을 봉인한 시민들에게서 광주 100년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월의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과정이 될 수 있음
- 이에 '광주 100년의 기억창고'로서 근현대사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정리의 과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면 그 가치는 더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됨

4. 구 전남도청을 역사기억의 공간으로

- 구 도청을 대한민국 다음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곳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 100년 대계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일이며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구 도청은 기억의 가치로 광주의 미래를 펼쳐내는 곳이라 할 수 있음
- 구 도청은 1980년의 상흔을 담은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공간
- 광주 근현대사박물관이 기록의 보존에서 나아가 미래를 위한 공간임을 감안하여, 구 도청 시설을 활용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맥락과 광주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동시에 부각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5. 40주년 오월에는 시작하자

- 내년에 국립광주역사박물관의 시작을 국민들과 나눈다면, 광주의 오월은 대한민국의 오월로 확장될 수 있음
- 광주가 100년 근현대사의 상징 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참고자료>

2020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18 40주년 특별전 준비

1. 서울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립박물관 개최 <5·18 전시>의 의의

① 5·18에 대한 “공감”과 “객관화” 시도

- 그동안 <감정과잉, 분노, 원망으로 점철된 5·18> vs. <반감, 조롱, 야유, 비난의 대상인 5·18>로 양극화되었던 5·18에 대한 “공감”어린 “객관화”가 필요
- ⇒ 이를 위해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목소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박물관은 정리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시를 추진할 것임

② 광주에 대한 특수화를 벗어나기

- 5·18은 광주가 특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라는 질문 던질 필요
- 예) 주먹밥, 도청 사수, 황금동 여성들, 녀마주이들의 참여
- 5·18의 보편성을 광주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③ “공감”의 토대 위에 5·18의 전국화, 세계화 도모

- 광주를 벗어나 서울에서 열리는 본 전시는 5·18 이전의 광주와 5·18 이후의 광주를 잇는 시도,
- ⇒ 5·18 이후 5·18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기념하고자 애쓴 이들 조명 필요
- ⇒ 알려지지 않은 외신기사와 특파원의 이야기들, 아시아민주화운동에 5·18이 미친 영향과 Saturday Night Group과 같은 해외 활동들 소개

2. 다양한 내러티브가 공존하는 전시

①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자료 중 [시민의 기록, 증언] 자료에 주목

* 1,472명의 기록과 증언(6개 기관에 산재), 광주광역시 소재 2개 기관

작성 및 관리책임	5·18 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	YMCA	현대사 사료연구소	국편
증언자수	744	57	20	140	500	11
형태	음성 영상 전사	음성 영상 전사	영상 전사	영상 전사	기록	음성 영상 전사
분량	862시간 12,133장	자료집 4권		테잎 320개 (9,600분)	1,913장	74시간

② 등재자료 중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자료를 통해 당시 대학생, 일반시민, 경찰, 진압군, 외국인, 타 지역 사람들의 관점들

* 광주광역시가 관리하고 있음

3. 5·18을 겪은 수많은 ‘그’와 ‘그녀’들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현

① 기 제작·발표된 artwork(s) 활용-목록작성 중

* 광주비엔날레조직위와 협업 가능

② 전시방향에 맞는 artwork(s) 제작(아카이브형 미디어아트도 고려)

4. 남은 과제들

① 2020년 40주년 행사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5·18 40주년 특별전의 명확한 포지셔닝 필요

* 40주년과 그 이후를 대비한 5·18의 지향지점에 맞추어 상생하는 전시가 되어야

② 광주지역 주요 5·18기념재단, 40주년위원회, 연구소 등과의 관계설정

③ 5·18전시를 계기로 박물관교육, 자료수집 등 학예사업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변화 모색



40주년 이후 5·18학술연구 및 5·18교육의 방향

일 시 2019. 9. 6.(금) 14:00
장 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주 최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표 및 토론

사 회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발 표 1 **40주년 이후 5·18학술연구의 방향**
최정기(전남대 교수)

지정토론 김형중(조선대 교수), 노영기(조선대 교수)

발 표 1 **40주년 이후 5·18교육의 방향**
노성태(국제고 교사)

지정토론 박상철(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전체토론 김현영(광주로 상임이사), 박강배(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유경남(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사),
이재의(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임광호(첨단고 교사), 장세레나(광주여성회 대표),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황풍년(전라도닷컴 대표),
김현영(광주로 상임이사), 박강배(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유경남(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사),
이재의(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임광호(첨단고 교사), 장세레나(광주여성회 대표),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황풍년(전라도닷컴 대표)

40주년 이후, 5·18학술연구는?

40주년까지의 성과와 한계에 근거하여

최정기(전남대 사회학과)

I. 문제제기

동시대사에 대한 연구, 특히 국가폭력 및 그에 대한 저항을 연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 사건과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는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연구가 맑스(K. Marx)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세 개의 연구(「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프랑스 내전」)이다. 여기서 맑스가 선택한 방법은 이원적인 접근방법이었다. 즉 한 편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추적하는 사건사적 접근방법을 택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변화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18을 연구한다는 것은 맑스가 마주했던 어려움을 그대로 만날 가능성이 컸다. 적어도 이 시기에 5·18을 연구할만한 연령층의 학자에게 5·18은 객관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들에게 5·18은 자신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었으며, 그런 만큼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40주년 이후에는 5·18에 대한 학술연구는 전혀 다른 지평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연구자들은 점차 5·18에서 현재의 연구자들보다

자유로운 처지에 있을 것이며, 보다 객관적일 수 있고, 5·18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40주년이 넘어가면서 5·18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글은 지난 39년 동안의 5·18연구를 되돌아보면서 40주년 이후의 학술연구를 위해 오늘날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난 39년 동안의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줄고 「지역에서의 5·18연구」(『지역사회연구』 17권 3호, 2009)와 「5·18연구소 20년과 5·18연구」(『민주주의와 인권』 16권 4호, 2016)를 참고하였다.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는 동료 연구자들과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II. 5·18연구사

1. 학술연구의 태동과 사설연구소 시기(1988-1996)

5·18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인 접근은 천주교 광주대학교에서 1988년 에 실시한 5·18관련 시민의식조사였다. 이 조사는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5·18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결과를 사회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보고서였다.

5·18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조사와 연구는 1988년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이하 현사연)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전남대 송기숙교수의 주도 하에 10여 명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현사연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작업은 5·18을 직접 몸으로 겪은 시민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2년에 걸친 구술채록 작업 끝에 만들어낸 「5·18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이하 사료전집)」(1990)이다.

현사연은 1989년 광주민중항쟁 9주년을 기념하여 '5·18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족민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남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당시 학계의 중견 및 원로라고 할 수 있던 김세균(정치학, 서울대교수)과 강만길(한국사, 고려대교수), 박현채(재야경제학자, 이후 조선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서 5·18에 대해 민족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 1990년에는 '광주5월민중항쟁'이라는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는 정근식(사회학, 전남대교수)과 오수성(심리학, 전남대교수), 이수인(정치학, 영남대교수), 김진균(사회학, 서울대교수), 김홍명(정치학, 서강대교수), 김세균, 장을병(성균관대교수), 고은(시인) 등이 발표자로 나서서 분야별로 5·18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5·18연구는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① 1980년 5월 이후 정부 등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는 각종 자료집의 출간이나 구술채록작업으로 나타났다.
- ②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5·18의 성격이나 역사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강만길, 박현채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③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초 서울에서 시작되었지만(정해구 등, 1990), 곧바로 지역에서도 시작되었다(손호철, 1995; 정근식, 2000).

현사연은 1996년 5·18과 관련된 자료 및 연구 기능 등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로 이관하였다.

2. 학술연구의 제도화 시기(1996-현재)

5·18연구가 제도화되는 시기는 199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이 2007년에 설립되었고, 2018년부터 저널을 발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5·18관련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5·18연구를 주도했던 현사연이 분화해서 5·18연구와 관련된 자료 등을 전남대로 넘겼고, 그 결과 ‘전남대 5·18연구소’가 만들어졌다¹⁾. 대학연구소가 된 것이다.
- ② 1995년에 만들어진 ‘5·18기념재단’이 5·18관련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5·18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 ③ 1997년 이후 5·18연구가, 한시적이지만, 국가의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지금까지 5·18학술행사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렸다. 한편 이 시기 5·18연구를 주도한 기관은 전남대 5·18연구소지만, 정부기관과 광주시청, ‘5·18기념재단’이 각종 학술지원사업을 통해서 5·18 연구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에서 5·18을 주제로 정치학회(1997)와 사회학회(1998), 학술단체협의회(1999) 등이 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5·18연구의 제도화를 통해서 5·18 연구자는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5·18과 관련된 연구물이 양산되었다. 나아가 이 시기의 각종 연구지원사업으로 인해 5·18연구의 주요 관점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논쟁이 가능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는 5·18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사실 이 시기는 5·18연구소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정적 지원이 비교적 풍족한 때였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5·18 연구는, 그것을 1980년 당시의 사건사에 대한 연구로 축소시켜서 생각한다면,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상태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5·18연구는 두 개의 시기로 구분

가능하다.

- 1996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5·18의 보편화를 시도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5·18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또 5·18연구가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의 문제들로 확장된 시기이며, 공간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범위가 확장되던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피해자 보상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의 영향으로 기억과 기념의 문제가 새롭게 학술연구의 장으로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는 5·18담론의 보편화가 갖는 한계가 노정되고, 그러한 한계를 돌파하려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권, 민주주의 등의 주제로 연구영역이 확산되고, 지역별로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와 5·18연구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형태로 5·18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면서 5·18연구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술적인 차원의 연구이기보다는, 왜곡과 반복이라는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언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Ⅲ. 지난 39년의 연구 성과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5·18 관련 학술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를 거쳐서 대상 논문들을 수집하였다²⁾. 1단계로 주요 학술정보 웹사이트에서 연구대상이 될 논문을 검색하였다. 2단계로 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된 자료와 첨부된 파일들을 수집하였다. 3단

2) 5·18기념재단에서 2006년 이후 그 전의 연구 성과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출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기를 설정해도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모두 망라할 수 있다.

계로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자료실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술논문 전체를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정도는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수집된 전체 분석대상은 433편이다(표 1). 단일사건으로는 엄청난 양으로 볼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 논문들의 발표형태

발표형태별 연구 분포					
발표 형태	소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기타	합계
빈도	173	34	156	70	433
비중(%)	39.9	7.9	36	16.2	100

* 기타는 학술대회 발표문 및 5·18기념재단 연구지원사업 논문집을 합산한 것임

외국인 학자가 5·18을 연구한 경우는 모두 6명으로 연구물은 9개가 발견되었다. 출신국도 미국과 독일, 호주, 일본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총 네 편의 논문을 쓴 카치아피카스를 제외하면, 이들을 5·18연구자로 부르는 어렵다.

5·18연구와 관련된 전문연구자의 배출로 볼 수 있는 석·박사 학위논문은 34편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긍정적이다. 우선 학위논문이 나온 학교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물론 광주·전남의 대학이 17개교로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도권 9개교, 영남권의 3개교, 강원도의 1개교에서 5·18관련 학위논문이 나왔다. 박사논문의 경우는 그 경향성이 더 큰데, 총 6개의 박사학위논문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와 조선대가 각 하나씩 나오는데 비해, 호남 외의 지역에서는 서강대에서 두 편, 외국어대학에서 한 편, 동아대에서 한 편이 나왔다. 다만 이들 모두를 학문후속세대로 볼 수는 없다. 전문연구자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표 2) 5·18관련 학위논문의 영역별 분류

전공영역	학위종류	편수	전공	학위종류	편수
교육대학원	석사	7	역사학	석사	1
국어국문학	석사	2	정치학	석사	1
	박사	2		박사	3
기록관리학	석사	2	연극·영화학	석사	1
문화전문대학원	석사	4	인류학	석사	1
사회학	석사	2	조경학	석사	1
신문방송학	석사	1	NGO대학원	석사	1
	박사	1			
신학	석사	3			

5·18관련 학위논문이 배출된 전공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학이나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신문방송학 등은 물론이고, 인문학의 제 분야나 문화예술관련, 심지어 조경학까지 망라되어 있다. 5·18관련 연구를 둘러싸고 일종의 융합학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5·18자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5·18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1989-1996 사이의 8년 동안에는 30편의 연구물이 나온 반면에 1997-2005사이의 9년 동안에는 무려 156편의 연구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평균 연구물 수는 24편 정도였다(줄고, 2009: 68~69쪽).

5·18기념재단에서 기존 논문들을 모아 책자를 출판한 2006년과 2007년을 예외로 해도 2008년부터 2005년 사이의 평균 연구물 수는 33편에 이른다. 2000년대 초반(24편)에 비해 훨씬 많은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5·18기념재단’의 연구지원사업과 5·18 연구소에서 연 3-4회 발행하는 학술저널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5·18연구로 분류되는 주제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아무래도 ‘5·18사건 관련’이었다. 이는 1990년 무

렵부터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5·18연구의 핵심 과제가 진실규명이었기 때문이다.

표 3) 5·18연구의 주제 영역별 분포

발표시기 주제영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비중)
5·18사건 관련	1	25	7	0	0	1	3	5	1	4	47 (10.9)
5·18의 의미 ·성격규정	7	33	3	10	16	6	3	11	6	6	101 (23.3)
5·18과 다른 사건 비교	0	4	2	1	1	1	4	1	0	2	16 (3.7)
5월운동의 영향 및 효과	2	14	3	2	3	2	3	1	4	0	34 (7.9)
5월운동관련 (기억·과거청산)	20	23	6	17	10	7	6	4	2	8	103 (23.8)
5·18관련 예술 및 문화운동	25	9	7	7	4	3	8	9	6	6	84 (19.4)
5·18과 타주제 (지역, 반미)	1	3	2	1	4	4	2	1	2	7	27 (6.2)
5·18관련교육	0	1	1	2	2	0	0	1	1	0	8 (1.8)
5·18왜곡관련	0	1	0	2	1	0	4	3	1	1	13 (3.0)
합계	56	113	31	42	41	24	33	36	23	34	433 (100)

2000년대 중반 이후의 5·18연구는 어떠한 주제들이 많이 발견되는가? 표 3)을 보자. 사건 관련 연구물은 그 비중이 현격히 줄었다(10.9%). 대신에 5월 운동(기억 및 과거청산운동 포함, 23.8%), 5·18의 의미 및 성격 규정(23.3%), 5·18과 관련된 문화예술 및 문화운동(19.4%) 연구가 많다. 이는 이 시기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들이 변화한 결과이다. 즉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과거청산운동 및 기억문제의 쟁점화, 그리고 2000년 전후 광주지역의 문화중심도시 추진 등으로 인한 현상일 것이다.

이 시기 연구물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5·18왜곡 관련 연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왜곡 시도는 매우 체계적이고 집요하며, 이에 대응하여 학계의 연구도 나오고 있다(13편, 3.0%). 왜곡의 폐해가 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적은 것은 왜곡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근거 없이 이루어진, 그야말로 쓰레기 수준이어서 이성적인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5·18연구가 현재의 수준으로 진전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등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부터였다. 그렇다면 2006년 이후에는 5·18연구의 연구비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표 4)에 따르면 지원이 없었다고 표시된 것이 344편으로 전체의 79.4%에 이른다. 그 외 5·18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 35편(8.1%)이며,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지원 28편(6.5%), 대학 자체 지원 15편(3.5%) 순이다. 그러나 비지원으로 표기된 연구물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학술사업 관리상의 문제로 용역결과를 제출한 다음 그것을 논문으로 제출하면서 비지원으로 한 것이 많은 것이다.

표 4) 연구비 제공처로 본 5·18연구

연구비 수주로 본 연구물 분포

연구비수주 (사사표기)	비지원	광주광역시	대학교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연구재단	5·18 기념재단	기타	합계
빈도	344	4	15	6	28	35	1	433
비중(%)	79.4	0.9	3.5	1.4	6.5	8.1	0.2	100

* 기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연구비를 수주한 것임.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표매체는 공동저서의 형태(157편, 36.3%)였다. 다음으로는 학회 저널 및 학술회의 발표문의 형태(132편, 30.5%)이고, 5·18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문(51편, 11.8%)과 5·18연구소 학술저널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게재된 논문형태(50편, 11.5%)이 뒤를 잇고

있다. 발표매체로만 보면 5·18기념재단의 역할을 적게 나타나지만, 실제 역할은 매우 크다. 5·18기념재단은 다양한 매체에 흩어져 있는 연구물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것들을 출판물의 형태로 출간하여 후세대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05년도부터는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5·18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AJ(아시아 저널)」라는 이름의 학술저널을 창간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IV. 5·18연구의 한계 및 제언

1. 끼워넣기식 연구가 아닌 학술연구의 독자성 인정 및 체계적인 지원

1990년대 이후 광주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5·18이나 민주화운동 등 과거 청산 관련 사업들의 기획안을 보면 거의 모든 사업들이 유사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념관의 설치, 아카이브의 설치, 연구소의 설치, 전시 공간의 설치 등이 거의 모든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5·18기념관도 여러 개고, 자료실도 여러 개며, 모든 기관에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연구 영역이나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일들 중에는 연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도 상당 수 있다.

연구비 출처와 주제 영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가 표 5)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지원을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5·18기념재단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것들이었다.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광주시청에서 제공한 연구비는 오로지 5·18왜곡 관련 연구물에만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왜곡의 문제가 학술적인 쟁점이기보다는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연구비 출처와 주제영역 관계

주제 \ 연구비지원기관	비 지원	광주 시청	대학	교육 부	한국 연구 재단	5·18 기념 재단	기념 사업회	합계
5·18사건 관련	39	0	1	1	1	5	0	47
5·18의 의미 및 성격규정	78	0	2	1	10	10	0	101
5·18과 다른 사건 비교	13	0	0	0	1	1	1	16
5·18및 5월운동의 영향·효과	30	0	0	2	0	2	0	34
5월운동 관련	81	0	7	2	3	10	0	103
5·18관련 문화 및 예술	66	0	3	0	10	5	0	84
5·18과 다른 주제 연결	22	0	2	0	2	1	0	27
5·18관련교육	8	0	0	0	0	0	0	8
5·18왜곡관련	7	4	0	0	1	1	0	13
합계	344	4	15	6	28	35	1	433

*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말한다.

향후 5·18과 관련된 학술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5·18연구가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용역을 발주할 때도 주제나 연구방법, 사업의 관리 등에서 가능한 한 연구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기간 등에서도 현재와 같이 행정의 재정 관리 지침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망 하에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2. 전문 연구자의 부족 및 대학연구소의 활성화

표 6) 연구자 1인당 발표논문 수 분포 및 외국인에 의한 연구물

연구자 1인당 발표논문 수 분포(외국연구자포함)						
논문수	1편	2편	3편	4편	5편 이상	합계
빈도	216	48	15	4	11	294
비중(%)	73.5	16.3	5.1	1.4	3.7	100

* 공동논문은 총 25편(2인: 22편, 3인: 1편, 4인: 2편)

* 국외연구자는 6명(1편: 5명, 4편: 1명)

이번 조사에 포함된 논문은 433편이며, 필자 수는 모두 294명이다. 연구자 1인당 발표논문 수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에 따르면 논문 1편만을 작성한 경우가 216명으로 전체 경우 수의 73.5%에 달한다. 이에 비해 5편 이상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11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그동안 30년 가까이 5·18연구가 진행되어 왔었지만, 실제 5·18연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18전문 연구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특히 5·18에 대해 부채의식을 갖는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후속 세대들은 특별한 열정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5·18전문연구자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안 1) 연구 중심이 뿌리내려야 한다. 특히 연구 중심이 대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학에 전임교수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안 2) 대학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임 연구원의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5·18기념재단 등에서 연구 기능을 대학 연구소에 위임하고, 기금교수 형태로 전문 연구자를 대학 연구소에 배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자들에게 자신들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3. 교육과 연구, 국제교류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

현재에 대한 분석 결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5·18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 편으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5·18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는 학술연구의 주도권을 용역 발주처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거의 모든 연구가 1년 단위로 제공되며, 그나마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면 실제 연구기간은

반년 남짓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용역을 맡주하는 기관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다양한 형태(예를 들면 2년 단위나 3년 단위, 5년 단위의 프로젝트 등)의 용역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연구자들이 5·18연구회나 포럼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5·18연구를 전공으로 하는 학문후속세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국제교류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우선 지역 수준에서는 대학원 과정의 설립에 대한 고민을,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연구 용역이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들의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신진세대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 3) 지역 수준에서 5·18이나 민주화운동 관련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학제에서는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각 학과에서 5·18에 대한 연구자가 나와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전남대의 경우 NGO협동과정(석·박사 과정)이 이미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5·18전문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주·인권·평화대학원 혹은 김대중대학원 등의 명칭으로 대학원 설립이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대한 4)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전망을 갖는 5·18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5·18을 연구해야만 한다.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야 한다.

문제제기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동시대사 연구, 특히 동시대의 국가폭력이나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정 자료나 증언에만 집중해도 그 결과는 좋지 않으며, 구조적인 접근만으로는 현실적인 변화나

특징을 포착하지 못한 공허한 연구가 되기 쉽다. 본 발표자는 최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하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럴 경우 문서화된 자료에만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신군부의 왜곡과 음모를 그대로 반복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구조적인 접근만 할 경우 연구의 구체성은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5·18에 대한 학술 연구는 전문연구자를 육성하거나 지원하고, 이들 학문후속세대들의 자유로운 연구가 보다 풍성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본 발표자의 경험으로는 지역에서는 물론 전국적·국제적으로 그런 자원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이 학계의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5·18교육의 방향

노성태(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역사)

1. 머리말

5·18민주화운동이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이 된다. 지난 40년의 세월은 정말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에 저항한 사건이었고, 광주항쟁을 엄청난 폭력으로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5·18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을 위한 투쟁은 또 다른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위대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1988년 국회의 광주특위에서 실시한 ‘광주청문회’와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을 통해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1996년 8월 26일, 마침내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 서게 되고, 법적 심판을 통해 5·18은 ‘내란 및 내란 목적을 위한 살인행위’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5·18이 국가기념일로 선포되고, 2002년 망월동 묘지가 신묘역이 완공되어 ‘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되었으며, 같은 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관련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5·18교육도 이러한 역사적 평가와 맥락을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 5·18교육은 역사적 평가에 따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선포되고 망월동 묘지가 국립 5·18묘역으로 승격된 이전과 이후가 그것이다. 이전의 5·18교육이 5·18의 진실을 알리는 투쟁 차원의 교육이었다면, 이후는 5·18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다짐하는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왜곡과 맞서 진실을 규명하는 교육이 지속되었음은 물론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폭력적 파시즘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이었고, 이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은 자유·민주주의·공동체라는 가치를 사수하려는 행동이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소명과 과제는 무엇일까? 다시는 한국 사회에 폭력적 파시즘,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전체주의를 차단하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극단적 성향의 정치조직 출현을 예방하는 일은 아닐까 싶다. 이는 건강한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물어야 할 질문은 계속된다. 한국사에서 5·18은 무엇인지, 5·18의 정신과 가치는 무엇인지, 그 정신과 가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어떻게 부활되어야 하는지, 5·18정신과 가치를 다짐하게 하는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등의 물음이 그것이다.

그럼 5·1840주년 이후의 5·18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고 교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학교 현장을 포함, 지난 40여년 어떻게 5·18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2. 한국사 교과서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은 크게 공교육과 시민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공교육이 국가가 인정한 한국사 교과서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인정교과서를 통한 교육이라면, 시민교육은 5·18기념재단이나 각종 시민단체 및 종교 단체 등에서 자체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어 실시한 교육을 말한다. 5·18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시절 시민교육은 5·18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공교육의 토대 역할도 한다.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교육 자료는 한국사(역사) 교과서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까? 출판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2010년 비상교육에서 발행한 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벌이던 전남대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많은 학생들이 다치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하여 시위 참여 인원이 크게 늘었다. 그러자 신군부는 공수 부대를 더 파견하고 21일에는 시민들에게 발포까지 하였다. 이에 맞서 시민들은 광주와 인근 지역 경찰서 등에서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광주 시내에서 철수하여 외곽에서 시내로의 진입과 통신을 차단하였다.

광주는 고립되었지만 시민들은 자치적으로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였다. 관료, 종교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가 사태 수습을 위한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하고 시민군의 무기를 일부 회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실패하고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전남 도청으로 진격하여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시민군과 교전을 벌였다. 결국 5·18민주화 운동은 진압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집권에는 성공하였으나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집권한 전두환 집권기 내내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은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 ‘금남로 집회’, ‘시민군’, ‘시위 도중 사망한 아버지의 영정을 안고 있는 아이’ 등 4장의 사진이 실려 있고,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광주시민권기문(1980.5.25.)’이 실려 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5·18의 발발과 전개과정, 의미에 대해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 못지않게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어떻게 가르치느냐 도 중요하다. 역사 교사 및 현장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특히 5·18을 체험하지 않은 타 지역 교사들과 젊은 교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3. 5·18기념재단에서의 5·18교육

현재 5·18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시민교육 기관은 광주시민·해외동포를 포함한 국민의 기금과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으로 1994년 8월 30일 설립된 5·18기념재단이다. 5·18기념재단은 2005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민주·인권·평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사업, 5·18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사업, 학술사업과 더불어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 5·18교육 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5·18 40주년 이후 5·18교육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지난 40여 년간 실시된 5·18교육 현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관과 장소에서 실시되었겠지만, 5·18기념재단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려 한다.

5·18기념재단에서 실시한 5·18교육은 2018년 김남철(완도교 역사) 교사가 발표한 「5·18교육, 어떻게 해왔는가-5·18교육의 성과와 과제-」라는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남철 교사가 정리한 5·18기념재단 교육사업에 관한 도표는 다음과 같다.

※ 5·18기념재단 청소년 교육사업: 2001~2018

<p>교육자료 및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발,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수업용리플릿(수업 활동지), CD, 영상교재 DVD - 교과별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 : 국어,도덕,사회,역사,미술,초등,클럽활동 등 7종 - 5·18인문 수업안: 철학, 문학(소설), 영화, 음악 - 교육용 홈페이지(2005~) : www.518edu.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다큐멘터리, 사진첩, 음악CD, 만화책, 도서, 공모전을 통한 동화·소설·플래시애니메이션, 웹툰 자료 등이 있음
<p>교과서 개발 및 제작,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용 인정교과서 및 수업자료집 개발과 제작 배포 - 오월 교육 원칙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는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 등재와 새로운 사실을 반영 할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을 거쳤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의 연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각 학교에 배포되고 있음.

<p>학생 체험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역사캠프(2001-2003) - 평화순례(2003-2004) - 사적지안내 및 체험학습(2001~) - 청소년축제(2001-2003) - 벽화그리기(2001-2001) - 락페스티벌(2000-2002) - 청소년연극제(2006~2012) - 청소년인문학교실(2007~2009) -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2001~현재) - 청소년 축제 레드페스타(2004~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축제(2001-2003)는 2004년부터 '5·18 청소년문화제 REDFESTA'로 명칭을 변경해 금남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음.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토론회는 2018년 올해 18회째 이어지고 있는 역사성 있는 대회임.
<p>교사 및 지도자 양성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연수(2001~현재) - 수업사례발표회(2005~2008) - 우수수업사례 공모전 - 오월강사단/ 사적지안내봉사단(오월지기) 양성 - 교사 해외 민주시민교육 현장(독일) 탐방 (2007,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연수는 재단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제주(4.3항쟁), 부산(부마항쟁), 서울(6월 민주항쟁) 등과 연계해 진행하였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운영하고 있음.
<p>공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협력교 지정 및 운영(2002~2008) - 5·18협력학교 운영(2009~) -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동아리 지원(2003~) - 청소년 봉사활동(2001~)/ 문화체험(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협력교가 2009년부터 5·18협력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5·18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음.

김남철 교사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5·18기념재단의 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이 주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초·중등 수업용리플릿(수업 활동지), CD 및 영상교재 DVD, 교과별 교수 학습지도안, 국어·도덕·사회·역사·미술·초등·클럽활동 등 7종, 5·18인문 수업안 등 교육 자료와 교수 학습 지도안 등을 개발 보급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와 별도로 초·중등용 인정교과서 및 수업자료집을 개발하고 배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연수(2001~현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오월강사단을 양성하였다.

5·18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초·중등학생들에게 5·18은 역사 속의 사건으로서의 5·18일 뿐이다. 이들에게 5·18의 진실과 가치를 이해시키는 데는 체험과 참여만큼 좋은 수업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5·18기념재단에서 실시

한 청소년역사캠프(2001~2003), 평화순례(2003~2004), 사적지안내 및 체험학습(2001~), 청소년축제(2001~2003), 벽화그리기(2001), 락페스티벌(2000~2002), 청소년연극제(2006~2012), 청소년인문학교실(2007~2009),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2001~현재), 청소년 축제 레드페스타(2004~현재) 등 체험활동은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청소년 역사 캠프 등 몇몇 체험활동은 2~3회 실시 후 중단되기도 했고, 다른 이름으로 발전되어 계승되기도 했다.

현재 실시되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사적지 안내 및 체험학습과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와 청소년의 대규모 문화 축제인 레드페스타 등이 운영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의 교육활동은 나름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민교육의 부재나 전국으로의 확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4. 5·18기념재단에서 제작된 영상물

오늘 교육현장에서 영상물은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중요 수업매체 중 하나다. 5·18기념재단 자료마당에 들어가 보면 5·18웹툰이 있고, 60여개가 넘는 영상자료가 등재되어 있다. 영상자료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5·18관련 영상물은「5·18다큐물」과「여보, 나는 죽었어요」등 5·18증언물, 「전진하는 오월」등 애니메이션, 「목련이 진들」등의 5월의 노래와「37년 만에 증명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등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취재물 등 다양하다. 영상물의 크기는 3~5분 내외가 다수여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에도 적정하다.

5·18기념재단의 교육 사업이 교사와 학생을 주 대상으로 했다면, 5·18기념재단의 웹툰이나 영상은 누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민 교육 자료이다. 영상물은 왜곡을 바로잡아줄 뿐 아니라 당시 피해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볼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 자료라는 측면에서 영상물 확대 활용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5. 40주년 이후 5·18교육의 방향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5·18교육의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는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 주제이지만, 주어진 지면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하나, 5·18정신으로 정리된 민주·인권·평화·저항의 가치를 기리고 계승하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21~26일까지 보여준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되는 나눔과 배려의 가치, 즉 ‘절대공동체의 가치’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역사) 교과서의 5·18서술은 계엄군의 폭력→시민들의 저항(시민군 조직)→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끝나는 전개과정을 설명하는데 치중했다. 그러다보니 5월 21일 이후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주먹밥이나 헌혈이 사진 자료나 읽기 자료로 제시되는 수준(미담으로 소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자칫 계엄군이 27일 새벽에 다시 쳐들어올 때까지 광주 시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죽이고 있었던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 광주 시민들은 고립 공간에서도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수습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사태 해결을 논의했으며, 분수대에서는 매일 ‘시민권 기대회’가 열렸다. ‘투사회보’라는 대안언론이 등장하였으며, 가족과 친구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움직였다. 사태 해결을 둘러싸고 수습파와 항쟁파로 나뉘는 갈등도 있었으며, 죽음의 행진에 나선 어른들도 있었고, 시신을 수습하고 관을 구하러 다닌 청소년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부각될 때 대동 광주의 공동체 정신이 제대로 조명 받을 수 있고,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의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5·18교육이 진실규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중심으로 교육했다면, 이제는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되는 광주 시민들의 실천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주년이 되는 지금, 발표명령자 및 헬기사격, 계엄군의 여성 성폭력, 행불자 등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다.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지 벌써 40년이다. 국민의 절반은 5·18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역사속의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5·18은 1980년 5월 27일에 끝났지만, 또한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사건이다. 학생과 시민들은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으니 잘 해결된 일, 이미 정리된 일,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5·18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났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계속되는 논란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교육이 될 것이다.

셋, 5·18을 다양한 사건과 연계하여 시민(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고, 연대 의식을 넓혀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5·18은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나, 단지 광주에만 국한된 사건은 아니다. 불의한 권력, 억눌린 약자, 야만적 국가 폭력, 무고한 희생의 사례는 무수히 많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5·18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불의에 분노하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공감 능력과 연대 의식을 키워야 한다.

‘광주의 청소년이 제주의 청소년에게 쓰는 편지’라는 수업을 사례로 제시한다. 5·18유족회 등 오월단체가 진도 팽목항에 걸었던 ‘5·18엄마가 4·3엄마에게/ 당신의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란 펼침막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수업이었다. 제주 4·3이 아직 공식 명칭도 정해지지 않았음과 그 이유를 설명하며 제주 4·3평화공원기념관 백비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광주의 청소년이 제주의 청소년에게’란 주제로 편지를 써서 발표하게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4·3에 대해 보다 깊이 알아보고 제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다. 또 광주의 사례(5·18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과정)를 조사하고 가상의 제주 친구에게 소개함으로써 5·18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현대사의 미해결 과제들이 많이 있음과 연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5·18과 접목할 수 있는 사건, 사례는 많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린 현재의 홍콩 시위도 그러하다. 5·18을 오월 광주로만 설명하지 말고, 다양한 사례와 연계하여 5·18을 공부할 때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오월 정신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 비판적 사고를 가진 자유인, 행동하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1980년에도 그랬고, 40년이 다된 지금에도 5·18과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넘쳐난다.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사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불의한 권력과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이를 분별해내는 판단력이 필요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참여의지, 행동력을 길러야 한다. 5·18교육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민주 시민 육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다섯, 촛불혁명의 세계화와 더불어 교육해야 한다. 5·18은 촛불혁명의 태동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촛불혁명은 우리 자신도 놀랐지만, 민주주의의 원조라 생각하는 서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 가장 칭송받은 민주주의 혁명은 체코 프라하 한 복판에서 벌어진 무혈혁명인 ‘벨벳혁명’이다. 그러나 벨벳혁명보다 더 칭송받는 혁명이 ‘촛불혁명’이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평화 그 자체였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장기간에 거친 비폭력 저항이 이루어 낸 희생자 없이 쟁취한 시민혁명이었다. 희생 없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낸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희생과 표면상 실패, 그 이전에 5·18의 저항-희생-패배의식 속에서도 짝튼 정의에 대한 의지 등이 토대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이는 사회를 위해 개인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의 희생 없이 정의로움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로 혁명을 이루어 낸 촛불 혁명은, 안타까운 수많은 희생을 당하고도 정의와 평화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의지가 토대가 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몇 가지 제언

40주년 이후의 5·18교육의 실천은 교육 방향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세 가지가 될 것이다.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 새 프로그램의 신설 운영 등이 그것이다.

5·1840주년 이후 교육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할 지 몇 가지 제언을 하려 한다.

하나, 5·18에 관한 초·중등교과서의 서술이 적절한지 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역사)교과서는, 전국의 학생들이 현재 진행형이면서 역사적 사건이 된 5·18민주화운동을 편견 없이 이해하는 가장 객관적인 교육 자료이기 때문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사(역사)교과서 발행회사에 공문을 보내 194개교였던 참여 학교 수를 320개로 정정 요청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 5·18의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련시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역사 현장은 가장 중요한 5·18교육현장이다. 옛 도청과 금남로, 헬기 사격을 당한 전일빌딩 등이 다 그 현장이다. 민주·인권·평화관으로 승화된 옛 도청이나 시신을 수습한 상무관, 32개의 사적지 표지석, 5·18기록관, 5·18묘역과 역사관 등은 늘 체험활동의 주 무대이다. 시설이 늘 적정한지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상무관은 당시 시신을 안치한 현장인데 아무런 흔적도 없다. 당시 대형 사진이라고 걸었으면 싶다. 5·18기록관은 기록물의 배치가 일목요연하지 않다. 5·18묘역의 역사관에서 상영하는 테이프는 낡아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런 시설들을 늘 챙겨야 한다.

셋, 이미 제작된 5·18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 자료가 현재의 시대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비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제작되어 5·18기념재단에 탑재된 영상물은 피해 당사자를 직접 만날 수 있고,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늘 교육 자료의 부족에 허덕인다. 제작한 자료가 현장의 교사들 손에 들어가는 과정에도 신경 써야 한다. 홍보도 부족하다.

5·18교육 자료는 학교 급별 및 시대적 가치나 교육 방향에 맞게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지속되어야 한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의 수업은 충분한 자료 축적에 기인한다.

넷, 옛 도청 앞 시계탑의 시간을 13시에 멈춰 서게 하여,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 계엄군이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시계탑은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 하얼빈에

가면 안중근의사 의거지가 있고, 의거지 옆 역사(驛舍) 안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 입구의 시계의 시간은 안의사의 의거 시간인 9시 30분에 멈춰 있다.

다섯, 제주의 4·3항쟁. 부산의 부마항쟁, 서울의 6월 항쟁과 교류협력을 확대, 연대를 통해 해방 이후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오늘의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해냈음을 이해시키고, 오늘 우리들이 실천하고 이룩해내야 할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들과의 공동행사를 진행하자.

여섯, 지금까지의 교육이 교사와 청년(학생)에 맞춰 진행되었다. 이제 시민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강좌의 확대, 타 시도 시민단체와의 교류, 5·18현장 초청 등의 행사를 확대하자.

일곱,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위해 가칭 [5·18민주 학교]를 설립하자. 5·18민주 학교에서는 5·18의 진실과 가치를 교육하고, 5·18이후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사회 및 정치활동을 파악케 하고, 세계 각국의 과거사 청산과 국가범죄의 사례를 학습하며, 모의정당과 모의의회를 구성하여 정치적 이슈를 학습시키자.

5·18민주학교는 중앙정부, 보훈청, 광주시, 교육청, 기념재단, 기록관 등 망라해 상설기구로 구성하되 운영주체는 연구기관인 5·18기록관이나 또는 위탁 운영도 가능하다. 또, 광주시교육청 산하 [광주 역사학교]와 연계, 커리큘럼 등을 공유할 수 있다.

※ 부록1. 영상자료

목차	영상자료 명	영상 시간 (분)	제작연월일	조회수(명) 2019.8.30.기준
1	5·18, 그해 5월, 나는 살고 싶었다.	03.38	2016.03.24	2419
2	다큐멘터리 5·18	37.50	2016.03.24	3737
3	희생학생 추모 영상	05	2016.03.24	1982
4	기억을 기억하라	56.58	2016.03.24	1357
5	유네스코가 말하는 5·18의 진실	06.07	2016.03.24	1573
6	긴급리포트,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15.30	2016.03.24	1064
7	역사다시보기-5·18민중항쟁	20.15	2016.03.24	3519
8	34년 만의 기도	03	2016.03.24	1071
9	5·18,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05.32	2016.03.24	1963

목차	영상자료 명	영상 시간 (분)	제작연월일	조회수(명) 2019.8.30.기준
10	5·18 기억하겠습니다	20.59	2016.03.24	2506
11	5·18 광주민중항쟁 영상물	05.54	2016.03.24	2240
12	5·18 영상 증언 다큐 -이제는 어미를 용서해 다오	03.55	2016.03.29	1075
13	5·18영상 증언 다큐-남편의 빈자리	03.45	2016.03.29	883
14	5·18영상 증언 다큐-열여덟살 구두땀이, 나는 고아였다	02.18	2016.03.29	1201
15	5·18영상 증언 다큐 -하나 밖에 없는 남편	02.46	2016.03.29	1007
16	5·18영상 증언 다큐 -아들을 사지로 보낸 아버지의 슬픔	04.47	2016.03.29	1065
17	5·18영상 증언 다큐 -어느 방위병의 죽음	03.42	2016.03.29	1512
18	5·18영상 증언 다큐 -막둥이와 함께보낸 지상의 마지막 밤	04.14	2016.03.29	1493
19	5·18영상 증언 다큐 -새벽 3시 30분의 밥짓는 소리	05.19	2016.03.29	1320
20	5·18영상 증언 다큐 -나는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	06.30	2016.03.29	1012
21	5·18영상 증언 다큐 -여보 나는 죽었어요	02.04	2016.03.29	1271
22	5·18영상 증언 다큐 -당신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01.45	2016.03.29	1273
23	5·18영상 증언 다큐 -차참히 찢겨진 딸의 몸	02.20	2016.03.29	1178
24	5·18영상 증언 다큐 -우리 집에서 세 명이나 죽었어요	02.47	2016.03.29	1127
25	5·18영상 증언 다큐-임옥환	02.18	2016.03.29	1172
26	5·18영상 증언 다큐-목사가 되기도 전에 하늘의 자식이 되어	02.11	2016.03.29	1237
27	5·18영상 증언 다큐 -산이 되고 강이 되는 사무침	02.58	2016.03.29	1278
28	5·18영상 증언 다큐 -잘못된 정권에 대한 항거	02.28	2016.03.29	1241
29	5·18영상 증언 다큐 -용서할 수 없는 만행	02.48	2016.03.29	1966
30	오월의 노래1(애니메이션)	04.50	2016.03.29	1924
31	오월의 노래2(애니메이션)	06.42	2016.03.29	1439
32	민주햇살(애니메이션)	04.19	2016.03.29	1808
33	전진하는 오월(애니메이션)	04.15	2016.03.29	1306
34	임을 위한 행진곡(애니메이션)	05.38	2016.03.29	2722
35	5월의 노래-광주여 무등산이여	05.33	2016.05.04	1393

목차	영상자료 명	영상 시간 (분)	제작연월일	조회수(명) 2019.8.30.기준
36	5월의 노래-5-18	05.21	2016.05.04	1452
37	5월의 노래-한다	06.05	2016.05.04	1209
38	5월의 노래-광주천	03.19	2016.05.04	1164
39	5월의 노래-5월의 노래2	04.53	2016.05.04	1669
40	5월의 노래-임을 위한 행진곡	06.22	2016.05.04	2340
41	5월의 노래-5월의 노래1	04.34	2016.05.04	1515
42	5월의 노래-목련이 진들	02.13	2016.05.04	1550
43	5월의 노래-전진하는 오월	03.08	2016.05.04	1449
44	5월의 노래-5월의 노래3	04.04	2016.05.04	1935
45	2014 인권수상자	04.13	2016.11.07	612
46	2016 5-18기념재단 기념사업과 성과	06.56	2017.01.06	497
47	2016 광주아시아 포럼 활동 영상	06.31	2017.01.06	596
48	2016 광주인권상 수상자 인터뷰	03.30	2017.01.06	646
49	2016 광주인권상 수상자 인터뷰	02.58	2017.01.06	645
50	5-18기념재단 설립 20주년 활동 영상	05.26	2017.01.06	716
51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06.41	2017.01.09	2950
52	기억하겠습니다. 5-18	05.30	2017.01.06	1667
53	5-18 샌드애니메이션, '오월의 불꽃이여 영원하라'(주홍 작가)	07.23	2017.01.06	3793
54	제4회 100인의 오월 정신 릴레이 아트 '광장의 꽃 1980-2017'	10.44	2017.07.06	527
55	2017 5-18 언론상 취재보도/광주Mbc/ 그의 이름은	03.43	2017.08.25	619
56	2017 5-18 언론상 취재보도/뉴스1/37년 만에 증명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	03.12	2017.08.25	552
57	2017 5-18언론상 취재보도/sbs/『그것이 알고싶다』 각하의 회고록	03.03	2017.08.5	586
58	2017 5-18언론상 뉴미디어/전남대 병원 5-18 10일간의 여전병원'	03.20	2017.08.25	602
59	2017 5-18언론상 공로상/이창선 전 중앙일보 사진기자	02.40	2017.08.25	870
60	2018 5-18언론상 취재보도/한계레 신문/5-18계엄군여성 성폭행 38년만의 첫 보도	02.41	2019.01.08	198
61	2018 5-18언론상 취재보도/sbs 그것이 알고 싶다/잔혹한 총성 2부작	04.41	2019.01.08	180
62	2018 5-18언론상 사진보도/광주일보 최현배 기자/웃고있는 박준병과 소준열	03.09	2019.01.08	255
63	목격자들/2019 독일오월민중제 연극	26.18	2019.06.04	105

‘40주년 이후, 5·18학술연구는?’에 대한 토론문

김형중(조선대학교)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 서두 “40주년 이후에는 5·18에 대한 학술연구가 전혀 다른 지평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연구자들은 점차 5·18에서 현재의 연구자들보다 자유로운 처지에 있을 것이며, 보다 객관적일 수 있고, 5·18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40주년이 넘어가면서 5·18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말은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5·18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발표는 제게도, 그리고 5·18을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유익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각각 자기 분야에서 5·18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마치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어서, 지난 40년 동안의 연구 성과와 현황, 그리고 한계와 전망을 꼼꼼하게 정리해 연구의 전체 지형도를 그리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 덕분에 그간 5·18을 두고 무슨 연구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통시적으로 조감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더욱이 발표문에는 5·18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그간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연구중심으로서의 대학 전임교원 충원, 2) 대학 연구소의 역할 강화, 3) 대학원 과정 설립, 4) 전국적·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성 등이 그것들입니다. 5·18 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들이고 절차들이에 틀림없습니다.

1) 다만, 대체로 ‘정량적’분석에 의해 도출된 저와 같은 대안들이 주로 (대학) 제도와 연구(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 겸 한 마디 거들어야 할 듯합니다. 물론 연구제도의 개선과 확대는 그 어떤 연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5·18 연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과 확대 이전에 많은 후속 연구자들이 5·18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중 최선의 것은 아마도 5·18이 ‘필요하고도 매력적인 연구 주제’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학술 연구가 때 시기의 정치적·문화적 정세에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자율성 속에서도 어떤 연구가 그 사회 그 시대가 당면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우회적으로라도 관여할 수 없다면, 그 연구의 ‘유효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5·18은 (연구비와 무관하게) 여전히 매력적인 연구주제입니다. 고전적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를 사유해 볼 수 있게 하고, 국가 폭력의 재현(불가능성)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게 하고, 국민국가와 시민이라는 짝을 벗어난 어떤 주체에 대해 예측해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더 많은 주제들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저는 연구제도의 개선 이전에 5·18로 ‘부터’, 혹은 5·18을 ‘통해’, 항상 ‘현재적’인 아젠더들을 발명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40년 이후의 5·18 연구는 그다지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게 될 공산이 크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2) 연관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5·18관련 연구를 둘러싸고 일종의 융합학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5·18자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향후 5·18과 관련된 학술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5·18연구가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제 경우 5·18이 향후에도 꾸준히 매력적인 연구 주제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른바 5·18학’이라고 할 만한 하나의 학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학문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건) 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5·18은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이었고, 시적이면서 존재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5·18 자체에 대한 연구”(융합학문이 아닌), 혹은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5·18”연구는 어떤 것인지요.

3) 다음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5월 운동(기억 및 과거청산운동 포함, 23.8%), 5·18의 의미 및 성격 규정(23.3%), 5·18과 관련된 문화예술 및 문화운동(19.4%) 연구가 많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최근 5·18 세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 중 하나가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어떻게 5·18을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 들었습니다. 발표문으로 미루어 볼 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이신 듯합니다만, 그렇다면 기억 투쟁(의미와 성격의 재규정 포함)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들이 많아지는 추세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40년 전의 사건이 여전히 현재적이어야 한다면 이제 그 기억을 복원하고 해석하고 재현하고 전수하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5·18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5·18 연구의 양적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이전에 40년 이후의 5·18 연구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어떤 주제나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내심을 듣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분석 대상이 된 연구물들의 범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 대학에 재직 중이지만, 논문 쓰기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읽는 독자가 그리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최근 대학 내 연구재단 중심의 연구 풍토가 많은 점에서 ‘국가’의 지원에 의해 복속된 형국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와 연구가 동일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문학분야의 경우, 연구재단에서 인정한 학술지가 아닌 매체(가령 계간지나 비평서)에 시급하고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종종 발표되곤 합니다. 선생님이 분석하신 연구물들이 지나치게 제도권 내 학술 연구들에 편향되어 있다는 말씀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의 국가 주도(5·18기념재단과 대학 포함) 연구 시스템에는 정말로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해 드리는 질문입니다.

학술연구 토론문

노영기(조선대)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동시대사” 그중에서도 “국가폭력 및 그에 대한 저항을 연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발표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탐구하는 것이 “부담”인 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어쩌면 사실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발표자가 지적하듯이 이외에도 정치,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기 5·18연구는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 경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발굴해야 할 자료(문헌 자료, 구술 자료, 사진을 비롯한 영상 자료 등)가 남아 있고, 이것을 분석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흐른 까닭에 5·18연구는 새로운 지평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험의 5·18’이 아닌 ‘역사의 5·18’인 된 것입니다. 마치 토론자가 4·19혁명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인식일 것입니다. 달라진 5·18에 대한 위상과 시간의 흐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발표자와 비슷한 방향에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5·18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5·18의 정확한 명칭도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명칭인 ‘5·18민주화운동’부터 ‘5·18항쟁’, ‘광주민중항쟁’, ‘5·18민중항쟁’ 등 다양한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양한 인식에 기반 하기에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5·18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5·18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5·18'을 독자적인 학문 연구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 규정만큼이나 5·18은 다양한 과제를 제기합니다. 진상규명에 기초한 '사실'의 정리는 기본일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폭력, 다양한 문화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콘텐츠로의 활용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발표자가 제기하듯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연구도 필요하지만 5·18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고 그 가치와 의미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연구 단위(연구소)와 인력 등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제기한 것처럼 적어도 지역 수준에서 대학원 과정의 설립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원이 현재 국내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대학원과 같이 특정한 주제의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은 있으나, 이것이 지역에 기반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지역 수준의 대학원을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40년을 맞이하는 5·18연구가 지역에서 보다 풍성한 논의와 뒤따르는 실천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5·18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

박상철(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파견교사)

1. 교과서 내용과 교사 연수

먼저, 발표자의 △교과서에 기술된 5·18민주화운동의 내용 △ 교사가 어떤 관점을 갖고 교육자료 활용을 포함하여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돕기 위한 교사 연수의 중요성 대한 강조에 대하여 매우 공감합니다. 특히 발표자도 언급했지만 타 지역 젊은 교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적 경험에 의하자면 교사 대상 5·18교육 활성화를 위한 나눔은 우리 지역 교사 대상과 Vs 타 지역 교사연수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타 지역 교사 대상은 아무래도 5·18의 내용적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하는 반면,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우리 지역 교사 대상 5·18교육 연수는 내용보다 방법 면에 비중을 두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 합니다. 그 동안 5·18재단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단순의 교육자료 소개 활용 방법을 넘어 학교시스템과 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5·18정신 계승을 위한 실천을 바탕으로 한 학생자치와 ‘하나 된 5·18교육’은, 교육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백미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비록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성숙된 5·18교육을 하는 학교가 특정 혁신학교에 국한하여 아직은 보편적인 양상은 아니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주는 5·18교육의 보배라 여겨집니다. 올 초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전두환을 향해 따끔하게 ‘정의와 상식의 외침’을 선보인 광주 D초등학교도 이러한 ‘하나 된 5·18교육’이 학교전체의 시스템과 문화로 굳건하게 자리 잡은 속에서,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연스레 이어진 행동하는 양심이었

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포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학교구성원 5·18묘역 참배
- 해당 학교는 매년 5월이 되면 묘역을 참배하고, 주요 사적지를 답사하는 일정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학생회와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5월 행사

[이미지 1] 광주서초등학교 5·18 관련 교직원과 학생 활동

2. 5·18교육 활성화와 질적 성숙

발표자는 기념재단의 교육사업과 영상물을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5·18교육에서 △ 체험과 참여의 중요성과 △ 영상물을 중심으로 한 확대와 활용 활성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타 지역 교사 대상,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본 토론자도 앞에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타지역을 포함한) 5·18교육을 어려워하거나 무관심한 학교 교사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의 덧붙인 아래 내용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는 발표자도 강조했듯이 5·18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의 중요성입니다. 수영을 못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나 물놀이 튜브를 지급하듯이, 5·18교육 방관자교사에게 “이것을 활용하면 쉬워요”라는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5·18교육자료입니다. 5월이 되면 독특한 광주의 풍경이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에 5·18교육자료를 신청하는 학교선생님들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것입니다. 광주교육청도 5·18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5·18기념재단은 오랜

노력의 결실 속에 가장 풍성하고 실효성이 높은 다량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는 학교현장의 5·18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도, 5·18기념재단도, 여러 5·18민주화운동 체험공간 등 다양한 교육자료와 체험활동을 마련해 두고 두 팔 벌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18교육을 처음 시도하는 교사도 상대적으로 쉽게 5·18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은 여건과 기반이 다릅니다. 재단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타 지역을 아우르는 5·18교육의 전국화를 위하여 5·18교육자료 개발을 넘어 ‘어떻게 알리고 대상에게 전달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듯 싶습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작
- 저학년 학생 대상으로 5·18의 가치를 학생의 눈높이에서 안내하는 수업 자료



- 5·18기념재단 제작
- 컴퓨터를 활용하여 5·18수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자료



- 5·18기념재단 제작
- 5·18을 주제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활동들을 안내하고 있음.



- 5·18기념재단 제작
- 5·18의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안내하는 사진 전시자료

[이미지 2] 초등용 5·18 교육자료

두 번째는 5·18교육의 질적 성숙입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로 역사(민주 시민 또는 정치교육이라고도 함)교육을 지독하게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본 토론자는 운 좋게도 2017년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해외 민주시민교육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일정 중 독일 베를린주에 있는 니트링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홀로코스트 교육활동을 참관하였는데, 우리로 치면 무학년제 학급으로 4~6학년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진행된 수업은 학생 주도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이었습니다. 참관한 날은 PBL 마지막 시간으로 그 동안 현장학습과 자료수집 등으로 탐구한 결과를 ‘인물’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활동을 학생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명문 학교가 교과서 내용 중심이 아닌 학생 주도로 지식을 구성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PBL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전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 교사는 그저 구석진 벽에 기대어 서서 학생들을 지켜보는 정도의 소소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매우 수준 높은 역사 기반 시민교육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후 해당 학교장과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더욱 놀라운 정보는 베를린 주 모든 학교 교사는 홀로코스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만약 교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은 베를린 주 연방교육원의 교육방침이 담긴 책자를 보여주며) “(학교장 왈) 학교에서 그만”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교육을 법률과 제도로 마련하여 당연한 원칙이자 높은 수준의 교육력 발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앞서 언급한 혁신학교 중심으로 꽤 많은 학교에서 5·18수업을 PBL(‘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이라는 용어와 병행)로 진행합니다.

<표 2> 2018학년도 광주서초 6학년 5·18교육 PBL

학습 과정	교과 및 단원	수업 차시
주제	- 내가 알고 있는 5·18이란? (5·18에 대한 오개념 파악하기)	5H
	- 영화 '화려한 휴가'시청 후 '5·18을 잇다'프로젝트 교육활동 공유하기	3월 4주
	- 사회 : 3-3.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5·18교과서 1, 2장)	2H 4월 1주
	- 국어 : 11. 뉴스의 관점 (유튜브 1980년 5·18관련 국내외뉴스 검색) → https://www.youtube.com/watch?v=nA7lQ98XvkU 3분 20초~4분 05초 상영 → 뉴스 관점 파악 후 처음부터 시청	3H
	- 국어 : 7. 이야기 구성 ('오월의 달리기'책 읽기, 5·18그림책 만들기)	6H 4월 2주
	- 음악 : 5·18의식곡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 (5·18교과서 6장, 투사회보)	1H 4월 3주
	- 미술 : 6-2. 영상 표현 (유튜브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노래 님을..'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s8F2aDhIP6E (님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이용해서 뮤직 비디오 제작)	2H
	- 도덕 : 5. 배려하고 봉사하는 우리 (5·18교과서 6장) 5·18 마라톤 후원자 찾을 안내지 만들기 (모듬 및 개인) < 기억하기 위해 달립니다 >	2H
탐구	- 국어 : 4. 면담하기 (체험학습 시 오월지기 면담), 5월 2일 현장학습 (5·18 교과서 3장), 질문리스트 작성 및 면담팀 구성 (직소 학습법)	3H 4월 4주
	- 5·18 명예 교사와의 만남 (5·18유공자 또는 가족)	2H 4월 4주
	- 미술 : 4-2. 미술 감상과 비평 (5·18자유공원, 법정 및 영창, 영상자료 시청, 5·18묘역), 5월 2일 현장학습	6H 5월 1주
	- 미술 : 2-1. 시각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후원자 선전물 만들기, 시트지)	1H 5월 1주
	- 체육 : 1. 건강활동 (PAPS 측정 및 신체검사), 5월 3일	4H
	- 체육 : 2. 도전활동 (천변 달리기 및 걷기), 5월 9일	4H 5월 2주

학습 과정	교과 및 단원	수업 차시
표현	- 체육 : 2. 도전활동 (5·18마라톤 대회 참가), 5월 12일	4H 5월 2주
	- 국어 : 3. 마음을 표현하는 글 (후원금 전달 및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글쓰기 및 뱃지 선물, 후원 인증사진)	3H 5월 3주
	- 미술 : 2-1. 시각 문화의 다양한 모습 (5·18뱃지 만들기) 예) 5·18은 ooo이다.	1H
	- 창체 : 5·18주먹밥 만들기, 5·18사진 큐레이터(20장) 예) 사진 한 장 골라서 2분 스피치	2H
	- 창체 : 후원금 5·18관련 단체 기부 및 프로젝트 활동 되돌아보기 (한자리 모임)	2H 5월 4주
	- 미술 : 6-1. 판화 (5·18사진전, 5·18과 나를 잇다)	3H
	- 국어 : 2. 다양한 관점 (5·18교과서 8장)	2H 5월 5주
	- 5·18교과서 4장, 7장 (유튜브 검색, 유네스코가 말하는 5·18의 진실) 9장, 10장 (5·18의 현재와 미래)	3H
	- 5·18백일장 표현대회. (글짓기, 그림, 시화 표현활동 선택), 되돌아보기	3H
총 수업 시수		62H

이는 교과서 기술 내용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에 방점을 둔 실천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시민 교육을 논할 때 ‘알게 하는 교육에서 ⇨ 실천하는 교육으로 ⇨ 최종은 (나와 세상에 대한 관점 변화) 존재가 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제는 교과서를 통한 지식습득이 주를 이루는 내용 이해 국한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할 기회와 할 공간을 주는” 실천적 5·18교육으로 전환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5·18교육사업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 하고 싶습니다. 2000년 초에 교육자료 제작, 교사 연수, 교육사업 등 당시 대한민국의 황량한 벌판에서 모든 5·18교육을 혈혈단신으로 버티던 그 치열한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것처럼 그 동안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 교육사업만 해도 10여개나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

모집'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토양이 달라졌습니다. 작년부터 교사연수도 교육청과 함께 함으로써 만년 겪었던 '교사모집'이 해소되었듯이 (사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실무진들의 격무가 걱정될 만큼 천지개벽?), 청소년 실천형 민주시민교육사업 신설·증대가 필요한 듯합니다. 왜냐면 시대는, 상황은, 이제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존재가 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에게 “할 기회를... 할 공간을...”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앞서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법적·제도적 기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청와대와 여당이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5·18 헌법전문 수록이 무산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시겠지만 5·18이 헌법에 수록되는 순간 교육 부문에서 5·18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기반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노력인데요, 2010년 광주교육계는 민선 1기로 5·18교육을 강조한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며 우리 지역 모든 학교에 5·18교육은 행정지침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5·18교육의 활성화와 성숙도는 5·18기념재단의 탁월한 콘텐츠와 교육 지원과 광주교육청의 제도마련이라는 양 날개로 순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 교육청 수준이 아니라 정부 수준의 제도적 기반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표 3> 2019 광주광역시교육청 5·18교육 행정지침

주요 지침	세부 내용
각 학교 5·18 담당교사 운영	① 5·18민주화운동 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참가 목적 : 학교에서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 내용 : 5·18교육자료 배부 및 활용 안내,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

주요 지침	세부 내용
각 학교 5·18교육 필수 사항	<p><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5·18민주화운동 기간(5월 18일~27일) 참조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u>2시간 이상 교육과정 반영</u>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실시(필수) : 학생회 주관 기념식 실시 권장,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포함 • 현수막 게시(필수, 5·18기념주간 동안 게시), 5·18민주화운동 계기수업 실시(필수) • 주먹밥 먹기 체험활동 (학교 급식대체 또는 반별 자율활동으로 활용) • 국립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등 5·18사적지 답사 및 현장 체험학습 운영 • 제38주년 5·18기념행사 등 5·18관련 기관(단체) 주최 행사 참여 권장
교직원 5·18 사적지 답사 권장	5·18 민주화운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18 사적지 교직원 답사 활동 적극 권장

이번 토론의 장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 교환 과정이 5·18교육의 발전에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고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5·18 교육과 학술연구

김현영(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路 상임이사)

1. 내적 동력에 기인하지 않는 변화는 늪의 연속성상

- 내적 동력의 상실은 무디고 굳어져가는 과정일 뿐이다.
- 외적 자극에 반응하여 활동하는 것은 관성에 의한 움직임일 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 40년 이후의 518을 그려보는 것은 통합적인 내적 성찰을 통한 모티브와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요식행위를 통한 형식적 고찰은 의미없는 행위의 반복이다.
- 518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과정의 무의미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외적 형식을 취해 나가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 개방성과 다양성을 다시금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반대 급부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은 반대세력을 더욱 자극할 뿐, 자신의 정체 성과 의미를 모두 상실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2. 5·18 교육 방향에 대한 간략한 고찰

(1) 역사는 늘 책(교과서)에만 존재한다(?)

- 교육의 근본문제가 5·18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5·18이 자꾸만 형해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 피교육 주체가 스스로의 학습하는 과정과 방법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

- 현장 학습과 스토리텔링(현장과 작은 것의 아름다움)

(2) 다양성에 기초한 교육 방법의 마련

- 교육 주체의 다변화와 다양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지 않는가?
- 민주, 인권, 평화 등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중요하나, 현실에서 요구하는 관점과 활동으로 부터의 재조명과 이를 통한 실용적 학습이 필요

3. 518 기념재단의 변화가 필요

(1) 00기념 재단은 대부분 노쇠화되었다?

- 기념하는 단체나 조직들은 대부분 무겁다. 무엇인가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표로 설립되었기 때문.
-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부터 유쾌한 삶의 방식이 필요

(2) 기념 재단의 구성이 다변화되어야 한다.

- 사업 진행하는 주체가 외부 용역이나 의뢰로부터 사업 내용을 찾는 방법도 구사되어야 하나, 내부 구성원 자체의 다변화로부터 사업의 참신함을 가져야 하지 않나.
- 전문가나 당사자가 모든 일을 잘 하지는 않는다.
-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4. 5·18학술 연구에 대한 소견

(1) 2000년 중반 이후 오늘까지 5·18 담론의 보편화의 한계

- 역사 문제 뿐 아니라 지역 소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의 보편적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지역 대학 기능 소멸 저하와 실용학문의 특색에 대한 반대 급부

-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것의 문제

(2)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는 대학과 학술 연구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정부의 대응 방식의 문제

-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광주시청에서 제공한 연구비는 오로지 5·18왜곡 관련 연구물에만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왜곡의 문제가 학술적인 쟁점이기보다는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최정기 교수님 8p)
-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성, 지방정부가 518에 대한 발상 자체가 수동적 대응에 국한되어있다는 것을 지적
- 지방정부에 대한 518 재단과 518 유관기관의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해 볼 필요성
- 대부분의 학술연구 분야에서의 근시안적 용역 발주와 그에 대한 문제점
- 지방대학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상황이 보편화된 과정에서 출발

5·18 종사자 대상 교육 필요

박강배(광주문화재단)

■ 필요성

-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에 1차적으로 맞서야 하는 것은 결국 5·18종사자인데, 종사자들은 너무 전문적이고 상세하게 알고 있거나, 업무상 취급하는 부분만 이해하고 있어서 사람마다 불균등하게 인지하거나, 1980년 당시 상황을 주장하는 방식이어서 간단한 슬로건 방식의 왜곡 프레임에 대응하는 속도가 더딤.
- 특히 왜곡에 맞서는 것을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리는 홍보 방식으로 해결 하려는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이에, 5·18종사자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 사실관계 인식을 일관되고 일치되게 하여 왜곡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대상:

- 5·18기념재단, 5·18단체, 시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종사자 등

■ 방법:

- 5·18기념재단이 주관하여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운영
-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강화하여 위탁교육

■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의 5·18과 인권 교육 현황

- 광주형 선진정책 전파 및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광주형 일자리, 5·18과 광주정신, 아시아문화전당 아카데미, 인권역량 키우기 과정을 특화과정으로 지정하여 전국 개방 교육 중.

과목명	5·18과 광주정신
교육목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광주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 공유·확산 5·18과 인권 및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권도시 광주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교과목	5·18민주화운동 역사 이해하기(광주근대사) 5·18을 통해 본 민주·평화·인권(인권도시 광주) 가슴에 담아온 5·18이야기(유공자, 유가족 경험담) 5·18진실 찾기 5·18과 한국 민주주의의(5·18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 현장학습(5·18민주묘지, 영창·법정, 오월길 등)
교육대상	시 공무원, 시 공공기관 직원, 전국 공무원
교육기간	제1기 2019. 3.25. ~ 3.27.(3일) / 제2기 2019. 5.15. ~ 5.17.(3일)
교육인원	총 60명(기별 30명)
교육형태	집합교육 / 비합숙

과목명	인권도시와 인권행정
교육목표	인권도시와 인권행정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인권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사람과 생명 중심의 가치를 우선하는 인권행정 정책 추진 역량 배양
교과목	나와 인권, 그리고 인권도시(일상에서의 인권문제, 인권도시의 의미) 광주 인권정책·제도 이해와 운영(인권현장,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등) 문화다양성과 인권(이주노동자, 다문화, 소수자 등) 인권옴브즈맨 눈으로 보는 광주 인권(인권침해 상담·조사·권고 사례 등) 협업과 협치를 통한 인권정책 활성화 인권 현장 학습
교육대상	시 공무원, 시 공공기관 직원
교육기간	제1기 2019. 4.17. ~ 4.19.(3일) / 제2기 2019. 10.21. ~ 10.23.(3일)
교육인원	총 60명(기별 30명)
교육형태	집합교육 / 비합숙

5·18 연구와 교육

신경구(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연구비 지원의 확대 :

발표자의 보고에 따르면 5·18 관련 연구 편수가 433편으로 해마다 11편, 매달 1편의 논문이 나온 셈이다. 연구비 지원이 없이 수행한 논문의 편수도 344편인 것은 개인의 부채 의식이 작용한 논문이 많음을 증명한다고 본다.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연구비 지원을 늘리는 조치가 중요하다.

국제화 :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아시아포럼 등 국제행사에는 많은 외국인 발표자들이 초청된다. 지난 30주년 국제행사에도 많은 외국인 발표자들이 5·18 관련해서 발표를 했다. 그러나 광주의 연구자들이 5·18을 영어로 연구 논문을 쓰고 또 해외에 나가서 발표하는 일이 많지 않다. 광주의 연구자들의 5·18 해외 발표를 권장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할만 하다. 외국인 연구자들의 5·18 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발표가 가능한 국내 연구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연구 지평의 확대:

현재 외국 대학에서는 인권도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이들이 광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18의 민주·인권 발전에 미친 영향은 물론 아울러 인권도시에 대한 영향, 또 한국의 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 등으로 그 연구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전문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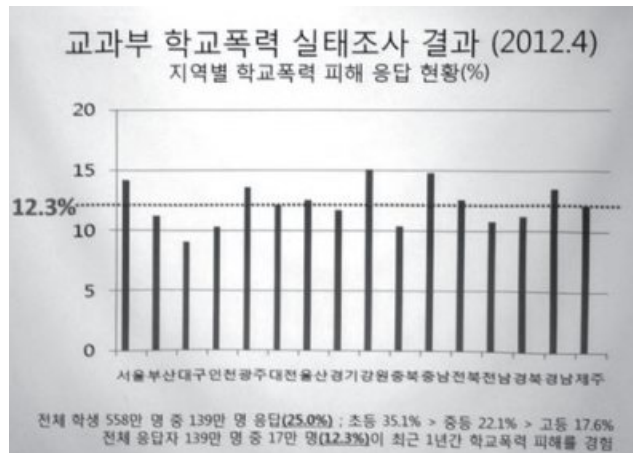
발표자의 대학 연구소의 활성화를 제안에 동의한다. 과거 전남대 5·18연구소 확대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뒤로 5·18 연구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연구소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5·18연구의 전문화, 고급화 및 국제화를 위한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 예산 지원의 확대와 상관 없이 우선 유능한 경영자를 연구소장으로 선발하고 최소 10년 연구소장을 맡도록 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비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 발표자가 제안한 대학원 과정과 우수 연구자 확보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경영자가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과 제도를 안정되게 운영하도록 임기와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소속되었지만,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해서 독자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앞으로 5·18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대학원과정을 개설하고, 우수한 국내외 연구자를 전임연구원 및 교수로 고용할 수 있어야 5·18 연구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보장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2년 단위로 소장을 임명해서는 5·18연구소를 고급화할 수 없다. 연구비 지원, 학문 후속 세대 양성, 국제화 등 다양한 제안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는 규모 있는 연구소와 우수한 경영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5·18 교육:

광주시의 인권교육은 한계는 있으나 세계적인 성공 사례이다. 시청 공무원들은 “인권행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5·18재단의 아시아인권학교와 같은 교육사업으로 5·18정신을 국제화하고 바람직한 사업으로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 택시 등 서비스 업 종사자에 대한 5·18 및 인권교육도 바람직한 사업이다.

다만 학교 인권교육은 경쟁에 밀려나고 있다. 광주 지역 학교 수행평가의 기준은 교과성적이 아니라, 5·18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 정신 구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통계가 꼭 정확한 것은 아닐 것이나, 광주의 학교 교육이 평화 공동체에 성공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¹⁾. 광주시의 학교폭력 피해자 숫자는 1000명당 4.32명으로 전국 평균 4.22보다 높게 나왔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3년)²⁾.



40주년 이후 '5·18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_2019. 9. 6(금)

1) 교과부 자료: <https://if-blog.tistory.com/2199>. 최신 자료는 지역별 현황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2) 교과부 자료: 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17217

학술연구 분야

유경남(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 ‘학술연구’의 범위

발표문은 학술연구의 범위를 ‘학문 연구 및 저술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활동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에 대한 학술“적”접근들은 학술연구의 태동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학계’안에서의 접근과 밖에서의 접근이 동시에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을 것일까?

• 제도의 문제는 무엇일까?

발표문에서 5·18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5·18에 단정할 수 없는, 한국의 인문·사회 분야의 일반적인 현황(문제)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문·사회 영역의 조건들 속에서 5·18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현재의 ‘제도’들이 있다. 현재 5·18기념재단, 전남대5·18연구소 등 여러 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5·18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연구 ‘사업’ 추진 방법, 연구주제 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 성과 축적방법 등
- 각 기관별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과 기대

우리는 이러한 5·18학술연구의 현황과 문제 속에서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왜 그러한 연구자와 연구가 등장하지 않는지, 또는 ‘지속하는’ 연구자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예비 연구자들, 등장했는데 연구자로 인정하지 않은 연구 활동가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발표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연구자에게는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일 것이다.

반대로 ‘현실’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5·18연구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의문이다. 민주주의, 인권 등 5·18또는 이와 연결되는 논의가 과연 현실적 실천들과 연결되는지, 연결되는 시도들 또는 그 담론을 이루어내는지, 다시 말해 오늘날의 사회가 5·18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다시 논의하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의문이다.

5·18학술연구에 대한 의견

1. 2010년 2차례의 보수정권 집권 이후 극우세력들의 5·18에 대한 왜곡과 이념 공세는 1980년대 초반 전두환 5공정권 수준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2017년 촛불혁명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2. 2017년 촛불혁명 이후 극우세력들의 5·18에 대한 왜곡과 이념 공세는 기가 꺾이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특수군의 개입 주장이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었고, 5·18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 등이 전국에서 모여든 수구세력의 광주시내 집회에서 구호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단순히 5·18왜곡이라거나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상황인식입니다. 5·18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역사전쟁’ ‘이념갈등’의 전장터로 변질되었습니다. 40주년을 맞는 5·18은 과거와 전혀 다른 지형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1997년 12.12, 5·18재판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완전 부인하고,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1988년 국회청문회 시기에 진압작전의 폭력성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과 내란을 반공체제의 이념 수호라는 차원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런 전제 아래서 진압작전의 개별사건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5·18 진압은 국가폭력이 아닌 계엄군의 정당한 국가 공권력행사로 원점회귀하고 있습니다.

5·18학술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시대의 시대정신이 해결해야 할 학문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990~2000년대 초반까지 5·18이 역사적으로 승리했던 시기의 안이한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발제자의 분석이 잘 보여주듯 이 시기는 연구비도 풍부했고, 역사적으로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18특별법제정과 전노재판, 국가기념일 제정과 5·18국립묘지 조성, 피해자보상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정권에 이어 김대중, 노무현까지 민주정권이 확고하게 정착하는 듯 했습니다. 이 시기에 누구에게나 자신이 구축한 학문적 전문성의 영역에서 5·18로 인한 그런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승리의 언어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미덕이었고, 재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이 시기가 ‘지적 나태’의 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과론적인 지적이지만 곧이어진 반동의 시기를 전혀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신자유주의 기류에 편승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시기에 극우 선동세력은 5·18에 대한 공격을 자신들의 이념적 출발선으로 정했습니다. 4.3, 4.19, 부마항쟁 등이 아닌 5·18을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5·18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왜곡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일제와 해방, 6.25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우리사회의 구성 원리에 닿아있

는 본질적 가치 문제들입니다. 왜곡이 5·18사건의 어떤 부분에 집중돼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5·18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그들은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가치체계가 지향하는 사회모습을 제시하면서 5·18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세력의 이념적 공격지점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 대부분은 근거가 취약하고 기초적인 사실마저 비틀거나 아예 가짜뉴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왜곡의 폐해가 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적은 것은 왜곡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근거 없이 이루어진, 그야말로 쓰레기 수준이어서 이성적인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곡이 아무리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극우 선동가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현실정치의 지형을 바꿀 만큼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 위세를 더해가고 있는 게 엄연한 정치 사회현상입니다. 실천적인 학문이라면, 5·18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어떤 형태이든 그 출발점에서는 실천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당연히 이런 사회현상을 규명하여 그 뿌리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치열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930년대 독일은 민주주의의 교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법한 ‘바이마르 헌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하여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교훈입니다. 현 단계에서 설령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왜곡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인식이 없다면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5·18진상규명과 왜곡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서 학문적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18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상은 세계사적 실험입니다. 신자유주의, 분단, 핵, 군사적 긴장, 무역 갈등의 거대담론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역량은 우리 사회 내부의 힘

을 통합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5·18은 오늘의 우리사회가 구축한 민주적 역량의 원천이자 자양분입니다. 극우 선동가들이 5·18 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18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5·18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승리했던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곡세력의 공격지점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거나 매우 취약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5·18을 연구한다고 하면 공허하게 들립니다. 5·18 당시 진압군의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찰수사기록’(1995~1996년)이나 재판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연구가 지만원, 김대령 등 극우 선동가들에 의해 먼저 이뤄졌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로니컬한 현상입니다. 이게 5·18연구가 갖는 한계이자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18연구는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선 5·18사건에 대한 철저한 팩트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팩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쌓아올린 이론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팩트 연구가 단순히 기자들의 몫이거나 현장 활동가들의 영역이라고 간주하려는 일부의 시각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5·18연구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천적 교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회의 미래 모습은 주류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5·18은 미래 한국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가를 간직하고 있는 원형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5·18에서 실천적인 교훈을 찾아내서 인류사의 보편적 이론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연구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5·18교육에 대한 의견

1. 공교육(학교) 영역에서 5·18교육의 제도화
 - 기본 학습시간 의무화
 - 대학의 경우 교양 이수 학점에 반영 노력

2. 신화가 아닌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교육
 - 역사적 사실로서 구체성이 결여되면서 '신화'가 되어버린 5·18
 - 의미만 있지 디테일한 사건의 실체가 없는 5·18

3. 사법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 부족
 - 교과서 및 참고자료 등
 - 헌법정신, 국헌문란의 개념, 왜 군사반란이고 내란인가,
 - 내란목적살인죄의 의미 등

4. 5·18왜곡의 쟁점과 왜곡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 누가, 어떤 점을, 왜, 그리고 어떻게 왜곡하는가?
 - 5·18역사는 왜곡과의 투쟁의 역사

5. 분단체제, 안보 우선주의와 국가 폭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
 - 군인, 군대는 정말 나쁜 존재인가?
 - 군사반란 가담 군인과 전교사, 31사 등 일반 군인들의 차이
 - 4·19의 교훈과 경찰의 발포지시 거부
 - 5·18에서 얻는 국가안보의 진정한 교훈

6. 변화하는 국제정세, 5·18정신의 재해석
 - 동북아의 역학관계 변화(남북분단, 핵, 무역갈등)
 - 5·18정신의 확장 및 재해석, 미래지향성

<40주년 이후 5·18 학술연구와 교육> 토론문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학술연구 토론문

5·18민중항쟁을 연구하려면 역사를 깨우쳐야 한다.

최정기 선생님의 발표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5·18학술연구의 외형이 어디까지 와 있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역사학자의 논문으로 석사급의 1편이 있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즉시 riss에 들어가 ‘5·18’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64편의 관련 석박사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박사논문으로는 9편(전남대 4 서강대 3 외대 1 국민대 1)이 검색되었습니다.

계다가,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을 보고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5·18을 소재로 한 콘텐츠 위주의 논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가 ‘대안 4’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 “문제제기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동시대사 연구, 특히 동시대의 국가폭력이나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정 자료나 증언에만 집중해도 그 결과는 좋지 않으며, 구조적인 접근만으로는 현실적인 변화나 특징을 포착하지 못한 공허한 연구가 되기 쉽다.”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저의 토론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4·19학생의거에 머물다가 소멸한 4·19의 운동가들’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시기 4·19의 혁명가들이나 또는 학자들이 역사속에서 4·19혁명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4·19의 전개 상황에서만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중이 주인 되는 반독재 운동이 아닌 그 자체 즉 이승만 정권에 저항했던 현상에만 집중했기에 혁명이 아닌 의거로 표현 되었으며 이후 ‘학생의거’로 축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과거의 4·19혁명 연구자들이 ‘특정자료나 증언에만 집중하여 현실적인 변화와 특징을 포착하지 못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실제 5.16쿠데타 이후 매년 4월 19일이 되면, 기념식을 가져왔습니다. 보훈처에서는 4·19의 노래’(강욱 작사, 김동진 작곡)를 지어 부르며 기념과 추모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두 배가 넘는 긴 세월을 존속했으며, 그 사이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 등 민중의 피 흘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5·18민중항쟁이 4·19학생의거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술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5·18민중항쟁’이라는 ‘현상’과 ‘사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5·18’을 소재로 한 연구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제문에서 5·18 연구에 관해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5·18 연구에 관한 훌륭한 전문가가 많다고 봅니다. 발제문에서 연구분석대상으로 삼은 5·18연구논문’들은 그야말로 5·18 현상’을 소재로 한 논문들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속에서 5·18을 해석한 논문들과 문헌(인터뷰 대담 등등)들과 연구자들은 많다고 봅니다.

이후, 5·18관련 연구과정에서 이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교육관련 토론문

역사교육이 올 바라야 5·18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역사교사로 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4·19가 먼저 일어났는지 5·18일 먼저 인지 헷갈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피교육자의 불철저한 학습행위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교육자를 탓하기 이전에 교육의 내용에서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발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교육 과정이나 영상 등 교육보조재가 나름 충실히 준비되어 있어 보이고, 또한 발제자의 제언도 현장의 경험을 살려 충실히 제안하고 있어 특별히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시기가 마무리되었지만,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민족주체성과 민중의 자주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 까닭에 1960년에 4·19혁명이 발발했으며, 그러나 미완의 4·19혁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5·18민중항쟁이 다시 출현을 했고, 그 이어진 항쟁의 역사가 다시 주권자들의 기억에 묻히면서 1987년의 6월항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면 2008년부터 시작된 촛불항쟁도 거론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촛불항쟁과정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헌법교육의 중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맥락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마치 연상기억법처럼 피교

육자들이 역사의 진행 순서마저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박정희 정권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을 외던 기억이 납니다. 왜곡이
고 강압이고 폭력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적인 교육에 길들여진 피
교육자들이 지금도 그 잘못된 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우한 남은 인
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5·18민중항쟁의 역사와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을 피교육자
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다시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는 피교육
자들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의 교육자들이 절실하게 느
껴 주시길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5·18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

임광호(첨단고등학교, 前 5·18기념재단 기획위원)

학술연구와 교육활동은 선후를 따질 수 없는 관계이다. 지금까지 일반적 사고는 학술연구의 성과를 교육의 실천활동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껏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 병렬적으로 각각 이루어져왔다. 최정기 교수의 발제문에 의하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본격적인 학술연구의 태동이 1988년부터이고 학술연구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1996년이라고 한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또한 비슷한 시점에 시작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학술연구와 실천교육활동은 비슷한 시점에서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니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8기념재단의 교육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념재단의 교육사업의 고민은 1999년 하반기 청소년교육사업을 위한 TF팀이 가동된 것을 시초로 이듬해인 2000년 청소년교육사업을 전담하게 된 교사실무팀이 꾸려지면서 부터이다. 이 무렵부터 현재까지 재단의 청소년 교육사업에 학술연구의 성과가 반영되었거나 연계한 경우는 '5월 교육 원칙'개발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없다. 물론 초등학생용 인정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교육대학교의 연구자들을 집필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학술연구를 주로 살펴 본 최정기교수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주로 살펴 본 노성태 교사의 발제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거리와 생각해 볼 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최정기 교수의 발제문은 지금까지 연구의 경향을 살피고 실제 그 성과들을 연구 논문편수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동향과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연구의 방향과 지원책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노성태 교사의 발제문은 재단의 오월교육에 대한 실정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발제문 중 자료의 수치가 제시하는 의미하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5·18 교육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셈이다.’와 근거 자료 표. 2001-2018년 교육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미 2001년부터 많은 교육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근거가 잘못 제시되는 경우-교과서 서술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례로 든 2010년 비상교육 교과서는 이하 발제가 교과서 서술의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 뒤 논리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가 많았다. 따라서 발제문의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그 외 거론하는 내용들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대안없이 제기하고 있어 이 글이 40년 이후 5·18교육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질문 겸 고민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 80년 이후의 5·18민주화운동은 진실규명이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왜곡 문제도 진실을 돌려 짚 공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술 연구에서 사실 연구가 적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또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 최정기 교수는 발제문에서 ‘5·18 연구가 독자적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주 매력적인 말씀이다. 왜냐면 나 또한 2년 전 아시아포럼 발제를 통해 가칭 ‘5·18학’으로서의 정립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정말 가능할지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역시 최정기 교수는 “연구자들의 연구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과 연구, 국제교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의한다. 더 나아가 연구자와 현장교사,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언론들을 망라한,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제안한다.

- 노성태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4년 재단의 연구용역 보고서 ‘청소년 교육사업의 발전 방안’에서 필자가 제안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재단 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부 연구와 논의 과정이 있어 왔다. 처음 이를 제안한 필자의 입장은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오월교육이 포함될 때 오월의 정체성은 시민교육의 제 영역과 가치체계 속에서 형해화되어 버릴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불어 이미 5·18교육은 그 나름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치체계를 형성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홀로코스트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일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탄탄한 교육적 성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가 아닌 가칭 ‘5·18학’ 또는 ‘5·18 시민교육’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 이제 40년이다. 핵심은 ‘기억’과 ‘계승’의 문제이다.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 기억의 변형, 소실, 망각, 당사자의 부재, 더불어 당사자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억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또한 계승 차원에서 갈수록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늘고 있다. 역사의 자기문제화를 어떻게 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 지금까지 연구 성과와 교육 자료들은 주로 문자(활자)를 매개로 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인지적 수용 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갈수록 교육 소비자들의 요구와 현실은 영상 자료를 요구한다. 영상 자료들은 감성을 기반으로 한다. 감성은 인지적 이해 과정을 약화시켜 사실을 호도, 비방, 왜곡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왜곡 자료들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감성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5·18 이후 역사’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다. 특히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의 의례화, 예를 들어 전야제의 역사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도 없을 뿐 더러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미 우리 안에서 사실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란다.

- 지금까지 재단의 청소년교육사업은 ‘공교육화’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공교육화란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억과 계승의 방법으로 이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엔 교사연수와 교육교재 개발, 그리고 체험학습에 비중을 두고 시작되었고, 이후 교과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수업안개발, 수업 사례 공모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초등과 중등용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처음 목표로 잡은 공교육화의 형식적 틀은 미진하나마 현실적으로는 충족된 셈이다. 최근에는 지역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전국 각 시도교육청 교사들의 직무연수를 독려하고 있어 참가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시기도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화가 가져 오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5·18교육을 시행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자 각 학교에서는 방문형 학습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오월단체들도 여기에 부응하여 강사단을 양성하고 있다. 이른바 때우기식 교육, 책임회피식 교육, ‘교육의 아웃소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재단에서는 기 개발된 인정교과서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 없이 진행 중이란 점이 문제다. 이미 보급된 인정교과서들도 학교 도서관이나 담당 교과 교사의 사물함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이를 활용할 교육과정의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현 정부는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는 정부 시책 내지 교육청의 교육지침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법과 제도화가 만들어 내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5·18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앞으로의 목표는 '5·18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더불어 교육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구성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성격은 무엇인가?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중 핵심내용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교재와 강사는? 그리고 이를 지원할 행정 체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자고 요구한다. 그리고 필요한 팀 구성을 요청한다.

5·18 민중항쟁 40주년 이후 학술연구와 교육방향에 대한 첨언

장세레나(광주여성회 대표)

■ 40주년 이후 학술연구에 대한 고민

- 5·18의 성격이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 민주화운동인가, 민중항쟁인가, 민주항쟁인가 등
- 5·18정신과 가치,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 80년 5월 당시의 요구는 무엇 이었고 얼마나 구현되었나 등
- 80년 5월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필요
- 80년 5월 당시 고문피해와 성피해에 대한 연구 필요
- 80년 5월 2세대의 삶을 통해 바라본 5·18
- 5·18후속세대 전문연구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 다는데 적극 공감

■ 40주년 이후 교육방향에 대한 고민

- 5·18정신과 가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근 현대사의 다양한 사건과 연계해 공감능력과 연대의식을 확장하는 교육 이어야 한다는데 공감
- 5·18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등에 대해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 그 이전에 5·18관련 기본 정리가 더 중요(5·18기록관,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공식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도 차이가 있음-사실확인 및 교차검증 필요)

- 5·18정신과 가치에 대한 구체화 필요
- 5·18정신이 현재는 어떻게 발현되는가(시대정신), 현재 시점에서 진실 규명 및 계승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
- 5·18당시 노동, 여성, 청년 등 계급계층별 활동에 대한 교육도 필요

“5·18 40주년 이후 연구와 교육” 토론문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1. 5·18 연구의 도약을 위하여

- 5·18은 다른 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연구가 체계적으로 많이된 사례에 해당
5·1840주년을 맞아 518학술연구를 보다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은 물론 학술연구 영역에서도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5·18학술연구의 문제와 민주화운동 연구 공통의 문제
5·18연구에 대한 지원, 연구자 부족 등은 비단 5·18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현대사) 일반의 공통된 문제임(사업회도 같은 고민)
민주화운동 연구 관련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을 위해 공통의 노력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민주화운동 자료 발굴 및 아카이빙, DB 구축 등 토대구축 등의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필요성(개별 민주화운동을 넘어 종합적인 접근 필요)
=> 기념계승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학술연구 영역에 우선 배정해야 후속세대 양성 가능(5·18 재단 연구소의 기능 강화)

- 학술연구의 독자성 문제
당사자주의의 문제: 5·18‘학술연구의 독자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학술 영역이 ‘운동’의 영역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특히 미래세대와 소통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영역으로서 학술연구를 인식하는 것과 보편적 가치와 연계·확장하는 것이 중요함

• 학술연구 활성화와 성과 확산 - 5·18의 국제화 및 세계사적 가치를 향하여 직접적인 5·18연구는 아니지만 ‘5·18의 이름으로’민주와 인권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5·18학술 연구에 포함될 것임. 5·18학술연구가 1980년의 광주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5·18의 정신(인권)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할 것인지), 세계 곳곳의 민주화 현장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KOICA 등과 연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과과정과 교재 개발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

-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연구 기관 간의 연대 강화 -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연구단체들의 공동의 펀드 및 국제 학술지 창간

질문 : 학계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은? : 여전히 광주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5·18 교육을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

- 민주 시민 교육은 -교육 전문가 양성, 교재 및 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의 필요성

ex) 전남대 민주 시민 교육과

- 광주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권 평화 도시로서 드러낼 수 있는 지표 개발 /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등의 생활 지수 속에서 민주 인권 평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질문 : 발제자의 5·18학교를 대학의 시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연구 및 교육의 성과를 기초로 한 문화적 매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광주와 진실과 연계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 작품을 제작.

cf)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하라”영화 택시 드라이버 등 : 젊은 세대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극, 연극, 다양한 퍼포먼스. 활용



40주년 이후 5·18 경제 및 기념행사

일 시 2019. 10. 1.(화) 14:00
장 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주 최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표 및 토론

사 회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발 표 1 **40주년 이후 5·18경제**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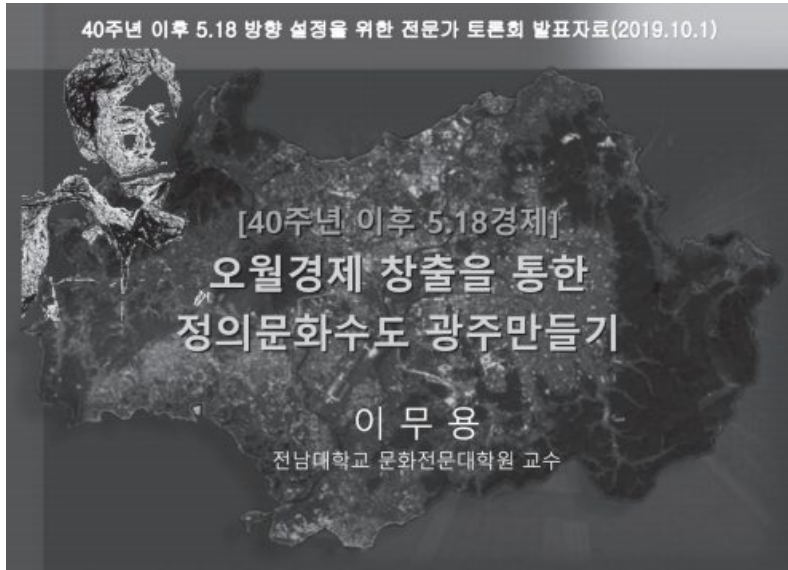
토 론 1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발 표 1 **40주년 이후 5·18기념행사**
박강의(前 5·18전야제 총감독)

전체토론 김성(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시영(5·18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안평환(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황풍년(전라도닷컴 대표)

40주년 이후 5·18경제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



1. 오월경제(May Economy)의 새로운 관점과 컨셉 만들기

The image shows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large, irregular shape made of many small triangles, resembling a map of South Korea. Below this graphic is the section header '1. 오월경제(May Economy)의 새로운 관점과 컨셉 만들기'. There are smaller versions of this geometric pattern at the bottom left and bottom right corners.



오월정신과 오월경제(May Economy)

오월
정신

일상 생활 속에,
제한된 이야기 속에,
도시공간과 장소에
담겨 있는, 담을 수 있는,
담아야 하는 정신

→ **삶의 힘**의 정신
→ **문화의 힘**의 정신
→ **참기**의 정신
→ **결연장**의 정신

[오월경제의 3대축: 가치, 장소, 사람]

- 오월정신의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가치 경제(Value Economy)**
- 오월현장의 장소성을 되살리는 **장소 경제(Place Economy)**
- 오월인력을 혁신동력으로 바꾸는 **사람 경제(Human Economy)**

ME1. 오월가치경제(May Value Economy)

〈정의와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오월가치경제〉

- 민주, 인권, 평화, 자유, 포용의 정의가치를 실현하는 정의경제
- 치유, 재생, 환경, 윤리, 소통의 생명가치를 실현하는 생명경제
- 정의와 생명의 빛의 정신을 실현하는 Justice Lightnomics 경제

Economics

Culturenomics

Lightnomics



반고흐-별이 빛 나는 밤에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내게 하려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 말은 울으려 하지 않았죠.
지금도 울으려 하지 않네요.
아마.. 앞으로도 울으려 하지 않을지 몰라요

Don McLean - Starry starry night 중에서

저스티스 라이트노믹스(Justice Lightnomics) 경제

〈정의와 생명의 빛의 정신 : Justice Lightnomics〉

삶에 대한 '5유 5정'의 정신으로, 고통과 희생은 감내하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생명의 도시문화를 꽃피우는
오월경제생태계 창출의 원리, Justice Lightnomics

〈'5유' 정의·생명 정신〉

- 자유: 자유로운 영혼이 숨쉬는 광주
- 공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광주
- 여유: 열린 항우와 영감이 있는 광주
- 치유: 상처를 보듬고 생명을 살리는 광주
- 사유: 행복한 삶을 성찰하는 광주

〈'5정' 정의·생명 정신〉

- 공정: 굶이 이루어지는 광주
- 우정: 함께 만드는 광주
- 열정: 신명나게 실천하는 광주
- 애정: 생명을 사랑하는 광주
- 긍정: 누구나 자기 뜻을 이는 광주

정의와 생명의 빛의 경제 프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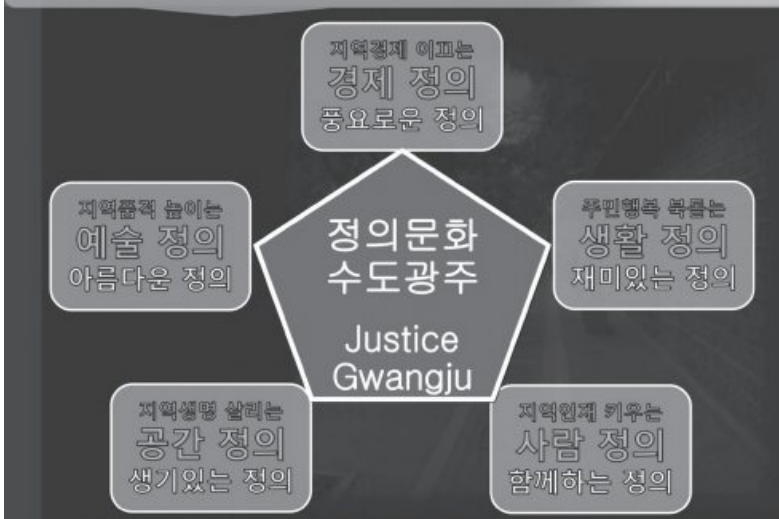
국가 비전 키워드로서 '정의'



8대 메가 트렌드에 걸맞는 일자리 만들기



오월경제의 도시비전: 정의문화수도 광주



오월경제를 이끄는 정의문화수도 정책 방향

방향 1	<p>‘광주정신 문화수도’ ■ 실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완성 아시아문화전당의 오월경제플랫폼</p>
방향 2	<p>오월정신을 생명문화로 확산하는 <인권문화창조도시> 프로젝트 추진 문화인권과 생명권을 포용하는 건강과 치유의 문화도시</p>
방향 3	<p>균형발전의 지역문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문화수도> 프로젝트 추진 자유와 영광을 주는 고품격 도시</p>
방향 4	<p>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문화융합형 오월정신 일자리> 창출 오월재생 문화기술, 오월정신 미디어아트, 오월정신 비엔날레</p>

ME2. 오월장소경제(May Place Economy)

<장소재생과 공간정의■ 실현하는 오월장소경제>

- 오월 현장과 사적지의 장소성을 되살리는 오월공간 재생경제
- 고품격 치유의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오월길 거리경제

역사공간 창조브랜드 : 역사기억 공간의 창조력 재생 → 기억 재생 → 이야기 재생 → 생활 재생 → 사람+관계 공간+도시 치유



<보행도시?>
 아름다운 도시 / 건강도시
 민주도시 / 복지도시
 공존도시 / 나눔도시

걷고 싶은 치유의 문화도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 일어나 걸어야 한다.
새로운 도시를 꿈꾸며...
삶이 힘겨울 수록 걸어야 한다 (정수복)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은
걸을 수 있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길이다.

걷고 싶은 치유의 문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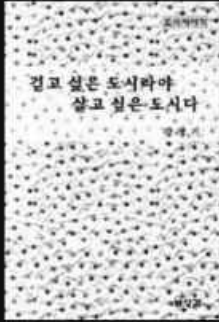


걸으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걸으면서 세상 일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을 다독거린다.
마음 속을 닦아내고 정신을 정화시키기 위해
걸어야 한다 (정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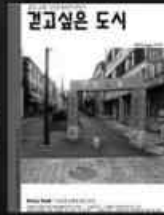
걸기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근심의 무게로
삶을 방해하는 생각의 가지들을 잘라낸다.
장소들은 때때로
치유나 자아회복의 선물을 품고 있다
(다비드 르 브르통)

걷고 싶은 치유의 문화도시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

(강병기)



걷고 싶은 치유의 문화도시



걷기는
인공적이고, 도시적이고,
기계적인 세계에
불들려 있는
자아를 해방시키는 수단

Guldkönig Eine Kulturgeschichte des Spazierganges

걷고싶은도시(Walkable City), 워커노믹스(Walkonomics)

WALKABLE CITY
HOW DOWNTOWN CAN SAVE AMERICA, ONE STEP AT A TIME
BY JEFF SPECK
CHAIRMAN OF THE BOARD, PERKINS+WILL

Walk Score®

TOP 10 MOST WALKABLE CITIES

1	New York	Score: 87.5
2	San Francisco	Score: 81.5
3	London	Score: 79.5
4	Philadelphia	Score: 79.0
5	Portland	Score: 78.5
6	Chicago	Score: 78.0
7	Washington, D.C.	Score: 77.5
8	Seattle	Score: 76.5
9	Philadelphia	Score: 76.0
10	Austin	Score: 75.0

스페인인 폰테베드라시, 걸어서만 다니는 '차 없는 도시' 15년, 실험 성공

•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도시들: 워싱턴, 콜로라도, 뉴올리언스, 샌디에고, 샌타바버라

<walkability를 위한 6개분야>
 (1)교통편의성(road,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 10점제
 (2)편안함(quiet, 자동차로 부터 안전한 거리) - 10점제
 (3)편안함(comfortable) - 도시가 얼마나 걷기 편한지 - 10점제
 (4)흥미(Interesting) -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지 - 10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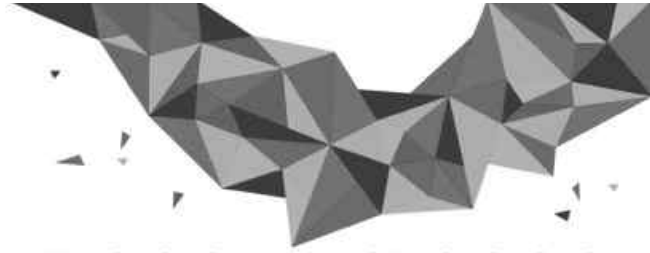
Walk Score®
 Walk Score: 84
 Transit Score: 47
 Bike Score: 88

ME3. 오월사람경제(May Human Economy)

〈오월 문화전문인력을 키우는 오월사람경제〉

- 오월콘텐츠와 브랜드 개발 인력을 키우는 오월 콘텐츠경제
- 오월스토리텔러와 전문가이드를 키우는 오월 스토리경제





2. 오월경제의 24대 핵심일자리 (May Economy 24 Jobs)



2-1. 오월가치경제

정의문화수도 브랜드 프로젝트 개발



J1

518 사적지 통합브랜드 추진

518사적지(광주 30곳, 전남 70곳)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광주전남 사적지 통합관리 조직 및 운영체계 정립
- 사적지 표지석 통합 디자인 및 브랜딩 전략 수립
- 전국 518사적지 지정 및 통합 기념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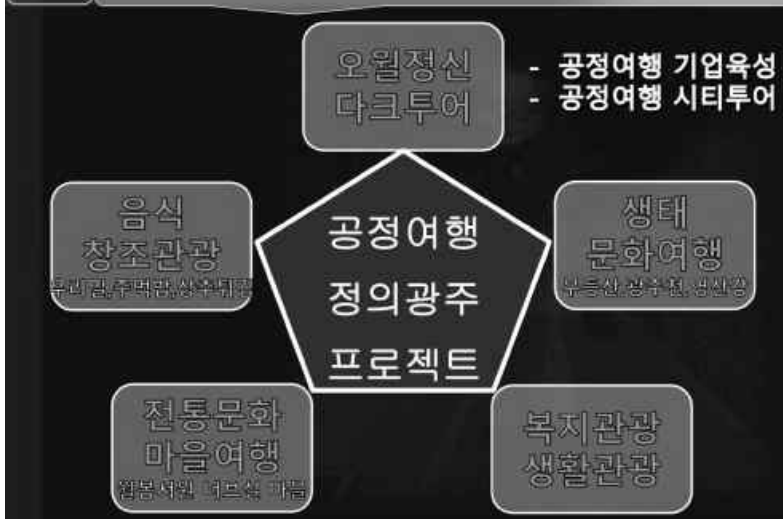
J2

문화치유 메카 광주 프로젝트



J3

공정여행 정의광주 5대 프로젝트



가치 관광3.0시대 공정여행 프로젝트



맛있는 도시, 4대 특화 음식창조관광 프로젝트



뮤지엄 다이닝(Museum Dining) 브랜드 만들기

<고객들을 사로잡는 음식브랜드 만들기>
Glocal Slow Food, 오월주먹밥카페, 아시아맥주홀 등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레스토랑 <네루아>
주방의 미니멀리스트
셰프 <호세안 알리하>

바스크 로컬푸드
(반경 15km 이내 식재료,
5000㎡ 텃밭 작영)
<무이나> 요리철학
(영혼, 에센스, 핵심)
창조적 미니멀리즘 음식
(3가지 이내 식재료)

아시아채식문화 메카 광주 프로젝트

채식문화거리 만들기

Veganism 프로젝트 추진
(생명+건강+윤리+환경+인권)

비거니즘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악업을 고발하는 진보적 윤리의식.
비거니즘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지적 혁명이다.(마르탱 파주)



J4

오월축제이벤트 브랜드 개발

1 오월축제 개최

-오월정신 관련 음악제, 영화제, 사진전, 미술제, 연극제, 인권고사육수 개최
-오월정신 통합 도시축제브랜드 개발(오월축제, Justice Festival 등)

-경의 관련 생활스토리 발굴, 소통의 시민참여형 오월스토리 페스티벌
-오월인물(시민군, 무명열사, 불꽃열사 등)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

2 518 40주년, 50주년 기념 세계적인 기념행사 개최

-2020년 518, 40주년 국제기념행사 개최
-2030년 518, 50주년 기념행사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J5

오월인물 브랜딩 프로젝트

윤상원 기념 사업 마스터플랜(5대 부문, 18개 프로젝트, 36개 사업)

이념	윤상원 가치 재발견을 통한 오월광주정신의 미래지향적 계승과 세계적 도시브랜드 만들기				
비전	더불어 사는 큰 세상, 진실과 정의의 진정함 삶, 시대의 들불, 오월의 불꽃, 미래의 청년 윤상원!				
핵심가치 (5대 가치)	인(仁, 仁愛之心)	의(義, 義勇之心)	애(愛, 愛護之心)	지(智, 是非之心)	신(信, 光明之心)
	인간다운 삶, 따스한 청년 (인애, 열정, 동경)	정의로운 삶, 용감한 청년 (용기, 희생, 실천)	배려하는 삶, 겸손한 청년 (대동, 나눔, 친화)	가치있는 삶, 진실한 청년 (예리, 단아, 지혜)	성찰하는 삶, 존엄한 청년 (신념, 전념, 생명)
목표 (5대 목표)	정체성(Identity)	윤상원의 미래지향적 핵심가치와 정체성 정립			
	공간(Space)	윤상원 가치 공유-확산-계승을 위한 기념공간 조성			
	콘텐츠(Contents)	윤상원 가치 체험-향유-소통의 콘텐츠와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Network)	윤상원 가치 연계 지역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			
	조직(Organization)	윤상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과 정책 개발			
전략 (5대 전략)	Y-PI (사람 정체성)	윤상원 가치-정체성 확립과 확산 전략			
	Y-SI (공간 정체성)	기념공간 조성 및 공간디자인 전략			
	Y-BI (브랜드 정체성)	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 전략			
	Y-RI (지역 정체성)	지역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전략			
	Y-OI (조직 정체성)	지속가능한 체계 구성 및 조직 전략			

2-2. 오월장소경제(1) 518 사적지, 공간재생 브랜드 만들기

오월정신 문화공간재생 8대 프로젝트

1 전남도청 원형복원

2 전일빌딩 공간재생

3 광주교도소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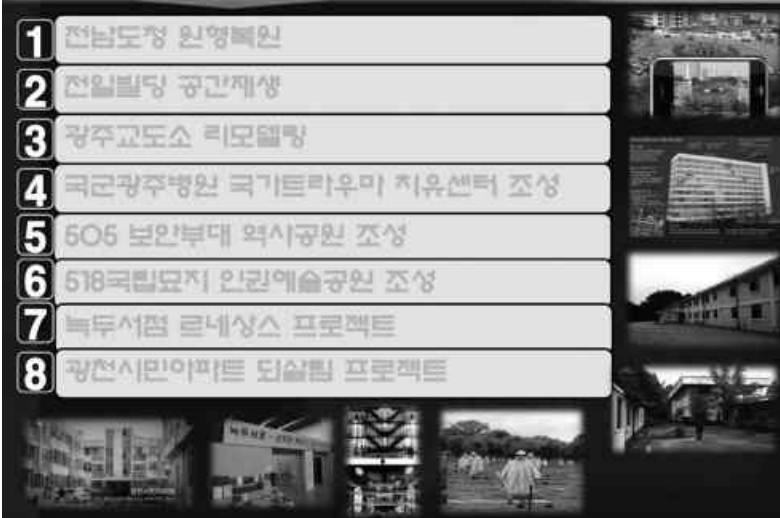
4 국군광주병원 국기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5 506 보안부대 역사공원 조성

6 518국립묘지 인권예술공원 조성

7 북두서점 르네상스 프로젝트

8 광천시민아파트 되살림 프로젝트



J6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프로젝트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및 장소브랜딩 추진

- 자료조사, 스토리텔링,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공간디자인, 브랜드 구축



J7

전일빌딩 공간재생 프로젝트

전일빌딩 원형복원 및 장소브랜딩 추진

- 자료조사, 스토리텔링, 중탄자국 보존, 문화복합 관광자원 활용

국토수급세 결과로 본 5·18 흉기 출격 개연도

발사 상황
홍제동(Seungjeong) 광덕(Keok) 근방에서 교포로 귀환한 유엔군(UN)의 사수(Shoo)로 수감된 전일빌딩(Jeongeul)을 폭격으로 파괴하여 본 건물로 복원

별기 사격 관망 구역
- 전일빌딩 21층에서 5·18 5·18을 지켜본 유엔군(UN)의 사수(Shoo)로 수감된 전일빌딩(Jeongeul)을 폭격으로 파괴하여 본 건물로 복원

전일빌딩의 현존
- 건물 본체 21층(21층) 복원
- 구조물 보존
- 건물 내부 21층 복원
- 건물 내부 21층 복원

전일빌딩
- 건물 본체 21층(21층) 복원
- 구조물 보존
- 건물 내부 21층 복원

전일빌딩
- 건물 본체 21층(21층) 복원
- 구조물 보존
- 건물 내부 21층 복원



J8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옛 광주교도소 터모딜링 및 장소브랜딩 추진(국비 500억)

- 민주인권 기념파크, 인권복합문화센터, 인권호텔 등 브랜드 구축

-광주교도소 건물 일부 인권을 조성

[보스톤 리버티호텔, 암스테르담 로이드호텔]

-사람 테마 교도소 공간디자인

-인권문화센터: 인권유지협영화 상시 공연 및 상영, 인권음악제 개최



J9 국군광주병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옛 국군광주병원을 국기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조성(국비 70억)

- 문화예술치유 메카 도시 광주 프로젝트 연계 추진



J10 505보안부대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옛 505 보안부대를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국비 56억)

- 역사배움 공간 조성, 청소년문화관과 연계한 청년복합문화공간화



미군 전성촌 한국전 참전유사 기념공원



주민들의 발발땀밭으로 전락한 부대 모습



청소년문화관(옛 안기부 건물)

펼쳐가던 구 505 보안대

J11 518국립묘지 인권예술공원 조성

518국립묘지를 인권예술공원으로 조성

- 인권아트묘지(Human Right Art Cemetery) 조성

묘지시설 아트디자인, 묘역 인권예술제 개최(남평민국립묘지, 비엔나중앙묘지 사례)



J12

녹두서점 르네상스 프로젝트

민주 정의 문화유산 인물 아카이빙 플랫폼 역할

- 오월정신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도심 플랫폼으로서 녹두서점
- 이름없이 사라지고 잊혀진 시민군과 무명열사들, 민주화운동 열사 등

민주와 정의를 위해 산화한 문화유산 인물들을 기념하는 아카이빙 플랫폼 기능



오월정신문화 플랫폼 공간 조성

- 다양한 오월문화콘텐츠 개발과 향유
- 문화일자리 창출에 기여

J13

광천시민아파트 오월문화창작소 조성

오월정신 도시재생 뉴딜: 광천시민아파트 문화적 재생



<도시생활사와 광주정신이 깃든 광천동 시민아파트>
 1970년 건립 광주 최초 아파트(3개동 184세대 거주)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 첫 만남의 장소
 들불야화 7열사의 활동공간(투사회보 제작 등)



오월문화콘텐츠창작소로 재생

- 스토리 자원조사와 아카이빙, 장소특정형 공유이벤트 개최
- 들불청년문화창작소, 오월창조콘텐츠 아티스트 레지던시

2-2. 오월장소경제 (2) 오월정신의 현장, 견고 싶은 길 브랜드 만들기

J14

금남로 세계인권거리 만들기

- 금남로 일대를 세계적인 인권의 거리로 조성
- 5.18인권상 수상자 조각 등 다양한 예술작품 조성
- 누구나 거닐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
- 광주3대 민주화운동(학생독립운동, 418, 518) 콘텐츠 활용
- 전당 일대 518사적지 10곳 주변 인권벽화 조성 (구도형별관 벽화활용)

어렵하고 무거운 벽면 그대로 살려낸 예술작품
(포동두리 벽화마을가 VVO)



영국뱅크사벽화



세계인권거리 대중교통 디자인 프로젝트

- 인권버스(518번, 418번, 113번), 인권택시, 인권지아협, 인권열차 운영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아협역 인권아트 디자인
- 인권자전거 개발



J15

오월길(5.18Road) 브랜드 개발

관주년의
오월길

중흥로

- | | | |
|---|-------------------------|-------------|
| 1 | 오월길코스·공간디자인 전략 | 기넨비,코스디자인 |
| 2 | 오월길문화콘텐츠개발 및 스토리텔링 전략 | 오월문화콘텐츠개발 |
| 3 | 오월길 가이드맵북 업그레이드 전략 | 오월길, 광주관광연계 |
| 4 | 오월길 웹사이트 및 U-Road 구축 전략 | 디지털 투어리즘 구현 |
| 5 | 오월길 탐방 프로그램 전략 | 체험형 순례 프로그램 |
| 6 | 오월길 5.18 기념사업회 브랜드 전략 | 민관협력체계 구축 |
| 7 | 오월길 전문인력 양성 전략 | 오월길 아카데미 운영 |
| 8 | 오월길 전국화, 세계화 전략 | 아시아정의로드 |

5대 테마(열망, 발견, 교감, 치유, 여정) 5대 길 18개 코스

인권길

- 학동
- 화상
- 광장
- 울림
- 영혼

민중길

- 시민구
- 동불
- 공약회
- 오월대
- 민주기
- 주익심

의향길

- 의병항쟁
- 학생운동
- 419혁명

예술길

- 비엔날레
- 무등몽길

남도길

- 서부(목포)
- 남부(해남)

오월길의 정체성과 비전

오월길(五月길, 5·18 Road)?

- 27개의 5.18민주화운동사적지를 연결한 **도보순례길**
- 오월정신이 깃든 삶의 현장을 탐방하는 **오월이야기길**
- 재미와 즐거움, 감동과 공감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치유길**
- 긴 호흡으로 광주와 세계를 오월정신으로 이어가는 **아시아정의길**



대표 코스: 518 사적지를 연결한 오월인권길




오월인권길

1월 1일 2021년

광주 518 사적지 26곳

- 사적 1호 권선재교 정문
- 사적 2호 광우역 앞길
- 사적 3호 구 시모어스 관공터(현) 앞길
- 사적 4호 광우교 앞길
- 사적 5호 구 전남도청 / 518민주화운동기념관
- 사적 6호 광주PMAA 옛터
- 사적 7호 광주MBC 옛터
- 사적 8호 녹음사건 옛터
- 사적 9호 전남도청
- 사적 10호 광주기차역
- 사적 11호 구 광주기차역
- 사적 12호 초대교
- 사적 13호 배교(대리)
- 사적 14호 추산마을 인근 일대(사적지)
- 사적 15호 광복간 양문(사적지)
- 사적 16호 농성당 자리(사적지)
- 사적 17호 삼거리 옛터
- 사적 18호 부동교(사적지) 앞길
- 사적 19호 영동시장
- 사적 20호 광주광역시청 - 518민주화운동기념관
- 사적 21호 518 유족회(사적지) - 광우교 앞길
- 사적 22호 광우교(사적지)
- 사적 23호 구 유곡마을
- 사적 24호 남산(사적지)
- 사적 25호 518 보안사대 옛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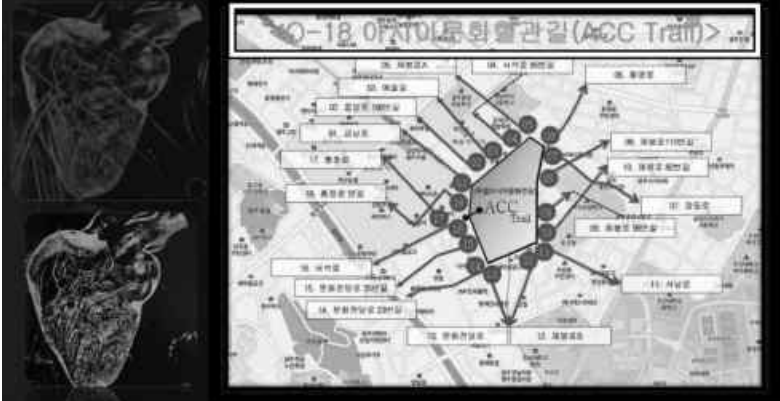




J16

아시아문화혈관길(ACC Trail) 조성

<ACC와 지역을 잇는 문화순환체계 만들기>
 ACC와 도시 일상을 엮는 문화코리더/문화브릿지/문화트레일 조성
 문화소통길/통행길/여행길로서 ACC Trail 조성



J17 아시아정의로드(Asia Justice Road) 조성

광주-대한민국-아시아를 잇는 아시아정의로드 조성

- 광주전남 오월길 + 아시아문화전당 ACC Trail + 제주 43길 + 416 순례길 + 아시아의 오월정신 현장 등을 잇는 통합브랜드로서 아시아정의로드
- 경북과 경주에서 추진 중인 Korea Silkroad 프로젝트와 대비되는 호남발 오월정신문화 실�크로드 브랜드로 자리매김
- 오월정신과 아시아정신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과 오월창조콘텐츠 및 오월정신 한류브랜드로서 아시아정의로드 브랜드화

대한민국 대표 길브랜드 코리아들레길,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



J18 혁신도시연계 아시아문화트레일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빛가람혁신도시를 잇는
아시아문화트레일 조성(문화철관길, 오월길, 푸른길 연계)


공주와
아시아를 잇는
아시아인연립

오월길



문화관광에서
혁신도시를 잇는
문화생태길

푸른길



문화관광에서
도시로 뻗어 나가는

**문화
철관길**



J19 바이크노믹스 도시 만들기



2-3. 오월사람경제

J20

오월일자리 플랫폼, 민주평화교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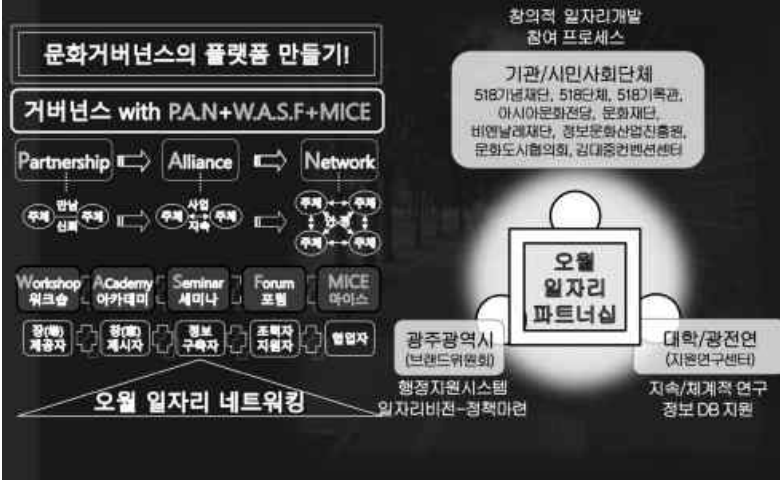
Glocal 장소브랜드 ACC의 핵심으로서 민평 만들기

- 오월정신을 아시아문화로 승화시키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생산기지
- 오월브랜드를 통합관리하는 경영전략지원센터 설립
- 오월문화예술 협력과 콘텐츠 국제유통 및 마케팅 선도 핵심경영조직
- 도시재생과 혁신, 도시상조경제 구현, 지역주체의 창의성 결함



J21

오월 일자리 문화거버너스 구축



J22

정의 명인 브랜드 구축

오월 인권명인 브랜딩

불법7열사, 무명열사 등 오월 인권지기들의 삶의 흔적 스토리텔링

인권에 예술작가 브랜딩

인권을 주요 작품 소재로 다루는 예술가 발굴 및 브랜딩

26년
강을 침묵연출 명동세탁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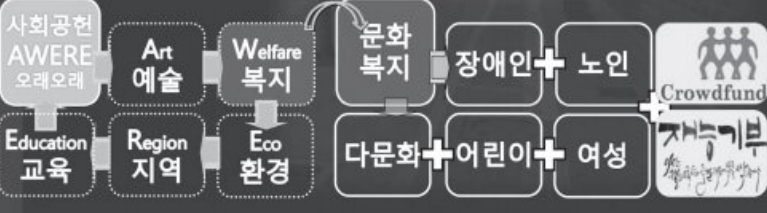
= 작가 = 홍근호

생활속 정의지기(정의스토리) 발굴 및 브랜딩

- 광주인권지표 관련 명인(신체자유권, 시민정치권, 경제생존권, 사회자유권, 소수자자유권, 사이버인권) 발굴
- 일반시민 대상 매년 오늘의 윤상임, 오늘의 김대중 등 정의명인상 수상제
- 소수자 공존제(자활공존제 등) 정의지기 발굴 및 지원



- 글로벌 브랜드=사회적 책임
- 따뜻한 자본주의=배려, 공존



유명인 정의지기 브랜딩: DJ브랜드(DJ관광벨트) 개발

- 한국 최초로 노블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 브랜드 개발
- DJ관광벨트, DJ로드 개발
- 김대중도서관(서술), 노블평화상기념관(책포), 생가와 노블평화공원(신인), 김대중민선선센터와 인권터마역(광주), 김대중상상(무안) 활용연계
- 넬슨만델라하우스, 상해윤통길의사기념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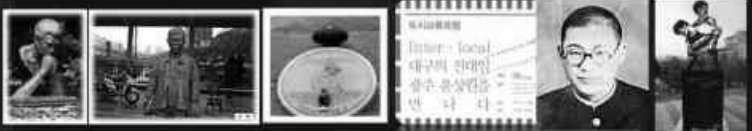


J23 민주동맹 다이아몬드 지역네트워크

<광주(윤상원)-대구(전태일)-제주(43,이덕구)-서울(이한열)>
을 잇는 청년문화 민주동맹 네트워크 사업 추진



광주-대구 달빛 민주동맹, 광주-제주 The Road 43518
광주-대구-서울 윤상원 도시교류 토크콘서트 등
민주동맹 다이아몬드 지역네트워크 브랜드 개발



J24 오월 문화예술콘텐츠 만들기

1 오월문화예술작품 아카이빙 및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오월미술, 문학,영화,음악, 연극,무용,발레 등 오월예술자료 아카이빙
-오월문화예술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 상설전시공간연장 조성

2 오월정신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문화브랜드 개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사회공헌형 문화콘텐츠 개발
-인권미디어아트거리 조성, 인권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최

3 오월정신형 광주비엔날레 브랜드 개발

-산업단지 혁신 2.0시대, 도시재생 뉴딜영 광주산단 비엔날레 개최





3. 향후 논의 과제들

- 오월 관련 기관 일자리 현황 파악
- 오월 프로젝트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오월경제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 오월경제추진단 조직 등

마치며

오월로 밥먹고 사는 도시,
걸고 싶은 건강과 치유의 도시,
자유로운 영혼의 도시,
정의문화수도 광주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40주년 이후 5·18 기념행사를 위한 돌아보기

박강의(전 5·18전야제 총감독)

1. 5·18기념행사의 변화과정

**** 아래의 내용은 5·18기념행사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예술이론및기획 전문석사학위논문’(김지혜,2014년) 「5·18기념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전야제를 중심으로-」 중에서 <5·18기념행사의 시기별 변화과정>을 발췌한 것입니다.

매년 5월 한 달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5·18기념행사(이하 ‘5월행사’¹⁾)는 1981년부터 시민사회 구성원에 의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 기념 의례이다. 기억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5월 행사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발전의 형태는 5월행사의 변화에 중요한 매개체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²⁾를 바탕으로, 5월 행사의 변화과정을 정치·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1) 5·18기념행사는 5·18기념재단이 1년 연중 진행하는 사업과, 5월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기념행사위원회가 5월에 한정하여 집행하는 행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전야제와 기념행사는 후자에 포함되므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5·18기념행사’를 ‘기념행사’ 및 ‘5월행사’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2) 정문영(1998), 「광주 ‘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 - 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 »,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윤기봉(2000), 「5·18기념사업의 발전방안과 문제점 »,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먼저 1단계는 ‘추모의례에서 추모투쟁으로’(1981~1986년), 2단계는 ‘투쟁’과 ‘문화’의 만남(1987~1992년), 3단계는 ‘제도권 속 의례로 정착된 문화행사’(1993~2000년), 4단계는 ‘기념 의례의 문화축제화’(2001~2013년)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념행사의 한 축인 전야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1981~1986년 5·18기념행사 : ‘추모의례’에서 ‘추모투쟁’으로

초기의 5·18기념행사는 5·18항쟁의 유가족들이 모여 희생자들의 제례를 지내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유족들은 80년 5월, 희생자들의 삼우제 뒤 망월묘역에 모여 유족회를 결성하였고, 다음해에 1주기 위령제를 갖기로 하였으나 5정권의 강력한 탄압과 압력에 의해 제대로 된 제례조차 치를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족회는 정부의 갖은 정책에 따른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유족회 결성 1주년 만에 “선 보상 후 진상규명”을 주장한 ‘5·18의 거 유족회’와 “선 진상규명과 후 명예회복”을 주장한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로 양분되어 추모투쟁을 진행하였다.

5·18추모행사는 억압적 상황에 따라 1983년에 이르기까지 유족과 대학생들의 소규모 시위나 투쟁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일부 종교단체의 위령제 및 추모 집회를 통해 소극적이거나 5월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⁷⁾

5정권의 철저한 감시 속에 광주지역 내에서만 산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져 온 추모행사는, 1984년 이후 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참배행사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국해직교수협의 성원들의 망월동 참배 및 교황의 광주 방문은 추모행사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국 각 대학의 운동권역에서도 5·18진상규명 및 희생자 추모비 건립 등을 외치며 시위와 농성을 벌이며 5월투쟁에 합세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5월 문제는 5·18유가족과 광주지역민들만의 싸움에서 전국적인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점차 확산되어가기 시작했으며, 5주기 기념행사부터는 5월행사를 주도하는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이하 5

3) 「광주 천여명 금남로서 시위」, 『동아일보』, 1984.5.19. 참조.

추위)'가 조직되어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가능하게 하였다.⁴⁾

1986년의 5·18추모제부터는 점차 행사의 형식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총2부로 구성된 추모행사는 각각 유족회와 5추위 주최로, 1부에서는 '5월 영령들에 대한 분향과 제사'로, 2부에서는 '추모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행사 이후 '광주의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로 이어졌다. 제의적 행사 및 투쟁 시위가 병합되어 나타난 6주년 기념행사는 추모·의례적 성격과 정치·투쟁적 양상이 기념행사에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특징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기념행사의 기조에 담아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있는 현재의 5월행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1987~1993년 5·18기념행사 : '투쟁'과 '문화'의 만남

박종철군의 사망사건을 매개로 민주화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1987년의 기념행사는 단순히 5월 영령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아닌 전면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기존에 진행되어온 시위와 투쟁의 양상이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 발전되면서 17일간의 대규모 추모 집회로 확대되어 나타났다.⁵⁾

1989년, 그동안 '광주사태'로 폄하되고 왜곡되어왔던 5·18민중항쟁은 국가로부터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념행사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5·18민주화 운동으로 승인받은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제8주년 5월행사는 '5월 민중항쟁 계승과 진상규명을 위한 범 민주세력 공동투쟁위원회(약칭 5공투위)'의 주최 하에 치러졌으며, 5월 17일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는 최초의 전야제가 열렸다. 당시 전야제에 모인 군중과 거리의 군중이 합세하여 도청 앞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도청 앞 광장은 '민주광장'으로 이름 붙여지면서 전야제 및 추모제 등 다양한 5월행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⁶⁾

1989년에는 '광주정신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5월문화제'가 광주시내 곳곳에서 난장의 형태로 열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념행사의

4) 정문영(1998), 앞의 논문, p.38 참조.

5) 윤기봉(2000), 앞의 논문, p.38 참조

6) 정문영(1998), 앞의 논문, p.44 참조

‘문화 행사화’에 대한 의견에 일부 단체의 반발이 제기되어 문화 행사적 성격을 가진 단체와 추모·투쟁적 성격을 지닌 단체의 행사로 양분화 되어 치러졌다. 추모·투쟁적 행사를 추진한 단체는 5월 관련단체 및 재야, 대학, 시민운동단체 등으로 이들은 ‘5월 항쟁 계승 및 노태우 퇴진 공동투쟁본부(약칭 5투본)’를 별도로 결성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범시민 궤기대회 및 민주기사의 날 등 대중 집회 중심의 행사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념의 차이로 일부 갈등구조가 형성되기도 하였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행사의 접목이라는 목표로 구성된 5월 문화제는 이후 5월행사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⁷⁾

1991년부터 1992년의 기념행사는 ‘시위 일변도의 행사를 지양하고 모든 시민들이 5·18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거리극, 백일장 등 문화 중심의 행사로 치루자’는 기본 방침 하에 5월 18일을 전후로 하여 6일간의 ‘5·18주간’을 지정하였다.⁸⁾ 광주라는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취지하에 각각의 문화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금남로 및 망월동 일대에서 문화행사와 나눔 행사를 가졌다.⁹⁾ 하지만 잇따른 분신사극 및 각종 부상과 구타사건이 자행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시위 투쟁적 양상으로 과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등 당시의 5월행사는 문화행사와 시위투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¹⁰⁾

3) 1993-2000년 5·18기념행사 : 제도권 속 의례로 정착된 문화행사

1990년대 초까지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 속에서 치러졌던 5월행사는 각종 기부 및 모금, 후원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5월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부터 5·18이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얻으면서 기념행사로서의 관의 참여와 지원이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민과 관이 단합해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평화

7) 윤기봉(2000), 앞의 논문, p.44 참조

8) 위의 논문, p.56 참조

9) 「5월항쟁 11돌행사 다양」, 『한겨레』, 1991.5.16.

10) 「다시 긴장 감도는 光州」, 『경향신문』, 1991.5.25. 참조.

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러졌지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5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끝나지 않는 외침’이라는 주제로 총22일간 진행된 제13회 5·18기념행사는 ‘5·18광주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을 ‘5·18민중항쟁’으로 변경하여 5·18을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전 국민의 범위로 확장하여 진정한 5월 문제의 해결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5월행사의 프로그램 구성을 거리굿, 시민의 노래, 걸개 그림전, 광주시민 5월 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편성하여 시민 단합을 이룩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시위로 점철된 5월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5월 단체 및 재야단체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문화행사의 활용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광주 문제 해결의 일환인 기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정치 상황의 변화 역시 5월행사의 문화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힘입어 5월 행사를 준비하는 행사위원회는 5월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목표로 하여 이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14주기 기념행사에서는 5월 정신의 전국화·국제화의 취지에 따라 폭넓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주안을 두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편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사 연행 장소는 도청 앞 광장 및 망월동 묘지 등 특정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중심으로 자리하였지만, 그 공간의 범위가 처음으로 광주우체국 앞,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활동 공간 속으로 침투해 5월행사로써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1994년 5·18기념재단의 설립 직후인 1995년의 5월행사부터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와 기존에 5월행사에 참여해 왔던 지역내 시민사회운

11) 윤기봉(2000), 앞의 논문, p.62<표 9> 참조.

동단체들과 함께 ‘행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직체를 갖추게 되었으며, 5·18기념재단은 이들 단체의 중심 주체로 자리하면서 다양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5년 말 ‘5·18특별법’ 제정 및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그동안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의 주요 쟁점이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¹²⁾ 이러한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종 문화행사 중심의 순화된 의례 행사의 형태로 연행된 제16주년 5·18기념행사는 전국적·세계적 이목을 끌었으며, 5월행사의 현장을 전국의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로 생중계 하여 5·18의 역사적 사건과 의미를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5·18기념행사는 ‘국가적 수준의 의례’로 승격되었고, 이와 동시에 기념행사가 내포하고 있던 운동성은 퇴장하게 되었다. 정치적 투쟁성을 상실한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제 시행의 흐름에 맞추어 문화행사 위주의 ‘문화 축제화’ 담론에 의해 전개되었다. 제18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5·18이 단순히 광주항쟁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나아가 그 때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갈망을 미래지향적으로 남기기 위한 전국적 축제가 돼야 한다.”¹³⁾고 말하며 5월행사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사회는 5월 광주의 진실을 외부의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혁명’과 ‘사회주의’ 대신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는데, ‘인권’과 ‘평화’라는 텍스트가 광주지역 이외의 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5월의 가치와 지향성을 안고 연행된 제19주년 기념행사에 서는, 5월항쟁 당시 가해자였던 현역 공수부대원 등이 5·18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등,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국민화합의 장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또한 5·18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 차원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 5·18기념행사 홈페이지 개설, 5·18민중항쟁 로고와 캐릭터, ‘엠블럼 제작 등 ‘5·18정신의 국민적 공감

12) 김기곤(2009), 「5월행사의 의미변화와 ‘5·18의 문화화」, 『지역사회학』 제11권 1호, 한국지역사회학회.

13) 「광주항쟁 18주년 빛고을에 바치는 록정신 ‘자유·평화」, 『한겨레』, 1994.4.24.

대 확산'을 위한 체계화 전략을 펼쳐나갔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된 제20주년 기념행사는 처음으로 국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되었으며, '대형 이벤트'화 된 문화행사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한국 민주화 과정을 함축'한 '중간 결산의 장'으로 기능하고자 처음으로 전야제 총감독 선입, 국제음악제 및 락 페스티벌 개최, 5·18다큐멘터리 제작 등 20주년에 걸맞은 전문성과 규모를 갖추고자 하였으며, 기념행사의 문화산업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추진 단체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의 일부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양분화 되어 진행되는 등 내부적 갈등이 빚어지자 5월 행사의 문화화에 대한 입장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난다.¹⁴⁾

4) 2001~20013년 5·18기념행사 : 기념의례의 문화축제화

제21주년 기념행사는 추진 주체에 변화가 있었다. 1995년 5·18기념재단 출범 이후, 재단을 중심으로 연행되던 기념행사는 재단중심의 관제화된 행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갈등구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21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재단과의 합의를 통해, 지역 내 재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5월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결집한 행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행사의 집중성을 강화하기 위해 80년 5월항쟁 당시 주요한 투쟁의 흐름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 및 편성하여 전체적인 행사 구조의 틀을 마련하였다.¹⁵⁾

제22주년 기념행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반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 부시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규정하고, 북한을 '악의 축'국가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전 국민적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제22주년 기념행사는 '미국의 전쟁위협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이룩'을 위해, '반전·평화, 자주와 통일로!'라는 주

14) 20주기 기념행사는 5·18기념재단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20주기 행사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과 민주노동, 전농, 민주노동당, 남총련 등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민족민주행사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양분되었다. (은우근(2002), 『5·18기념사업에 대한 하나의 반성』, 『역사비평』 63호, 역사문제연구소,p.110.

15) 21주년 기념행사는 17일 전야제, 18일 계승대회, 20일 국민대회, 26일 부활제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80년 당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 행사 편성은 서사적 구조를 이루는 현재 기념행사의 전형이 되었다.

제가 선정되었다.

기본행사, 문화행사, 계승행사, 학술행사, 시민참여행사 등 총 52개의 행사로 구성된 기념행사는 기존의 공모방식을 통해 행사를 선정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행사위원회에서 직접 행사를 기획 및 추진하였으며 최초로 행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23주년 기념행사는 ‘5월정신의 현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조를 설정하여, 현 시기 민족의 문제, 민중생존의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삼았다. 이러한 방향 아래,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제시한 행사위원회는 전년도 행사기획단에서 행사를 기획, 운영했던 방법과 달리 심의 후 기획·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행사 선정에 있어서는, 행사의 방만함을 배제하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복행사 및 의미를 상실한 행사를 축소 및 통·폐합한다는 등의 행사편성 원칙을 세워 선정하였다. 또한 행사의 향후 발전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행사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기념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¹⁶⁾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안으로 각 구별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5월행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였다.

제24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행사위원회 상설기획단 운영에 대한 실천적 활동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자체 세미나 및 회의를 진행하며 행사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타 지역의 기념행사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는 등 5월행사의 전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전년도에 진행되었던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5월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제25주년 기념행사는 ‘5년간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이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 대결과 갈등 양상이 평화를 향한 강력한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진실, 평화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시민참여형 행사와 함께 5·18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위한 행사를

16) 5·18민중항쟁 제23주년 기념행사위원회(2003), 『5·18민중항쟁 제 23주년 기념행사 결과 보고 자료집』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특히 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이 행사를 직접 기획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를 실현시켰으며, 자원봉사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다양한 범위의 시민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연행된 제26주년 기념행사는 80년 오월을 다시 한 번 재현하고 시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내용을 양식화,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후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고 5월의 정신과 역사를 전승해 ‘미래를 위한 삶의 에너지’로 재구성하여, 당시의 감동을 되살려 전투적 신명을 나누어 갖는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제27주년 기념행사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5·18행사를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슬로건을 공모 받아 행사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은 ‘참여해요 5·18함께해요 6·10’으로 제20주년을 맞은 6월항쟁의 시기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선출되었다. 따라서 27주년 기념행사는 5월항쟁과 6월항쟁에 이르는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며, 전년과 같이 시민참여 및 전국화·세계화에 주안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였다.¹⁷⁾

제28주년 기념행사는 현실사회의 모순과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5월 정신을 현재적 실천으로 계승하고자하는 방향과 목표를 내세웠다. 기념행사의 기조 및 방향성을 반영한 전야제 행사는 80년의 상황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함께 공감하는 장을 형성한다는 목적을 설정했다.

제29주년 기념행사는 ‘민중의 뜻대로! 다시 오월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항과 공감이라는 주제어를 내세웠다. 여기에는 저항을 통해 지켜낸 민주주의와 민주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공감하여 현실 문제를 이어나가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제30주년 기념행사는 5월 민주항쟁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행사의 기조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로 슬로건 공모를 하였다. 총240개의 공모작 중 ‘들리는가! 민중

17) 5·18민중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2007), 『5·18민중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 결과보고 자료집』 참조.

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횃불'이 당선되어 30주년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다. '시민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5·18'이라는 행사 기조에 따라 시민주체의 공모사업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행사의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제31주년 기념행사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무관심까지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5·18기념행사가 다시 한 번 역사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자 '관심'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5월 항쟁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촉발되었으며, '당시 광주 시민은 세상의 불의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회복과 따뜻한 공동체의식을 회복하여 주변의 이웃을 되돌아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¹⁸⁾

제32주년 기념행사는 "민주주의의 위기, 민중 생존권의 위기, 생태환경의 위기, 평화의 위기 등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대를 극복하고자 참여와 연대의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하고자 하였다. 공식적 행사의 슬로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오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로 선정되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릴레이 행사와 주먹밥 나눔을 진행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현실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5월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내실화에 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오는 행사가 아닌 시민들의 품속으로 찾아가는 '시민 밀착형 행사'를 강화하여 이동 거리공연이나, 마을로 찾아가는 '시민 밀착형 행사'를 강화하여 이동 거리공연이나, 마을로 찾아가 시민들이 삶 속에서 5·18을 직접 경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3주년 기념행사는 '오월 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극한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와 더불어 자본의 횡포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소외당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33주년 기념행사는 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북권 등 4대 권역별 기념행사 추진 협의

18) 「5·18민중항쟁 31주년 행사위 출범」, 『뉴스천지』, 2011.4.19. 참조.

체가 적극 결합할 수 있는 통합형 행사위원회로 운영하여 5월행사의 전국화에 대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5·18문예기획단을 상설 운영하여 예산을 확대 배정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문예행사 및 전야제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금남로로 집되었던 5월 행사를 지양하고 동네 및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동네 5·18을 활성화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5월의 참된 의미를 알리는데 주력하였다.¹⁹⁾

이처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행되어 온 기념행사는 5월행사로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실현해 오면서 다양한 문화행사 및 문화매체를 5월행사에 도입하였으며, 연례적으로 행사가 연행되는 과정 속에서 5월행사는 시민들의 민주축제로 인식되어져 왔다.

전체적인 행사의 수는 평균적으로 40~50여개로, 해당 년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규모와 해당년도의 추진주체 및 참여단체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행사의 내용 역시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흘러오며 따라 행사의 양적인 증가는 가져왔지만, 이것이 5월정신의 확산을 통해 가져온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적인 확대인 것이지, 그 내용이나 질에 있어 진정한 5월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덧붙임

■ 2013년 이후 5·18기념행사 슬로건

2014년 / '깨어나라 민주주의여! 마을에서 마을로'

2015년 /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2016년 / '오월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

2017년 /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19) 「5·1833주년 슬로건 '오월 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 『노컷뉴스』, 2013. 4. 11

2018년 /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2019년 /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2. 5·18기념 전야제 전개 양상 (2011년~ 2019년)

1) 전야제의 주요 프로그램

연도	예술감독	주제	내 용
2011 (31주년)	남유진	관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 퍼레이드 - 풍물단의 길놀이 행렬, 91년 11월사 영정 행진, 퍼포먼스 무대행사 (미디어아트와 공연 예술이 결합된 형식으로 5월 정신의 현재적 메시지 전달 1부(기억) / 91년 11월사와 5월 열사의 만남, 화려한 휴가 갈라쇼 2부(관심) / 5월 정신이 세대를 넘어 일상 속에 살아있는 현재적 모습 표현(영상, 합창,극 등) 3부(부활) / 개그맨공연, 밴드공연으로 젊은 층의 공감과 참여 유도
2012 (32주년)	박강의 김규량	오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월문화라운지-‘기억의 숲’, ‘기억의 방’, ‘기억의 선율’, ‘기억의 시간’, ‘기억의 이름’꿈꾸는 오월등 무대공연 - 518인 풍물단의 풍물굿을 시작으로 타고, 퍼포먼스, 씻김, 광주인권도시선언, 희망메시지 전달, 재즈공연, 샌드애니메이션, 오케스트라 협연 등
2013 (33주년)	박강의	오월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월바닥난장 / ‘그들의 자리(퍼포먼스)’길바닥 막걸리 바(퍼포먼스), 아트텐트, 난장공연, 프리마켓, 주먹밥 나눔, 시민사회 단체 홍보부스 무대행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막/오월에서 통일로 (국악관현악단 연주) 씻김/그대, 이제 눈물 거두소서 (쌍용, 강정, 용산 영상, 구음과 더블베이스 연주, 이애주 씻김춤) 오월,평화를 꿈꾸다 / 편지글낭송, 노래공연, 쌍용 용산 우타고에팀의 희망메시지 다시 또다시 / 창작탈춤, 플래쉬몹, 밴드공연

연도	예술감독	주제	내 용
2014 (34주년)	박강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실행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굿 • 무대행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롤로그/흔불모심 2. 청신거리 / 1980년대 당시 라디오 방송,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오보 3. 오신거리 / 오월의 노래, 5월영상, 4월17일 신문기사, 세월호 실종자 가족 호소문낭독,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 4. 송신거리 / 고틀이, 씻김, 영돈말이 5. 촛불행진
2014 (34주년)	5·18민주 대성회 / 박강의, 최명진, 류의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굿/300여명의 풍물패 만장과 영정든 행렬과 함께 행진 • 무대행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정모심/세월호참사 희생자 영정모심 2. 잊지않겠습니다 (5·18그리고 세월호) /80년 당시 상무관과 세월호 교차편집 영상 3. 촛불문화제/촛불문화제 (추모발언 및 결의대회)
2015 (35주년)	최명진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 오월골목길, 인권담벼락, 세월호 아이들의 방 • 거리공연 / 5·18플래시몹, 뮤지컬컴퍼니 씨쏘 등 • 시민사회단체 부스운영 • 민주대행진 및 풍물굿 • 무대행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부 / 80년 오월의 함성(류의남연출) 2부 / 결전의 그날(강숙향연출) 3부 / 쓰러진 오월, 쓰러진 대한민국 (오상록연출) 4부 /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박강의연출) 5부 / 님을 위한 행진곡(신희경연출)

연도	예술감독	주제	내 용
2016 (36주년)	류의남	오월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난장-시민단체 및 시민참여부스운영, 길거리공연 • 시민난장 거리공연-광주시립국극단, 씨씨씨 등 • 시민난장 전시-오월 사진·영상전, 오월벽화, • 오월풍물굿-6백여 풍물패의 풍물굿 • 민주대행진-5천여명의 행진단 • 무대행사 1부 /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기춘희연출) 2부 / 앞서서 나가니 산자어 따르라(원광연연출) 3부 / 그대들과 함께 희망을 외치다(정찬일연출)
2017 (37주년)	김호준	촛불로 잇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난장 - 거리공연, 촛불사진전, 시민체험 및 홍보부스 • 오월풍물굿 • 민주대행진 • 무대행사 1부(임을 위한 행진곡 ‘그날의 기억’) / 노래와 퍼포먼스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재현을 통해 구도청 복원 기원 2부(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는’) / 촛불을 든 시민들의 투쟁 이야기 및 문화공연 3부(다시 타오르는 ‘민중의 함성’) 촛불로 이루어 낸 민주주의를 표현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과 대동난장
2018 (38주년)	정찬일	보아라 오월의진실 불어라 평화의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난장 / 시민사회단체 체험부스, 전시 및 길거리공연 • 오월풍물굿 • 민주대행진 • 무대행사 1부(모두의 오월 / 남유진,임인자) / 금남로 오월영령퍼포먼스 2부(보아라 오월의 진실/강희진,이순학)/ 전일빌딩 퍼포먼스(투사회보, 프랑카드 등) 시민인터뷰, 시민헌법 선언 3부(불어라 평화의 바람/고창길,강근희) 정상회담 영상, 노래, 몸짓을 통한 평화에 대한 갈망에서 대동한마당으로 연결

연도	예술감독	주제	내 용
2019 (39주년)	박강익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우천관계로 1, 2, 3, 5번이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4번 도청앞 특설무대 에서의 공연만 겨우 진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난장/30여곳 참여 • 거리공연난장/한국투자증권앞, 금남지하상가, 민주광장, 5·18기록관 등 4개의 장소로 나누어서 길거리 공연진행(19개팀 참여) • 민주평화대행진/광주일고사거리~5·18민주광장 • 오월풍물굿/순례굿, 오월기맞이굿, 금남로 거리굿, 대동한마당 • 시민군난장/대형태극기 그리기, 프랑카드 만들기, 개인 깃발과 머리띠 만들기, 시민군들 선무활동 • 금남로 역사맞이굿 및 도청앞 무대공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놈들이 총을 쏜다! (금남로1) / 도청앞 발포와 헬기 기총소사 상징 퍼포먼스, 민족민주열사 행렬 등장 2. 계엄령을 해제하라! (금남로2) / 태극기를 앞세우고 유가족어머니, 민족민주열사,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택시, 버스, 선무차량등이 뒤따른다. 3. 주먹밥 마당(금남로3) / 80년당시 시민군들과 아짐들이 나눠준 주먹밥을 시민들이 나눠먹고 세월호 엄마와 위안부 소녀를 맞이한다. 4.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도청앞 특설무대) / 민주시민의 힘으로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왜곡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마당 5. 대동한마당(금남로, 민주광장)

2) 근래의 전야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긍정적 내용

① 오월 풍물굿의 조직적 운영

: ‘오월풍물굿’은 ‘오월풍물단’모임체의 결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서 사전 준비과정이 역동으로 변화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연계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② 민주평화대행진의 발전 :

: 주관단체(진보연합)의 노력에 힘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

며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결합에서 좀 더 내용적인 결합의 추동해 내는 방식과 조직과 운영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③ 전야제의 전체적인 틀거리 안정화

: 전야제는 무대행사 뿐만 아니라 오일풍물굿과 민주평화대행진으로 구성되는 길거리 퍼레이드와 공연, 체험부스, 전시 등으로 짜여지는 난장프로그램, 그리고 무대행사로 이루어지는 구성의 당일 운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 일반시민참여는 거리퍼레이드와 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대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시도하고 있다.

⑤ 지역예술인들의 참여 확대

: 전야제가 문화예술의 폭을 확대해 가면서 다소 제한적이었던 예술인들의 참여가 다양한 장르와 단체 또는 개인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3. 40주년 이후 기념행사를 위한 몇 가지 단상

1) 기념행사 운영 조직의 문제

: 5·18기념행사는 매년 전체적인 행사의 방향과 기초를 바탕으로 구성되지만, 행사위에 참여하는 단체의 성격이나 이념적 지향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행사위에 참여하는 단체는 크게 5월 관련단체, 시민운동단체, 민중운동단체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단체들은 서로 다른 조직적 성격에 따라 당사자적 요구,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발전적 요구, 지역발전적 맥락에서의 요구, 근본적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 등 기념행사에 대한 의지와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미묘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 정착된 조직운영상의 문제는 스스로 고립되고 제한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민들과 확대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사위의 핵심 구조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들이 단체의 상

황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어 성과를 연계하거나 확대하고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논의만 진행 중인 행사위의 상설화 문제와 함께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2) 기념행사의 장기적인 전망 부재

: 행사위가 출범 할 때 당해 연도 기념사업의 기초를 잡고 있지만 5·18 정신계승에 대한 중심 어젠다(agenda)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슈파이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기초로 흐르는데 일조하고 있어 5·18정신이 삶의 문화로 자리 잡고 민주적 제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정신계승의 임무에 배척된다 할 수 있다.

3) 전야제를 비롯한 예술문화 행사의 지속성과 발전을 담보할 대안 필요

: 기념행사의 시민참여는 중심적이고 지속적인 화두이다.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5·18의 기억투쟁에 나서고 확대 재생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는 홍보와 아이디어로 이뤄지지 않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했을 때 그 성과를 온전히 도출할 수 있다.

: 지역예술인의 참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국의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더더구나 짧은 준비기간은 자발적인 참여마저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립문화예술단체 등 국공립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 자원을 포섭하고 정보를 공유해 집약적이고 다양한 예술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야제와 부활제를 비롯한 대형기념행사와 마을단위 행사의 연계를 통한 ‘시민참여형 민주페스티벌’의 새로운 전형 창출 모색.

‘5·18의 경제화’, 가능성과 불가능성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

- ‘5·18경제’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5·18의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 내는 영역’ 정도
- 5·18경제는 5·18정신의 계승 및 기념화 맥락에서 5·18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 특히 5·1840주년을 앞두고, 5·18의 기념화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5·18의 기억 활동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관점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전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5·18경제’는 중요한 논의 지점이 되어야 함
- 단, 5월 문제 해결에서 진상 규명 국면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5·18경제에 대한 담론은 자칫 5월 가치를 경제적 도구로만 보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 그만큼 5·18경제에 대한 범위와 그것의 실현 방법에 대해 조심스럽고, 엄격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임

- 앞으로 5·18기념화는 5·18진상 규명을 중심으로 한 ‘5·18의 기억’, 그리고 5·18의 다양한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 ‘5·18의 활용’ 등 두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물론, 기억의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며 과거를 가져와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활용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음

- 이무용 교수님의 발제는 5·18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강구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실질적이고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를 잘 예시해 주고 있음

- 특히 5·18경제의 3대 축을 가치, 장소, 사람으로 구분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 대상과 계획을 더 명료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줌
-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월가치경제’를 정의경제, 생명경제 등으로 구분해 규정한 것은 5·18의 모든 가치 영역에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음
 - 예를 들어 “민주, 인권, 평화, 자유, 포용의 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의 경제”, “치유, 재생, 환경, 윤리, 소통의 생명가치를 실현하는 생명경제” 등을 구성하는 각각의 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과정으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물론 각각의 가치 실현 과정, 예를 들어 민주 ‘교육’이나 인권 ‘체험’ 등의 참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있겠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5·18경제라고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익숙치는 않은 상황임
- 오히려 5·18과정에서 얻어진 5월 정신(광주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현재화해야 할 사회적·정치적 실천기획으로 간주하고, 5·18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야 할 대상은 ‘5·18의 경제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고 구체화해야 할 것 같음

오월정신(광주정신)의 사회정치적 실천	
2000년대	공동체, 연대, 협력, 시민자치, 문화, 소통, 나눔, 생명 등
문민정부 이후	민주, 인권, 평화, 정의, 대동정신
6월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자주, 민주, 통일
1980~1987	항쟁, 저항, 반독재, 민주, 민중

- 오히려 ‘5·18의 문화화’라는 개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문화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했을 때, 5·18의 문화화는 5·18의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해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 5·18의 문화화는 5·18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

미하고, 그러한 과정이 문화적 실천과 양식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5·18의 관광화, 산업화보다 훨씬 포괄적임

- 이무용 교수님은 5·18의 역사, 문화, 가치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획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5·18의 문화산업화’라고 볼 수 있음

구분	5·18역사 문화 자산	
	묘지	국립5·18민주묘지, 망월묘역
	기념공원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전남대소공원
유형	사적지	옛 전남도청 일대 건물, 전남대 정문, 광주역 광장, 금남로 등
	기념관	5·18기념문화관, 전남대 5·18기념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상징물	표지석, 조형물, 추모·기념비
무형	재현행위	5월행사, 기념식, 추모제, 기념일 제정, 유공자 지정, 역사 교과서 수록, 5월관련 각종 상 제정 및 수여, 가로·공원·광장 등의 명칭부여, 집회 및 사회운동, 교육, 출판, 강연, 학술활동, 전국 및 국제 간 연대활동
	대중매체	영화, 연극, 소설, 시, 사진, 전시, 그림, 판화, 노래 등

- 현실에서 오월의 경제화는 두 가지 경로를 사고해 볼 수 있음
- 하나는 5·18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측면의 성과
- 다른 하나는 5·18과 관련된 역사 문화자산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전략을 통해 얻어낸 성과, 즉 5·18의 문화산업화 전략의 결과물

- 5·18의 문화산업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p>* 5·18의 문화산업화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 민주화운동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현재 광주시 추진) •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옛 명칭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 1980년대 민중의 뜨거운 삶과 시대정신이 담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세계인이 접하기 쉬운 문화콘텐츠로 제작·보급하여 대중화·세계화 추진

- 사업 내용은 관현악곡 제작·공연, 창작뮤지컬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공연, 표준가사 번역·보급, 국제학술행사 등
 - 국비와 시비 각각 9억 원씩
- 2019년 5월에 공연한 ‘5·18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등 5·18을 소재로 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
-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5·18의 관광화
 - 다크투어리즘: 전쟁 등 잔혹한 참상을 낳았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
 - 5·18민주묘지, 망월묘역, 5·18학살지 등 대상 관광
- 주먹밥을 광주의 대표 음식으로 만들려는 기획 등

- 5·18을 직접적인 경제 영역으로 전환시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쉽지만은 않은 상황
- 이는 5·18을 사회적 가치의 영역으로만 바라보자는 것은 아니며, 5·18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좀 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임
- ‘5·18경제’를 5·18자원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기능적인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5·18의 가치(민주, 인권, 정의, 공동체 등)를 반영한 혁신적인 경제 관계 구축으로 확대해 볼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경제민주주의, 노동권 강화, 노사상생, 공동체적 생산, 마을공동체 경제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및 노동관계를 포함
-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노동이사제, 사회적 경제, 자활사업, 기업의 인권경영, 노동조합 등 확대 등

<오월경제와 기념행사> 토론문

이창훈(4·9통일평화재단)

■ 오월경제

경제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이교수님의 발제문에 딱히 토를 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59쪽의 ‘광주 윤상원, 대구 전태일, 제주 이덕구, 서울 이한열’이라고 명시하신 부분이 상당히 힘들게 들려 집니다. 또 ‘청년문화 민주동맹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명문하셨죠. 이것도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대구와 전태일을 연결하며 서울의 전태일 재단의 강한 거부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서울의 이한열은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18의 전국화’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각 도시의 특징을 잡아내는 일에 좀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명칭에서도 ‘청년문화 민주동맹 네트워크’, ‘민주동맹 다이아몬드 지역네트워크’라는 표현도 거슬립니다. 청년문화인지 열사문화인지 열사들이 다 청년시절에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명시하시 것으로 보이지만, 열사정신과 청년정신과는 좀 구별을 해야 하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열사정신은 시대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독재시대에 청년정신이 강하게 발휘된 것이죠. 자본가의 수탈에 대항하여 청년정신이 강하게 발휘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청년문화 민주동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려면 그 시대상에 대한 배경이 등장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야기 하고 있는 ‘오월경제’라는 주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칫 쿠바의 체게바라가 상품화되어 정신은 사라지고 옷만 잘 팔리면 된다는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우

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주에 훌륭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박현재 선생님 이죠. 오월의 상처를 평생 가슴에 두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박현재의 경제학은 ‘민족경제론’입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쌀이 적절히 결합하면 외세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논지의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최근 일본의 작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 가장 아쉽게 떠오르는 분이 바로 박현재 선생님입니다. 독재정권은 광주를 탄압했던 정권들은 외세의존적인 수출주도형의 경제체제를 만들었으며, 그 결과 97년의 IMF사태와 현재의 일본의 도발의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족경제론’에 입각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주적 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표하신 이무용 교수님의 제안과 더불어 ‘박현재 경제학상’을 제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족경제론, 외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경제학 이론을 만든 학자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때론 자립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가들에게도 이 상을 수여한다면 5·18정신을 전국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5·18기념행사

첫번째는 그간의 5·18추모기념행사의 구분을 ‘탄압’과 ‘비탄압’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압을 받던 시기에는 심지어 망월동 묘역에서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추모기념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탄압의 시기에 5·18추모기념행사는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행사의 주요내용이었으며, 이에 따라 행사의 공간도 광주만이 아닌 전국화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말 8,90년대 만해도 각 대학 심지어는 고등학교 그리고 한적한 시골 교회까지 5·18추모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전국민적 민중적 열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탄압’의 주체가 사라지면서 한동안은 예전처럼 전국 각양각지에서 5·18추모기념행사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다시 전국화가 이렇게 토론 주제가 돼야 할 정도로 광주로만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탄압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탄압’과 ‘비탄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계승’입니다.

‘정신계승’을 올바르게 할 때만이 광주만이 아닌 전국화가 가능한 추모기념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토론에서 거론되었기에 여기서서는 줄입니다.

둘째로는 그동안은 추모기념행사를 ‘광주에 사는 사람들만이 행사에 주최가 되다보니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자조적인 평이 있습니다. 물론 감독님의 발제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들은 소문(?)들에 의하면...

하지만, 5·18기념행사가 척박했던 광주 전남지역의 문화역량을 확대시킨 것은 사실이며, 이를 꼭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광주 전남 사람만큼 5·18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몇 번의 5·18추모기념행사에 참여해 봐서 느낀 점인데, 행사를 기획하는 자원은 차고 넘쳐나는데 그 일을 맡아 진행하는 ‘손과 발’... 대개는 자원봉사로 채워지는데 그 인원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망월동

묘역을 찾는 전국의 인파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일을 현재의 인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망월동을 찾기도 묘역만 둘러보고 혹은 지인들의 묘역에 절 한번 하고 가야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국화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광주전남화’시키는 문제도 더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주체를 조금은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평년에는 광주전남의 문화역량을 모아 진행하고, 격년이나 꺾어지는 해의 행사를 전국의 문화역량을 모두 모아 진행해보는 행사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5·18 40주년 이후의 과제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과 비교를 통한 제언

김 성(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공통점과 차이점]

5·18 39년, 학생독립운동 90년을 맞으면서 되돌아보면 유사점이 너무 많다. 특히 필자가 2000년에 5·18기념재단 기획위원장으로써 기획위원들과 함께 5·182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했었고, 지금은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써 올해 9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상세히 비교해 볼 수 있었다.

5·18과 11·3학생독립운동은 정의-공동체 정신-도덕성을 기저로 하고 있는 ‘광주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 정신은 임란의병(若無湖南是無國家) - 조선말 의병(전국의병의 60%) - 3·1운동(학교 주도-시민참여) - 광주학생독립운동(학생 주도 시작, 전국 320개교로 확산) - 4·19(전국 3대 4·19시발) - 5·18(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로 이어져 내려왔다.

[기념식]

기념식의 경우 두 기념식 모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국가 지도자들이 참여하였고, 덩달아 미디어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반면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기념일]

기념일 지정의 경우 5·18이나 학생독립운동이나 발발일을 기준으로 정

했으나 국가기념일 지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망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18은 1980년 당년의 희생 외에도 민주화운동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내고 17년이 지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가기념일 폐지 주장은 아직 없지만 정부의 관심도,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미래의 어떤 정부가 이의 폐지를 추진할지도 모를 일이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변천사를 보면서 그럴 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29년 발발된 해로부터 24년 뒤인 1953년 제정되었다. 1945년 광복된 이후에도 ‘학생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까지 8년이 걸렸다. 그러나 1973년 3월 30일 유신정부가 출발하고 국가기념일을 줄이면서 ‘학생의 날’은 ‘5·18운동’과 유사하다며 제외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본인이 참석하거나(1964년) 국가재건 최고위원, 국회의장, 장관 등을 보내 매년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축사는 한결같이 낙년 학생들의 넋을 기억하고 면학에 매진하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독재나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이나 도덕성 유지 같은 것을 전승하자는 것이 아니라 면학만을 강조하였다. 기념식을 호국단 열병·분열 등 군사훈련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유신(維新)이라는 명목으로 독재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려다 보니 ‘학생’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워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된 것이 분명하다.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자 전국의 독립운동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활 건의를 하였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2/3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당시 김녹영 의원이 기념일 제정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978년 10월 27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광주학생사건은 일제의 식민지 폭정 하에서 실의와 절망에 빠져 들어가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진작시켜 독립의 투지와 결의를 높여주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3·1절과 4·19의거 기념일에 학생의 날 성격을 포함시킬 수 있고,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능률화를 높이기 위한 것이 1973년 3월 30일 국가기념일을 줄이는 취지(53개를 26개로 줄임)였으므로 이제 다시 기념일로 제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제안자인 김녹영 의원에게 통지도 않고 부결시켜 건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 11년동안 광주의 참여학교에서만 조

출한 기념식이 열렸을 뿐 국민의 기억 속에서 11월 3일은 사라져 버렸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크게 문제가 되고 독립기념관 건립 모금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일어나자 다시 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주동이 되어 이 해 9월, 광주지역 참여학교 동창회, 제헌동지회, 한글학회, 광복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독립동지회, 민족통일촉진회, 대한변호사협회, 성균관, 4·19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순국선열유족회,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천도교중앙총부총무원 등과 공동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윤택중 尹宅重)를 결성하고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 부활 청원운동을 벌였다. 1982년 10월 29일 민한당 소속 고재청 의원 외 80인 전원의 발의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 내무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1978년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년 뒤인 1984년 7월에야 국회에서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통과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5·18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12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김영삼이 민주화 추진협의회(약칭 민주협)를 구성하는 등 야당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정부여당도 부담을 느껴 기념일 제정은 허용하되 그 명칭은 ‘학생의 날’로 한다는 것에 여야간에 타협을 본 듯하다. 이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야당은 명칭이야 어찌됐든 ‘학생의 날’ 부활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명칭]

명칭도 오락가락했다. 2006년 이전까지 광주에서는 ‘제 00회 학생의 날 및 제 00(+24) 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이라는 긴 명칭으로 기념식을 가져왔다. 당초 1945년 기념식을 가질 때부터 사회적 공감감이 이루어져 ‘학생의 날’로 명칭을 사용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한 국가에서 학생의 위상, 그리고 정의 도덕성 진취성을 가진 ‘학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들어서는 ‘학생들이 공부

하는 날 ‘미래의 주역인 날’로 성격이 바뀌져 학생들의 현실참여를 극도로 경계하였다. 결국 2006년 그 명칭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해지면서 제자리를 찾게 됐으나 국민들이 많이 망각한 뒤가 되었다. 처음 시위를 전개했던 ‘광주’가 빠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도 있긴 했지만 전국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5·18도 1980년대에 ‘광주민중항쟁’이란 명칭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민화위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공식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현재도 왜곡된 주장이 퍼지고 있는 마당에 미래에 가서는 ‘양비론’ 또는 ‘양시론’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

진상규명도 5·18이 39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듯이 학생독립운동도 90년이 되도록 정리 안된 부분들이 있다. 1974년 처음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광주학생독립운동사를 발간할 때까지 참여학교 숫자는 불분명했다. 그러다가 1995년 (사)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조선총독부 경무국 극비문서를 해제한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 극비문서를 근거로 하여 198개 학교 5만4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정리 되었다. 그러나 2006년 광주시교육청이 참여학교를 비문에 세기 위해 학계의 권위있는 연구자들에게 의뢰한 결과 국내외 320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를 비롯한 많은 기록들은 여전히 194개 학교로 공식화 한 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광주·서울·부산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다녔던 학교가 학생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덮여졌기 때문이다.

[비교표]

구분	학생독립운동	5·18
국가기념일	1953년 제정 1973년 3월 폐지. 1984년 제정. 2006년 명칭 변경	1997년 제정

구분	학생독립운동	5·18
명칭	1953년 학생의 날, 2006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 사용 1997년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1950년대 : 학생이 독립운동에 선두. 1960년~2005년 : 학생은 면학에 전념.	'민주화운동'은 포괄적 개념. 가해자들의 책임회피적 표현.
기념사업	1960년대 : 전국의 학생대표 참석 전국학생연극제 20회 개최 1980년대 이후 광주 중심 지역화. 영화 '이름없는 별들' 하나뿐	1997년 이후도 광주 중심 지역화. 18일~27일 지역 중심 기념행사. 기념행사 참여인구 점차 감소. 5册관련 여러 영화 발표.
진상규명	194개교 참여 -> 320개로 밝혀짐.	아직도 미흡
원인(오해)	나주역 땀기머리 사건이 발생원인.	시민 폭동화가 발생원인

[결론]

학생독립운동에서 보듯이 기념일의 단절과 권력의 작용이 이를 지속적
으로 기념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사)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90주
년을 맞은 시점에서 100년을 내다보며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
다. 참고하기 바란다.

1. 참여학교의 발굴 및 각 학교별로 개성적인 기념사업 추진. (정부와 민간
단체 공동작업)
2.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 수집사업. (전국적인 민간 조직이
추진)
3. 320개 참여학교에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 표지판 게시사업.
4.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지 복원사업.(광주역, 흥학관 일부)
5. 전국적인 '학생독립운동참여학교 협의회' 구성
6. 유공자 등록 돕기 사업 전개.(사회주의로 낙인찍혀 소수만 인정됨)
7. 정부와 차치단체가 '학생독립운동 지원조례' 제정하여 '민간 주도'로 전환
유도.
8. 기념 예술 창작물 제작. (영화, 연극, 뮤지컬 등)

9. 연도별 논문 공모사업.(학술적 자료 축적을 위한)
10. 관련 기념시설 및 기념사업의 민간위탁 확대.
11. 인물 평전사업 활성화.
12. 학생들이 주도하는 기념식, 기념행사로 방향 전환 추진.

[이벤트 관련 제언]

1. 국제마칭페스티벌

민주화를 갈망하던 1980년~1990년대에는 5월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았다. 당시에는 시대의식이 작용해 미안함, 의무감 등으로 광주를 찾았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는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다. 전야제와 추모제는 여전히 그 장소에서 열리는데 참여자는 이제 1만명을 넘지 못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금은 개인 참여의 시대이다. 참여하고 사진 찍고, 유튜브에 올리려는 국민들로 가득 찼다. 그들에게 5·18때 광주에서 구경만 하라는 것은 입맛 떨어지는 일이다.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찾아야 한다.

광주에서 횃불을 올렸던 역사적 사건은 학생독립운동과 5·18민중항쟁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임진왜란과 조선 말에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던 호남의병의 척왜구국(斥倭救國)운동과 3·1운동, 11·3학생독립운동, 4·19, 5·18은 호남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한뿌리 운동이다. 마지막 5·18이 남겨준 '광주정신'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거, 높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일제의 무도한 진압을 뻔히 알면서도 맨 손으로 독립을 외치고 행진에 나섰던 용기나, 계엄군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자 나섰던 1980년 5월 26일의 '죽음의 행진'은 민주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가 영원히 계승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기념일 때마다 갖는 행사들은 비록 계승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나 내용이 빈약하고 참여 희망자들을 흡수하지 못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기념행사도 달라져야 한다. 하여 광주·전남의 역사를 한데 담은

‘국제 행진 축제’를 제안한다. ‘행진’의 사전적 의미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대열의 주제를 각각 ‘분노의 행진’ ‘추도의 행진’ ‘화합의 행진’ ‘미래를 향한 행진’으로 각각 나눈다. 외국의 의미있는 행진 축제도 초청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나라를 격려하는 ‘나눔’의 이벤트도 갖고, 각 개인이 정해진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가면을 쓰거나 복장을 갖추고 행렬에 끼어 들 수 있도록 행진을 준비한다면 무한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익명의 SNS소통, 가족의 불통, 혼밥(개인주의)이 범람하고 심지어는 5·18가 짜뉴스까지 활개를 쳐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기획자가 ‘행진’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잘 짜기만 한다면 국민이 모두 체험의 세계로 빠져들어 공동체 의식의 회복, 배려, 참여, 미래를 향한 비전 설정 등의 부수적인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난날 스스로 감동했던 월드컵 응원, 비폭력 촛불시위에 이어 더 발전된 이벤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은 의미있는 체험과 참여를 갈망하고 있다. 항상 시대의 선봉에 서왔던 광주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2. ‘광주의 시민들’ 群像 조각 설치.

국제마칭페스티벌과 연관된 내용이지만 광주에 ‘군상 조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거리에 유명 인물들의 조각들이 배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14세기 영국 국왕과 프랑스 국왕 사이에 벌어진 백년전쟁에서 프랑스 항구도시 칼레는 영국의 집중공격을 받는다.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후방의 지원을 받지 해 결국 1347년에 항복하게 된다. 영국 국왕은 그동안 저항한 것에 책임질 대표 여섯 명을 보내면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처형하겠다고 포고한다. 시민 여섯 명이 자발적으로 나섰는데 처형 직전 영국 국왕은 이들의 처형을 취소한다. 이 이야기는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회자되고 있고, 프랑스 조각가 로탱이 조형물로 만들어 전시하여 칼레시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우리 광주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 일본의 현대식 소총에 맞서 우리 의병들은 죽기를 마다 않고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맞섰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시 어린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3·1운동도 일경(日警)의 칼에 팔뚝이 잘라지는 것을 감내하고 나섰던 여학생이 있었는가하면 4·19역시 도청 앞 발포를 몸으로 나섰던 젊은 학생들이 있었다.

5·18은 더욱 극적이었다. 5월 26일 진압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습대책위원들과 광주 원로들은 더 이상의 살상을 막아야 한다며 상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죽음의 행진’을 벌였다.

이런 행렬들은 특별한 지도자만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수많은 ‘이름없는 별’들의 희생정신을 남기는 역사가 되었다.

이를 형상화 하자는 것이다.

광주에서 조형물을 논의할 때 흔히 518m 높이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의병, 3·1운동, 학생독립운동, 4·19, 5·18등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 당 몇십 명의 이름없는 별들이 행진하는 동상을 줄줄이 길게 세워 518m 길이로 해보자는 것이다.

동상 사이사이에 방문객이 끼어들어 어깨동무를 하거나 함께 행진하도록 한다면 분명 국제적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조형물을 벤치마킹 한다면 더 우수한 조형물, 조형공간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광주라는 도시는 특정 영웅들이 존재했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름없는 별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상징성을 보다 강하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면 틀림없이 일반적인 조형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경이로운 군상 조형물이 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5·18경제, 기념행사 전문가 집담회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40주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 40주년 이후?
- 해마다 5·18기념행사위원회를 꾸리면서 겪고 있는 숙제들
- 5·18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위치와 역할은?
- ‘오월 경제’ 흥미롭지만, 익숙지 않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자 영역
 - 김기곤 박사의 주장처럼 ‘오월 경제를 5·18자원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기능적인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5·18의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인 경제관계 구축으로 확대해야
 - 광주형 일자리에서 노사책임경영(노동이사제, ?)
- 5·18기념행사 + 비엔날레
- 옛 전남도청 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의 결합 또는 접점은?

‘오월’은 경제가 될 수 있다, 도시와 시민의 역량을 5·18에 먼저 쏟아야

황풍년(전라도닷컴 대표)

광주라는 도시의 첫 번째 정체성을 5·18에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 도시정책의 역량을 가장 먼저 쏟아야 한다.

기업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모든 도시들이 복잡한 기능을 갖기 마련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어떤 도시든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마땅히 우선해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게 다름이고 차이다. 거기에서 빛나는 전통이 생기고 그 도시만의 매력과 경쟁력이 생긴다. 광주는 단연 5·18이 그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국가에서 시민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문화가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다.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라는 여울목에서 빙빙 도는 역사의 지체현상을 힘차게 뚫어낸 위대한 민중들의 영웅적 서사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세계인들은 광주라는 도시를 주목하고 끝도 없이 찾아올 것이다.

2019스웨덴 예체보리 도서전에서 한국은 주빈국이었다. 작가 한강의 5·18과 광주이야기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다.

과연 이 도시가 무엇을 보존하고 어떤 이야기를 갈무리하고 누구를 상징화해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광주 도시 안의 모든 5·18 유적지를 정비하고 오월 영령들이 쓰러진 자리마다 기억을 할 수 있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꽃을 바치며 고개를 숙이는 곳, 세계인의 발걸음을

안내할 수 있는 탐방코스를 구축해야 한다.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오월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문화전당, 비엔날레, 양림동에 밀려버린 오월의 도시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시상에도 그 애린 것들이 목숨 내놓고 싸우고 다닌디, 사방에서 초상이 나고 사방이 눈물바단디 어떻게 내 식구 입만 챙기고 자빠졌당가. 다 된 밥을 주먹으로 뽕뽕뽕 쪼아서 만들 때도 ‘오매 얼마나 배가 고평고냐’ 그 생각뿐이여. 다시 그런 일이 닥치면 어쩌겠냐고? 사람 할 도리를 누가 말긴다고 안한당가?”

- 80년 오월 주먹밥 만들었던 광주 양동시장 '백양상회' 아집(2002년 5월호 전라도닷컴)

광주의 거리에 외국 작가들의 예술작품 설치가 뿔이 그리 급한 일인가. 김성 님의 발표문처럼 주먹밥 만드는 어머니들의 군상을 먼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꽃을 놓으며 오월영령들에게 묵념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항쟁에 뛰어들었는지를 해설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는 없는 것인가? 근처에서 배지도 사서 달고 주먹밥도 사먹어 보고….

광주라는 도시를 일 년 내내 오월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고, 민주시민들이 스스로 오월의 문화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해야만, 5·18 경제가 뒤따라 올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곳곳에서 오월정신을 외치고, 시민들은 항쟁의 역사를 자긍심으로 삼는 광주야 5·18로 먹고살 수도 있는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현대예술도 음식문화도 결코 비교우위가 아니다. 오로지 5·18만이, 그 역사만이 광주가 가진 유일한 장점, 독보적인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이 주인공이다.

추모와 다짐, 지구촌의 모든 아픔을 보듬는 전야제를 만들자!

2019년 5·18 전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적폐청산은 지지부진하고, 기대했던 한반도의 평화는 어렵기만 했다. 개혁은 곳곳에서 반동과 퇴행의 물결에 부딪쳐 울분을 주체할 수 없

는 오월 그 밤에 한데 모여 소리치고 싶었다.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지치지 말자고 다짐하고 싶었다.

갑작스런 비가 아니었다. 이미 예고된 빗줄기에 금세 끝나버린 전야제는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애꿎은 사람들만 항의를 받았다. 나도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과 독자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꾸지람을 감수했다. 광주사람이니까.

5·18전야제는 대한민국을 통틀어 가장 폭발적인 시민참여형 세레모니요 축제다. 그날 밤이면 저절로 몸을 움직여 금남로로 나오는 시민들이 있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월광주를 기리며 민주 인권 평화를 갈망하는 동지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야제의 골격이 있어야 마땅하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마땅히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꾸려온 전야제를 돌아보면서 큰 틀에서 원칙을 세울 때다. 새로운 게 없지만 변함없는 감동과 메시지가 있고 또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전야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맘으로 반복한다.

첫째, 재현이다. 광주의 모든 시민사회와 학교 등이 다양한 역할로 80년 광주를 다시 연출해내는 시민참여형으로 치러야 한다. 해마다 비슷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학생들이 이전에 참여했던 선배들을 본으로 삼아도 좋겠다.

둘째, 무대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한다. 오월 정신을 이야기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자. 벼슬자리나 정치인들은 단상 아래에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전통을 세우자. 오월은 민주시민의 역사요 그들이 주인공으로 대물림하는 문화여야 한다. 판에 박힌 인사치레 없애자.

공연도 시민의 역량이 결집되는 무대여야 하고, 세계 곳곳에서 민주 평화 인권을 위해 노래하고 춤춰 온 동지들과 연대하는 장으로 만들자. 유명 가수의 노래나 저명인사들의 연설 같은 걸 앞세워 시민을 소외하면 절대 안 된다.


셋째, 금남로를 중심으로 광주 곳곳을 거대한 해원의 장으로 만들자. 압

제에 신임하는 사람들, 차별받는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지구촌의 축제로 만들자. 영화도 음악도 그림도 문학도 학술대회도 전야제를 기점으로 오월 광주에서 한데 모이고 서로 위로하고 소통하면서 연대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5·18전야제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80년을 기억하는 뜨거운 의례가 있고, 시대정신에 투철한 민주시민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지르는 함성이 들리고, 인류의 아픔과 슬픔을 위무하는 연대의 몸짓과 창의적인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광장이길 바라본다.

5·18경제, 기념행사 전문가 집담회


안평환(도시재생공동체센터)



GURCC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Gwangju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Center

518이 마을경제와 만나다 518이 도시재생에 말걸다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광주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마을공동체란?

洞 = 水 + 同
village = water + same

동네 [洞内]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

동 = 마을공동체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웃들의 관계망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

공간적 친밀성을 가진 사회관계
또는 이러한 사회관계를 가진 집단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며
조화를 이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것

자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왜! 마을공동체인가?

도시화율 90%시대 - 주거형태 아파트 60%대

행복지수/삶의질 OECD 34개국 32위

저출산 시대 - 아이낳기 어려운 나라

고령화시대 - 1인가구, 고독사, 자살을

마을자치가 대안이다



노벨상이 선택한 대안 - 엘리너 오스트롬 -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을공화국



마하트마 간디

“다시, 마을이다” -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조한혜정)

위험사회 - 올리히백

위험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1) 국민의 시대 => 시민의 시대
새마을 (운동X) => 마을공동체운동 (자발성)
2) 토건사회 => 돌봄사회
3) 따로 또 같이공동체, 이웃, 친구

☞ 미래학자 - 피터 드러커

“21 세기는 도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활동가가 유망할 것이다”

11

공동체 마을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일상 생활환경 문제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풀뿌리 생활공동체 운동.

자치, 경제, 문화, 복지, 인권, 여성, 교육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광주는 도시자체가
518테마파크이다.
공동체 경험이 있다**

1980년 민족민주화성회



오늘의 의미



시민군

- ▶ 마을만들기를 통한 자치공동체
- ▶ 시민참여시대 → 시민주권시대

오늘의 의미



주먹밥

- ▶ 주먹밥 나누기
- ▶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콘텐츠화
저항, 나눔, 공동체 운영
- ▶ 협동조합운동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 경제 공동체

오늘의 의미



분수대
공동체

- ▶ 시민들의 토론 문화
- ▶ 직접민주주의 실현
- ▶ 민주주의 광장 문화
- ▶ 문화공동체

오늘의 의미



헌혈

- ▶ 헌혈도 수입해야 하는가?
- ▶ 몸은 더럽혔지만 피는 깨끗하다.
- ▶ 생명, 나눔운동으로 발전

오늘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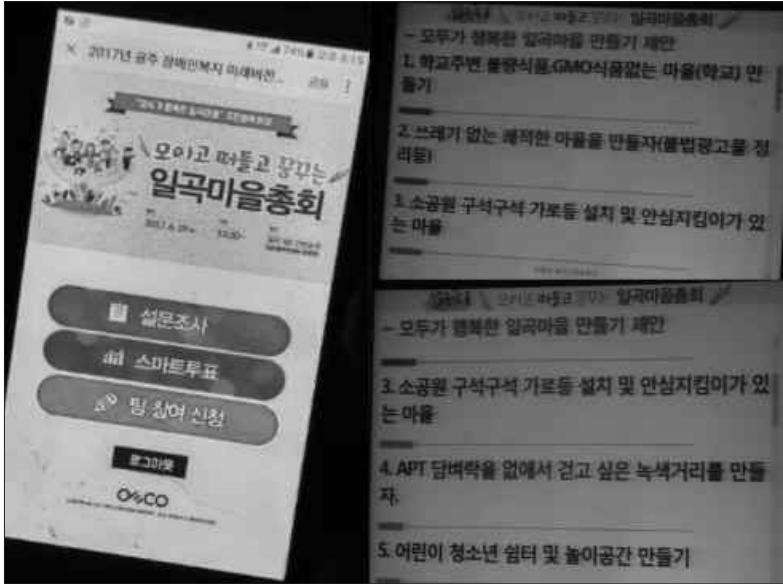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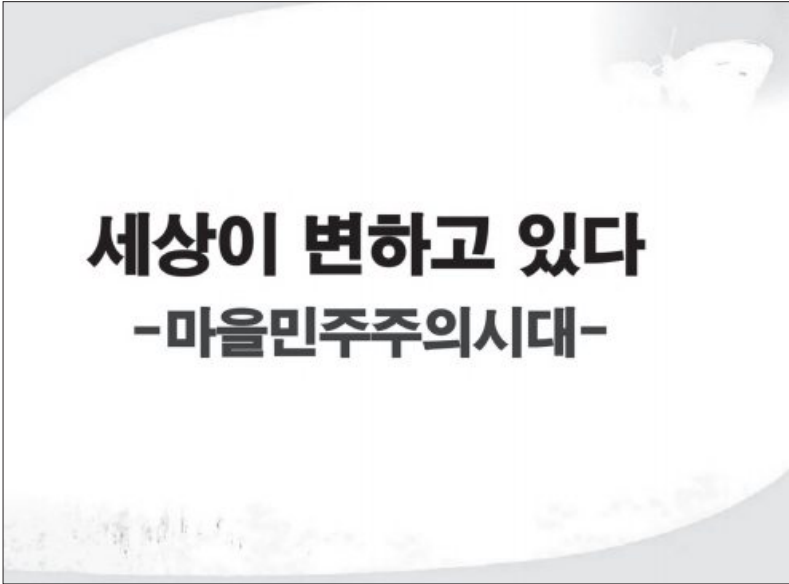
햇불

- ▶ 개인의 희생정신 → 자원봉사
- ▶ 작은민주주의 실천 (생활속 민주주의)
- ▶ 골목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우리마을총회 “마을이 민주주의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마을민주주의시대-

마을(동·洞)은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
는
민주주의 공간이다!

18

518과 마을공동체가 만난다

1. 아시아 최대의 사회적경제도시
-18개국 도시거리 조성
2. 아시아 최대의 공정무역도시
-마을-자치구-공정무역도시선언
3. 마을공동체를 브랜드화 광주투어
4. 518스토리텔링 - 일자리 연계
5. 세계 최고의 직접민주주의 도시
6. 5월 한달동안 전조등켜기운동





I. 추진배경 및 목적	II. 국내외동향 및 이론	III. 광주 현황 및 실태	IV.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	----------------	-----------------	-----------------

3 광주다운 도시재생

Vision of DESIGN GWANGJU
● ● ● 광주다운 도시

■ 광주다운 도시재생 기본정책방향

- ‘광주다운의 회복’ 과 三郷이 깃든 도시재생사업
 -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의 무형자산(5.18민주화운동, 대동정신) 활용
 - ACC, 광주비엔날레, 남도문화 등 전통과 현대 예술 문화 콘텐츠사업 확대
 - 광주 5대가 걸든 계층 접목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도시 활력과 상생을 위한 ‘콘드롬 타워’ 기능 강화
 - 시의 조직 진단 확대 및 시,자치구,공사 등과의 상생 협약
 -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구축
 - 역사,문화재생, 청년스타트업, 민간투자 등 연계사업
- ‘관주도에서 주민주도’ 방식으로 전환체계 구축
 - 주민조직 중 리더쉽 유무에 따라 주민주도 또는 민관 협업체계 추진
 - 주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통합
 - 도시재생대학, 마을학교, 연구포럼 등 도시재생역량강화 교육 지속
-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재생사업으로 순차적 전환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배분비용, 세입자의 용자 등 종합대책 강구

광주다운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21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국내외 현황 및 사례
 3. 광주 현황 및 실태
 4.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3 광주다운 도시재생 Vision of DESIGN GWANGJU

● ● ● 광주다운 도시

■ 광주다운 도시재생 세부추진계획

- (단기)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권역별 재생 방향 제설정
 -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가이드라인 연계
 - 조직 진단 및 토론, 자문, 거버넌스 구축
 - 노후주거지 소규모 주민주도사업 추진
- (장기) 광주다운이 스며든 도시재생 모델 개발
 - 의향이 깊은 교육 전시 체험 공간을 함께 담은 재생
 - 무등산, 근대건축물 등 HW와 문화 예술 관광 등 SW 융화 재생
 - 전통시장, 아시아문화 음식거리, 청년 푸드 등 인자리 재생
 -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 관광 맞춤형 재생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해체 지역 재생
- (기타) 공공기관이 참여한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등

광주다운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17

518과 도시재생에 말걸다

- 사람재생
- 도시재생과 경제재생 (사회적경제조직)
- 오월길, 푸른길, 광주천 (걷기)
- 전일빌딩 공간재생
- 광주교도소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 국군통합병원 치유와힐링기념파크
- 제3세계국가 민주화운동 부상자 치유기능 (한방으로 치유병원 설립)
- 커뮤니티 광주 이미지 살리기 등

마을성회/광주시민대성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40주년 5·18민중항쟁 기념 광주시민 대성회 '오월의 약속'

■ '202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 및 취지

2020년 오늘 광주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이슈와 의제들 중 1980년 5·18 광주의 시민정신을 되살려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를 시민의 직접 제안과 참여로 결정하고 이를 '2020년 광주시민 오월의 약속'으로 선정한다.



개 요

- 일 시** 2020년 5월 17일(일) 16시 30분~18시
- 장 소** 금남로4가역 금남공원
- 참석대상** 광주시민 518명
- 주요내용** 사전 부대행사
오월의 약속 시민제안
오월의 약속 선언식



세부내용

◆ 부대행사 (16:30 ~ 17:00)

금남공원 주변 홍보 활동

노란 바람개비 만들기, 손피켓만들기

오월의 약속 사전 현장 스티커 투표



세부내용

▶ 오월의 약속 시민제안(17:00 ~ 18:00)

오프닝공연: 청소년춧불, 시민상주모임 플래시몹 또는 카주 합창

개회식(사회자 소개, 인사말)

오월의 약속 시민제안자 발언(마을성회+청소년+청년)

5·18정신을 통해 2015년 광주시민이 함께 약속하거나 실천해야 할 의제 제안

참가 시민들의 현장 투표(스마트폰 활용)

세부내용

▶ 오월의 약속 선언 및 퍼포먼스

스마트폰 최종 투표 결과 발표 및 시상

약속 선언 퍼포먼스(비표 또는 우산 들어 약속 선언하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제안은 2015년 한해동안 광주광역시와 함께 연중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6년 518행사에서 보고합니다.

광주시민성회에 광주시민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 오월의 약속 제안 및 발언

■ 광주시민 518명 현장 투표인단 참여

■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우산 등)

외국의 사례

스위스 란츠게마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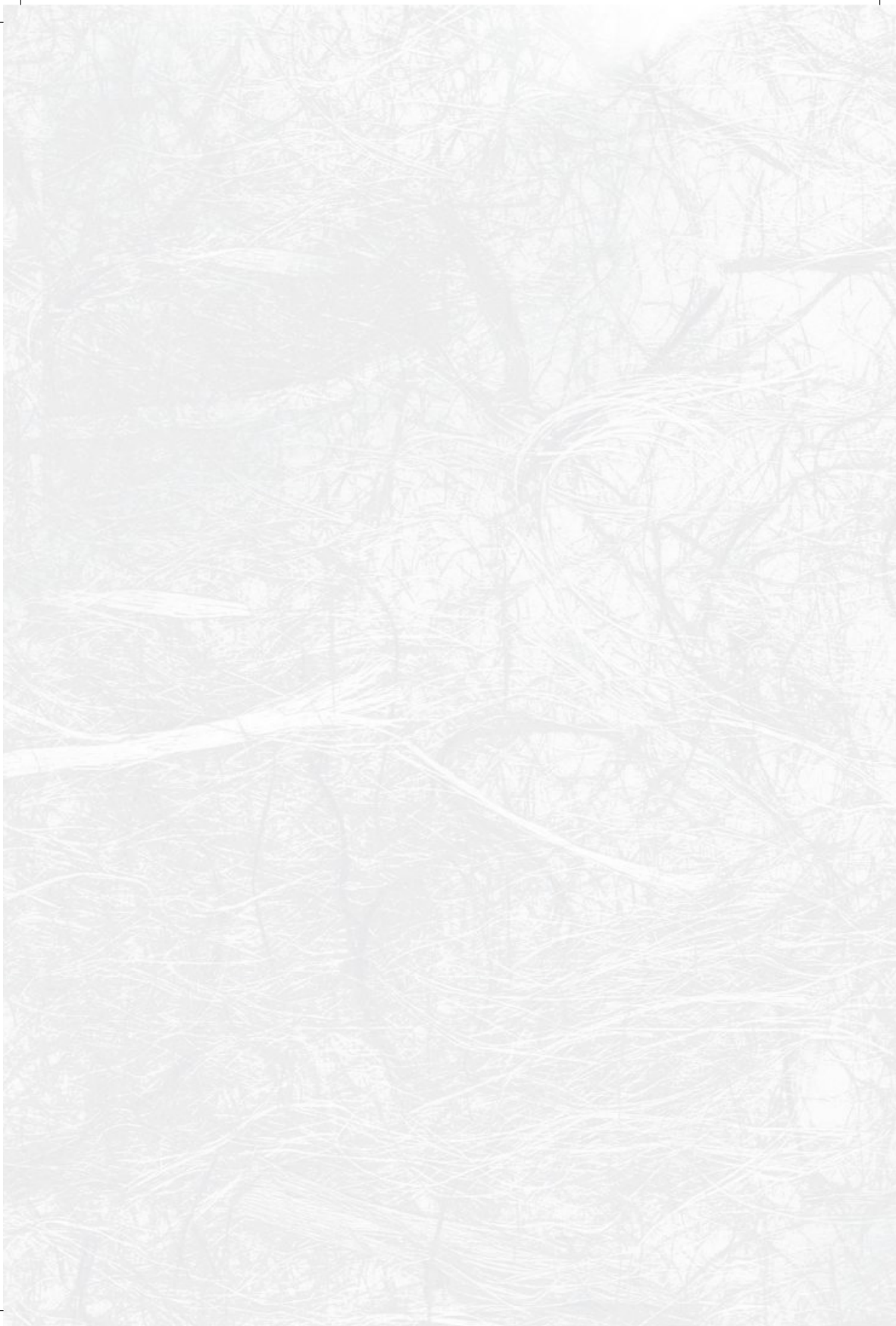




외국의 사례

SBS스페셜 최후의권력 5부작





마흔살 5·18의 철학적 담론 대중적·보편적 의미의 5·18정신

일 시 2019. 10. 16.(수) 14:00
장 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주 최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표 및 토론

사 회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기조강연 자기의 권리와 타인의 고통 사이에서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하여
김상봉(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토 론 전진희(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한(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자기의 권리와 타인의 고통 사이에서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하여

김상봉(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1.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한 물음

헤겔은 『역사철학강의』에서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태양이 창공에 자리 잡고 행성이 그 주위를 운행하게 된 이래, 인간이 머리 위에 즉 사상 위에서, 사상에 의거해서 현실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아낙사고라스는 처음으로, 정신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간은 사상이 정신적 현실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찬란한 일출과도 같았다. 모든 생각하는 존재가 이 시대를 같이 경축하였다. 숭고한 감격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정신의 열광은 흡사 신과 세계의 현실적 화해가 여기서 비로소 성취된 것같이 세계를 전율하게 하였던 것이다.”¹⁾

아낙사고라스가 주장했듯이, 정신이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그리스 철학자의 주장이었을 뿐, 사람들에게 의해 보편적으로 인

1) Hegel,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Suhrkamp, 1986, S. 529. “Solange die Sonne am Firmamente steht und die Planeten um sie herumkreisen, war das nicht gesehen werden, daßder Mensch sich auf den Kopf, d.i. auf den Gedanken stellt und die Wirklichkeit nach diesem erbaut. Anaxagoras hatte zuerst gesagt, daßder nous die Welt regiert; nun aber erst ist der Mensch dazu gekommen, zu erkennen, daßder Gedanke die geistige Wirklichkeit regieren solle. Es war dieses somit ein herrlicher Sonnenaufgang. Alle denkenden Wesen haben diese Epoche mitgefeiert. Eine erhabene Rührung hat in jener Zeit geherrscht, ein Enthusiasmus des Geistes hat die Welt durchschauert, als sei es zur wirklichen Versöhnung des Göttlichen mit der Welt nun erst gekommen.”

식된 진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인간은 처음으로 정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불의한 폭력이 아니라 이성, 맹목적 필연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이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헤겔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신적인 존재가 인간적인 존재와 참으로 화해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결코 화해할 수 없이 평행선을 그리는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화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이 현실과 합일했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헤겔이 말하는 프랑스대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또는 다르게 말하자면 보편적 의미이다. 아마도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보다 더한 칭송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을 두고도 이런 칭송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5·18의 어떤 모습이 그런 칭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다.

이 물음은 대답될 적이 없다. 아니 물어진 적조차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오직 5·18의 세계사적 의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경우에만, 그런 찬사를 바칠 수 있겠지만, 아직 누구도 5·18의 의미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질문한 사람도, 드러낸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²⁾ 그렇다면 5·18의 세계사적

2) 조금 비슷한 논의들은 있었다. 서승, 「세계인권운동사에서 본 5·18」,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 민주항쟁사』, 2001), 935쪽. “광주 5·18은 세계 인권운동사의 맥락에서 보면 냉전시대라는 20세기 후반을 지배해 온 세계패권시대의 구조에 대한 항거이자, 서구 중심의 인권의 축을 아시아로 끌어당기는 커다란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패권에 의한 지역질서의 파괴와 21세기의 참된 자유와 평등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인권운동으로 위치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일섭, 「5·18과 동아시아 민주화운동」, 《『5·18민주항쟁사』, 964쪽. 이 논문에서 신일섭은 필리핀과 중국 그리고 태국의 민주화운동을 5·18 및 그 이후의 한국의 민주화와 비교하면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상징적은 독재세력은 물러났지만 그것에 대체할 만한 민주화세력이 완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내용면에서도 구체적인 민주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하필이면 신일섭은 이처럼 불완전한 동아시아의 민주화를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이룩했던 프랑스 혁명과 비교”하고 있다. (같은 곳) 그러니까 신일섭은 5·18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민주화를 프랑스 혁명에 비하면 아직 불완전하고 불철저한 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 셈이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역사 속의 광주항쟁」, 《5·18기념재단, 『5·18민주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5·18민주항쟁의 의의』, 2007) 98쪽 아래. 카치아피카스는 이 논문에서 먼저 5·18을 파리코뮌과 비교한 뒤에 광주항쟁과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회를 피력한다. “19세기 후반에, 광주항쟁은 혁명적인 열망과 행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빛나는 모범으로 남아 있다. 항쟁의 자발적인 연쇄반응과 공적 공간의 거대한 점거는 단일한 행동 유형으로 행동하는 수백만의 일반 민중들이 역사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것을 표명한다. 그것은 민중들이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직감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 인류는 우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아니 그보다 먼저, 5·18은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인가? 아니면 한국의 현대사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인가? 이것부터가 대답되어야 할 물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5·18에 대한 연구를 되돌아보면, 5·18의 세계사적 의미는 고사하고, 그것이 한국의 민중항쟁사에서 지니는 역사적 의미조차 온전히 해명되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5·18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는 것은 누구도 애써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5·18이 한국의 근·현대 민중항쟁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항쟁이나 봉기들 가운데서도 마치 치솟은 봉우리처럼 무언가 독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즉,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민중항쟁사를 전체로서 조감하고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뜻을 파악하고, 그 전체의 뜻으로부터 5·18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어야만 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5·18연구사를 돌아켜보면 이 과정은 5·18연구의 초기에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일종의

리가 직감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것, 즉 자유를 위한 본능적인 요구를 가지며, 광주항쟁 동안 집합적인 현상으로 승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본능적인 요구였다.”서유경, 『5·18'민주항쟁과 '글로벌 민주주의(Global Democracy)』,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 174쪽 아래. 서유경은 5·18을 68혁명과 비교한 뒤에 5·18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5·18은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인간존엄과 시민적 존재감의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둘째, 순전한 시민공동체의 출현과 그것의 집단무의식화를 통한 민주적 공동체의식 확장의 토대를 확보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 특수한 지역적 혁명의 상징성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민주주의의 외연확대에 기여했다.”한스 요르그 잔트켈러, 『인간의 존엄성과 근대국가의 정당화,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의 보편적 의의』,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 398쪽. “이 법/권리의 옹호는 모든 이들의 자유의 보편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광주의 보편적 의의의 근거는 ‘시민들의 행위가 단지 그들의 고향도시에 대한 애향심이나 단순한 반항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억압과 왜곡된 선전조차도 결코 지워버릴 수 없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열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데 있다.”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5·18의 보편적 의미를 나름대로 해명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말한 의미는 잔트켈러의 경우에서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주5·18을 세계사 속에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한 사건으로까지 격상시키지는 못했다. 모두 동아시아라는 국지적 의미에서 5·18의 뜻을 묻거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기존의 정치적 이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5·18을 해석하는 데 머물렀던 까닭에 온전한 의미에서 5·18의 세계사적 의미를 묻지도 못하고 답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당위론적인 요청이나 초보적인 시도를 넘어, 지속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통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³⁾ 그리하여 전체 민중항쟁사의 의미도, 그 속에서의 5·18의 의미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5·18을 헌법전문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 진지하게 논의될 정도로 5·18의 현실 정치적 위상은 점점 더 높아져 왔다.⁴⁾ 하지만 5·18의 역사적 의미가 분명하게 정립되고 보편적으로 공감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의 현실 정치적 위상만이 부각되는 이런 불균형은 5·18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18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도리어 5·18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인 관심 자체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면 이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닌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실증적 사실이 문제라면 발표명령자가 누구냐 같은 특별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것들이 조사, 연구되고 그 진상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학자들이 5·18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다투어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5·18연구는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그 사실의 의미를 물어 들어갈 때 비로소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5·18연구는 완벽하게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고 말하더라도, 결코 잘못도 과장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

3) 이 점에 관해서 역시 비슷한 논의들은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진균, 「국민형성의 관점에서 본 5·18」(『5·18민중항쟁사』)와 강만길, 「근대 민족운동의 전통과 광주」(같은 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두 글 모두 5·18의 배경으로서 민중항쟁의 역사를 돌아보거나, 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모순을 서술하기는 하지만, 5·18이 전체 항쟁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해명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정은 이상식,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이나 Sallie Yea, 「전라도 지역의 저항지도와 반체제 세력의 지리부도」(같은 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두 논문은 5·18의 역사적 배경을 호남지역에 국한해서 고찰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맥락을 호남지역으로 제한하여 서술하는 까닭에, 거기서 전체 민중항쟁사의 맥락 속에서 5·18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4)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공약한 이후,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나, 개헌 논의 자체가 진전되지 못했던 까닭에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학문적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민병로, 「헌법 전문과 민주주의-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헌법적 당위성」(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 第38卷 第1號, 2018.02).

하지만 이것 역시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의 역사적 의미라는 것이 그 사건을 이루는 다양한 사실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함석헌이 반복해서 말했듯이, 역사의 뜻은 드러난 사실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의 원리인 까닭에 단순한 사실의 외적 연관성만으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⁵⁾ 그러므로 역사의 뜻은 언제나 사실을 다루는 과학의 과제일 수 없다. 굳이 5·18만이 아니라도 모든 역사적 사건의 뜻이란 단순한 사실 인식의 지평을 뛰어넘는 정신의 도약이 없이는 결코 개방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을 넘어 전체를 관통하는 뜻을 묻는다는 점에서,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의 과제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의 뜻이 사실의 이면에 숨어 있지만 또한 사실을 통해 자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역사에 대한 형이상학은 성찰이 역사에 대한 실증적이고도 과학적인 인식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역사인식이란 과학적인 동시에 철학적이다. 하지만 대다수 철학자들은 한국의 민주항쟁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속에 있고, 대다수 5·18연구자들에게 철학적 언어와 사고방식은 낯설고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다. 이처럼 5·18연구에서 철학과 과학이 유리된 결과, 한국의 민주항쟁사 속에서 5·18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물어진 적도 대답된 적도 없는데, 하물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5·18이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어떤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 문맥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대체 한 사건의 역사적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길고도 어려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 이 문제를 여기서 주제삼아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사건의 역사적 의미란 그 사건 속에서 표현되고 실현되는 전체 역사의 의미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헤겔이 말한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자유의 실현에 있다. 앞서 인용한 『역사철학강의』에서 헤겔이 말한 대로 정신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자유의 의미내용이다. 그런데 이 자유의 이

5)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1997, 41-6쪽.

념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헤겔은 소크라테스 시대 아테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거니와, 그렇듯 자유의 이념은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부터 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역사 형성의 원리였던 것이다.⁶⁾ 하지만 그 이념은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실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진보해 왔는데, 이 자유의 개념의 발전의 역사가 일종의 질적 전환을 통해 어떤 완성된 형태를 실현해 보여준 것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혁명의 의미는 서양의 역사 전체의 의미가 그 사건 속에서 표현되고 또 실현된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18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가 5·18에 대해 어떤 세계사적 의미를 입에 올릴 수 있으려면, 그것 역시 세계사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어떤 뜻이나 이념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것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역사 이념의 단순한 모방이나 계승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광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민주, 인권, 평화 같은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두 기존의 서구적 정치 담론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새로운 이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는 5·18의 역사적 의미가 민주,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한 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으로부터 잉태된 항쟁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5·18의 역사적 의미가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만 제시된다면, 5·18을 두고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것이 세계사적 사건이라면 그것은 세계사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세계사를 한 단계 고양시키고 극복한 사건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존의 역사가 추구해 온 이념의 모방이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갓 반복이 어떤 세계사적 가치를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이른바 선진국에서 이미 안정되게 실현되고 정착된

6) 그것을 가리켜 헤겔은 “세계사란 자유의 의식의 진보이다.”(Die Weltgeschichte ist der Fortschritt im Bewußtsein der Freiheit.)라거나,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S. 32.] 보다 알기 쉽게 “자유 개념의 발전”(die Entwicklung des Begriffes der Freiheit)이라고 표현했다. [같은 책, 524쪽.]

민주주의를 어떤 후진국에서 뒤늦게 실현하기 위해 봉기하고 피흘린 것이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지구상의 대다수의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면, 한국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드물게 보는 하나의 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18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먼저 실현된 민주주의의 모방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정은 민주, 인권, 평화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5·18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봉착하는 곤경인데, 이를테면 몇몇 학자들이 말해 왔듯이 5·18의 파리코핀의 68혁명의 반복이거나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면, 5·18을 두고 세계사적 의미를 입에 올리는 것은 과도한 자기도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5·18이라면 그것은 파리코핀을 모방했으나 뛰어넘지 못하고, 68혁명을 반복했으나 역시 뛰어넘지 못한 일종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우리는 5·18의 세계사적 의미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곤경이 5·18의 세계사적 의미를 묻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도 그 자체로서 자신의 역사적 의미를 사물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언제나 드러난 사실 이면에 숨어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그렇게 나타난 사실 뒤에 감추어진 의미는 고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고 의미인데, 이런 의미의 뜻은 함석헌이 말했듯이 내가 만나면 있지만 내가 외면하면 아무 것도 아닌 그런 것이다.⁷⁾

7) 함석헌, 「80년대의 민족통일의 꿈을 그려본다」, 『함석헌 전집』, 한길사, 1993) 12권 40쪽. “의미란 것이 무슨 연극의 각본처럼 미리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씨알이 그렇게 역사를 붙잡아보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도 나요, 붙잡히는 것도 나입니다.” 『민족통합의 길』, 『전집』 12권 25쪽 아래. “운명과 천명이 불가항적인 데서는 같으나 그 뜻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에는 의미가 없고 하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명이란 이 우주에 어떤 일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믿는 말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허무입니다. … 천명인 답에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미인 답에는 실현해서만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역사가 나옵니다. 운명이라면 몰라도 좋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 운명에는 맹목적인 복종이 있을 뿐이지만 천명은 깨닫지 않으면 아니 되고 실현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문제입니다. … 의미의 세계는 스스로 서는 세계입니다. 그 체험하는 주체에 따라 역사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같은 프랑스 혁명을 두고도 헤겔이 그것에 부여한 의미와 버크(E. Burke)가 부여한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5·18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해나 평가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의 역사적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5·18을 어떻게 만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다 열려 있는 가능성의 문제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5·18의 역사적 의의를 선불리 예단하지도, 아예 포기하지 말고, 다만 5·18이 전체 세계 역사 속에서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묻고 끈질기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방법론적 원칙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5·18의 세계사적 의미는 오직 한국의 근·현대 민중항쟁사가 전체로서 세계사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5·18의 독보적 의미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민중항쟁사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에 존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만약 한국의 근·현대 민중항쟁사가 세계사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얻는다면, 5·18 역시 세계사적 의미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민중항쟁사가 단지 후진국의 지속적 소요와 혼란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면, 5·18 역시 특별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민중항쟁사에서 아무리 특별한 위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민중항쟁사 자체가 후진국의 소란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5·18이 그런 소란 가운데 두드러진 소란이라 한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5·18의 세계사적 의미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국의 전체 민중항쟁사의 역사가 지니는 세계사적 의미를 통해서만 비로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5·18의 세계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한국의 민중항쟁사의 세계사적 의미를 묻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또 다른 방법론적 원칙은 역사의 의미는 오직 나와 역사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개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할 때,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팩트(fact)라고 부르는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data)와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데이터는 말 그대로 주어진 것(the given)으로서 자료이고 정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대

한 자료이고 정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팩트는 데이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낱말(factum)의 원래 의미에서 보자면 능동적으로 수행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팩트(fact)는 액트(act)와 같은 말이다.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행된 일이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행위는 인격적인 주체의 일이다. 다만 그 인격적 주체가 홀로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서로주체로서의 겨레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개인의 행위와 역사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적 사건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더불어 수행했던 사람들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만 일어난다. 그 만남 속에서 역사는 이어지고 그 이어짐 속에서 역사는 죽지 않고 살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남은 역사의 본질적 진리이며, 역사와의 참된 만남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격적 만남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다. 하나의 육체는 다른 육체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나의 육체가 타인의 육체가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낄 수는 없다. 오직 마음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타인과의 인격적 만남의 길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고통이 어떤 슬픔을 낳고, 어떤 슬픔이 어떤 동경을 낳았는지, 그리고 어떤 동경이 어떤 행위를 낳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절망적인 슬픔 그리고 영웅적인 항쟁에 지금 나의 존재가 얼마나 크게 빛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민중항쟁사의 역사적 의미란 내가 그 항쟁의 역사에 지고 있는 빛에 다름 아니다. 그 빛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역사의 의미도 크고 무거울 것이다. 또한 그 빛은 이미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므로 되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연구는 마지막에는 역사에 대한 감사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학문의 이름으로 횡행하는 수많은 역사서술이란 죽은 시체의 해부학 이외에 다른 무엇일 수 있겠는가. 물론 해부학도 해부학으로서 역할과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해부학으로서의 역사학은 참된 역사인식의 출발점일 뿐 결코 그것의 목적지는 아닌 것이다.

2. 한국의 민중항쟁사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하여

단지 민란이 아니라 항쟁의 역사가 문제라면, 그 역사는 동학농민전쟁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학농민전쟁은 “탄압이면 항쟁이다”⁸⁾ 식의 단순한 반작용도 아니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일면적 부정도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동경에서 촉발된 봉기이기 때문이다. 동학이라는 종교 또는 철학은 그 믿음의 체계적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으로부터 동학농민전쟁이라는 항쟁의 싹이 자라나왔던 것이다. 그 이후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기투, 곧 새로운 세계의 개혁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망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기존 질서의 파괴만으로 기울어지는 폭동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물론 항쟁이 현존하는 세계의 불의와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항쟁은 언제나 현실의 지배적 권력과 그 폭력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다면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는 결코 세계사적인 의미를 획득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 자체로서도 지속적인 진보의 역사를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면적인 저항이 지향하는 지배 권력의 부정과 파괴는 기존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새로운 세계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의 개방 및 형성을 지향하는 의지가 낡은 세계를 부정하는 의지와 함께 하나의 항쟁 속에 공존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의 민중항쟁사의 독보적인 고유성이다. 그런 한에서 한국의 민중항쟁사의 세계사적 의의는 다른 무엇보다 기존의 세계에 대한 항쟁의 부정이 지니는 의미와 함께, 항쟁이 개방하려 한 새로운 세계의 의미와 가치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낡은 것의 부정이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 새로운 것의 기투가 얼마나 참되고 보편적인지에 따라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근·현대 민중항쟁사에서 동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최초의 기투였다.

8) 이 말은 제주4.3이 일어나던 날 무장대가 경찰들을 대상으로 뿌린 유인물에 쓰여져 있었던 말이다. 김봉현, 김민주 공편,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문우사, 1963, 84쪽.

그런데 동학의 시원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세계사적 물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물음은 이것이다.

“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攻取天下 立其堂 行其道 故
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다
니)”⁹⁾

경신년은 1860년이다. 이 해에 수운은 하늘의 계시를 받고 동학을 창시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 해는 동시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침공해 황제의 이궁(離宮)을 불태웠던 해이다. 이 사건의 충격이 수운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르침을 펴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수운 자신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운은 여기서 그 사건을 두고 하나의 물음을 던지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나무랄 데 없는 도덕적 고상함이다. 하지만 부귀 따위는 취하지 않는다는 서양 사람들은 아예 천하를 통째로 빼앗아 예배당을 세우고 자기들의 도(道) 곧 종교와 문화를 퍼뜨린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생각하면, 바로 이 물음, 이 의심에서 한국의 민중항쟁사는 시작된다.

이 의심이 서양의 종교에 향해져 있다는 것은 서양 문명의 본질에 향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종교란 모든 문화적 정체성의 본질이면서, 각각의 문화권에서 모든 세속적 행위를 지배하는 최고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서양 종교를 향한 수운의 물음은 서양 문명 속에 내재한 근원적 모순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한에서 동학에서 잉태된 민중 항쟁의 역사는 이 모순으로부터 잉태된 모든 세계사적 불의에 대한 실천적 대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는 수운이 지적했던 서양 문명의 그 내적 모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9) 최계우, 『東經大全』, 천도교중앙총부 편, 『天道教經典』, 17~8쪽.

들 한국인이었고, 그 모순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고통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이므로, 한국인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뿌리인 서양 문명의 내적 모순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표면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민중항쟁사는 이 땅을 지배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지만 그 이면에서 보자면 세계사적 모순과의 대결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민중항쟁사가 세계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본질적인 위상이다.

이제 이 구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수운이 지적한 그 모순을 보다 세속적인 문맥으로 옮겨오자면, 그것은 헤겔이 그리도 칭송해 마지않았던 서양적 자유의 이념 속에 감추어진 모순 곧 자유와 제국주의의 사이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운이 정확하게 파악했듯이 서양 사람들은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귀를 좇는 삶은 노예적 예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삶은 부귀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노예적 삶인 것이다. 자유는 그 지배관계를 거꾸로 뒤집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정신이 부귀를 지배할 때, 아니 헤겔이 말하듯이, 정신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제국주의의 운동원리인 바,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의 자유를 위해 남을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서양적 자유의 이념 속에 감추어진 모순이다.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유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형성하는 능력과 권리에 존립한다. 하지만 인간이 모든 타자로부터 고립되어 살 수 없고 반드시 세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삶의 세계의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부분은 전체를 이길 수 없으므로, 만약 내가 속한 세계가 나의 의지에 반해서 움직인다면, 나는 어쩔 수도 없이 그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응이란 노예적 굴종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내가 세계의 법칙과 질서에 타율적으로 굴종하고 살지 않으려면 오직 내가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직 세계의 주인이 되는 한에서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¹⁰⁾ 그런데 내가 속한 세계는 동시에 남

이 속한 세계이기도 하다. 내가 나의 자유를 위해 세계의 주인이 되기 원하는 만큼 남도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자유를 추구하는 주체들은 같은 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온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 아닌 모든 주체들은 나의 의지에 의해 규정되는 객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자유로운 의지가 타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⁰⁾ 그리하여 순수한 자유(libertas)란 절대적인 지배(imperium)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루소가 말했듯이 누구도 모든 사람들을 항구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 물리적으로 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국가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개인은 유한한 존재지만, 국가는 자족적이다. 국가의 자족성 속에서 개인의 한계는 지양된다. 그리하여 개인은 국가를 통해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지배받는 대상은 국가로부터 배제되는 타자이다. 그것은 내부의 노예일 수도 있고 외부의 적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떻든, 국가 속에서 시민들의 상호 결속과 연대는 언제나 시민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배제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속한다. 시민적 결속을 통한 자유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국가의 존재이유는 자유에 존립한다. 그리고 시민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바로 모든 인민의 나라[*res populi*]인 공화국(*res publica*)이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오직 타자적 세계의 지배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인 한에서, 국가의 존재방식은 안으로는 아무리 공화국이라도 밖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민주적 도시국가들의 경우조차] 제국주의적이었으니, 지난 3천년 국가의 역사가 마지막에 이르러 제국주의로 흘렀던 것은 국가의 내적 본질의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이었다.

제국의 외부에는 식민지가 있다. 그리고 제국은 식민지를 지배함으로써

10)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 도서출판 길, 2007, 11쪽 아래.

11) 같은 책, 166쪽.

제국이 된다. 그리고 국가는 밖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이 됨으로써, 안으로는 더욱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화국이 된다. 아마 같은 말을 반대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안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밖으로 제국주의적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제국주의의 해일이 마지막으로 덮친 땅이 조선이었던 것은 어떤 필연이었을까?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땅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든 뒤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이 동아시아였다. 그 이전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밟았던 땅은 국가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너무도 취약한 상태로 있었던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의 아무런 의미 있는 저항도 없이 낮은 땅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곳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달랐다. 이곳은 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서양과 마찬가지로 오랜 국가 형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가 서양과 다른 경로와 방식으로 계몽된 합리성이 지배하는 문명권이었던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서양의 제국주의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반발과 저항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에 국한해서 살펴보자면, 그 저항의 양상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일본은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도리어 국가의 근본적 쇄신의 디딤돌로 삼아 순식간에 [타고르가 비판했듯이] 서양보다 더 서양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와 반대로 동아시아의 전통적 제국이었던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서양 열강의 침략 아래 이른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긴 하였으나, 어떤 외세도 중국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는 없었던 까닭에 중국 인민은 내부에서 스스로 반 식민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일본처럼 다행스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조선처럼 불행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완벽한 노예상태로 전락하는 파국을 경험하지는 않았던 까닭에 그들은 서양 문명의 모순을 근본에서부터 철저히 되물을 필요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조선에게 닥친 운명은 완벽한 파국과 파멸이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까닭은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가 처음부터 반-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소사대를 건국이념으

로 삼아 처음부터 중국의 제후국으로서 생존해왔던 조선의 지배계급에게는 국가의 주권이나 독립의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서양과의 만나 이후 이른바 만국공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본질이 주권에 존립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하였으나, 단지 명목상으로는 제국의 옷을 걸치는 허세나 부릴 줄 알았을 뿐, 제후국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내적 통합과 연대의 원리에 대해 조선의 지배계급은 그 어떤 이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가도 민족도 아니고, 오로지 왕조의 보존만을 염려하다가 끝내 나라는 썩은 흙담처럼 무너지고 민족 전체가 식민지 나라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상황은 그 이후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해방은 분단으로 이어지고 분단은 외세에의 반-식민지 연속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정치적 삶은 본질적으로 식민지 국가의 곤경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곤경이란 노예적인 삶과 자유로운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식민지 민중의 곤경이다. 그런데 이 곤경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아닌 남을 노예적 연속에 빠뜨려야만 하는 제국주의적 삶의 맞짝이다. 누군가 향유하는 자유로운 삶은 누군가 감당하는 노예적 연속 위에 존립한다는 것이야말로 세계사적 모순인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중은 그 세계사적 모순의 십자가를 지난 한 세기 이상 짊어지고 왔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수난의 역사가 아니라 저항과 항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민중항쟁사의 참된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그 속에서 일면적인 타도와 부정의 의지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자라나왔다는데 있으니, 왜냐하면 현존하는 세계의 모순은 오직 새로운 세계의 개방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현존하는 세계의 모순이 자유의 이념 속에 내재한 모순인 한에서 세계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유 속에 내재한 모순을 극복한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진다. 하지만 이 극복은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의 전면적 부정이란 노예상태일 뿐이므로, 그것은 자유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 이전의 상태로 퇴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양적 자유의 이념 속

에 내재한 모순의 극복은 오로지 자유의 이념을 보존하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되는 타자의 노예화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가 자유롭기 위해 너를 노예로 삼지 않을 때, 그리하여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차의 자유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때,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나의 자유가 도리어 너의 자유의 조건이며, 너의 자유가 나의 자유의 조건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경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지가 어떻게 가능하며, 또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민중항쟁사는 이 물음에 대한 끈질긴 모색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수운과 해월의 동학사상에서처럼 이론적인 것이기도 하고,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봉기처럼 실천적인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학혁명에서 이 두 차원이 분리될 수 없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이론과 실천이 항쟁 속에서 공존한다는 것은 동학혁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어서, 안중근은 의병전쟁의 와중에서도 동양평화를 구상했고, 한용운은 3.1운동 이후 옥중에서 집필한 『조선독립의 책』 조선의 자주 독립과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도도한 웅변으로 풀어내었다. 그리고 함석헌은 일제강점기에는 『성서조선』을 통해 그리고 유신 독재 치하에서는 『씨옴의 소리』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수행하는 저항의 뜻과 의미를 세계사적 사명으로까지 이끌어 올렸다. 이처럼 실천적 항쟁이 언제나 정신적 성찰과 함께 일어났던 까닭에 민중항쟁의 역사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진보와 성숙의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5·18은 그 진보와 성숙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드높은 봉우리이다. 거기서 항쟁의 역사는 하나의 완성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완성인가?

3. 민중항쟁사 속에서 5·18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

5·18의 일차적 의미가 한국의 전체 민중항쟁사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먼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여기서 그 의미가 무엇이든 그것이 항쟁사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뜻이라면 그것은 이제 항쟁사의 연속성으로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그 연속성은 어떤 경우에

도 사물적 존재들의 단순한 후속으로부터도, 또는 마르크스 식으로 말해 철석같이 관철되는 무슨 법칙으로부터도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연속성 속의 뜻이란 오직 지금 5·18과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우리들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인격적 뜻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입에 올리는 역사의 법칙이란 신체의 골격 같은 것일 뿐, 어떤 경우에도 그런 법칙이 인격적 삶의 표현과 실현은 아니다. 그런 골격은 인격적 활동의 최소한의 조건일 수는 있어도 역사를 써나가는 민중의 내면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역사는 외적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나타난 외적 행위의 기록인 역사를 통해 그 행위 이면에 감추어진 마음의 일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항쟁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뜻, 그 뜻을 담지하는 하나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밖으로 증거하는 것일까? 이 물음은 이중적으로 답하기 어려운데, 하나는 정신의 삶을 규정하는 어떤 연속성이 어떻게 외화될 수 있는지, 그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은 언제나 개별적 인격의 일인데, 어떻게 만 사람의 갈라진 마음의 일이 하나의 통일성과 연속성 속에서 만날 수 있는지가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길의 비유로 들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삶의 연속성은 사람들이 걸어 온 길을 통해 외화된다. 그러나 지리적 공간이 아닌 역사적 삶의 지평에서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뜻한다. 또한 그 만남 속에서 더불어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향하는 행위가 연속성 속에서 이어지거나 유사성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겨레의 집단적 행위가 뚜렷한 지향점을 향해 이어지고 반복될 때 그것은 이른바 역사적 경로가 된다. 그렇게 한 번 형성된 역사적 경로는 다시 새로운 역사적 행위가 이어지고 일어나는 새로운 길이 된다.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역사의 길은 겨레의 행위와 그 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집단적 행위를 제약하겠지만, 동시에 역사적 주체로서의 겨레가 그 길을 새롭게 이어가고 열어간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가능성 속에서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경로는 한갓 관념적인 추상이 아니고 역사 속의 사건이나 사실 그리고 자료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데 민중항쟁의 역사가 걸어온 길은 한 갈래 길이 아니다. 또한 그 길은 단순한 반복의 원운동도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갈래의 길이 하나를 지향해 온 길이다. 하지만 그 여러 갈래의 길들은 평야 위에 펼쳐진 평탄한 길은 아니다. 그것은 오름길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진보와 성숙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중항쟁사가 보여주는 역사의 길은 험준한 산맥의 능선과도 같다. 우리는 능선을 따라 봉우리로 올라가게 되지만, 높은 곳을 향해 고양되는 정신의 능선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아래에는 절망의 골짜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의 골짜기 위로 솟아오른 여러 능선들이 만나는 곳에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는 능선이 밀어올린 것이지만, 능선은 또한 봉우리 때문에 하나의 목표와 지향점을 얻게 된다. 그런즉 봉우리는 능선의 뜻, 능선의 존재 이유이다.

이제 이 비유를 한국의 민중항쟁사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최소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능선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동학혁명에서 시작되는 무장 항쟁의 능선이다. 이 능선은 의병전쟁으로, 무장독립투쟁으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3·1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비폭력 저항의 능선이다. 이것 역시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광주학생운동으로, 4·19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하나의 경로, 하나의 능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태일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기 폭력의 능선이다. 이것은 폭력적 무장항쟁도, 비폭력적인 평화적 저항도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이 세 가지 능선이 적극적인 유위(有爲)의 저항의 양상을 보여준다면, 제주4·3은 無爲의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까닭은 당시 제주도민들은 강요된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분단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강요되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의미심장한 저항이 될 수 있음을 보여

12) 김상봉, 고명섭, 『만남의 철학-김상봉과 고명섭의 철학대담』, 도서출판 길, 2015, 499쪽.

준다. 그런데 우리의 민중항쟁사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무위의 저항 역시 4.3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70년대 교련반대운동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반복되어 온 하나의 능선임을 알 수 있다.

5·18은 이 모든 능선이 만나 밀어올린 봉우리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5·18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소한 세 개의 능선이 만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항쟁이 그랬던 것처럼 5·18역시 처음에는 비폭력적 항의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평화적인 항의의 목소리를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하면서 시위는 격렬해지고, 계엄군의 폭력이 더욱 야만적이 되어 가고 급기야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평화적인 저항은 무장항쟁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3·1운동의 비폭력 저항과 동학농민전쟁의 무장항쟁이 5·18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 날 도청을 지키다 숨겨간 사람들은 총을 들고 있었던 들지 않고 있었든지 간에 전태일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 날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은 계엄군과 싸워서 승리하리라는 희망 때문이 아니라, 5·18의 불꽃을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 전태일처럼 자신의 생명을 역사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18이 민중항쟁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는 단지 여러 능선들이 거기서 만나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5·18의 독보적인 의미는 여러 능선이 만나는 그 치솟은 봉우리에서 마치 신시(神市)와도 같은 하나의 항쟁 공동체가 기적처럼 열렸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세상에 까닭 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그 때 그 곳에서 열렸던 신시는 백년을 이어온 항쟁의 역사의 가지 끝에 맺힌 꽃이요 열매이며 미래의 역사를 위한 씨앗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항쟁의 역사는 오로지 새로운 나라를 열망하여 성숙해 온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토록 간절한 동경과 꿈이 때가 이르러 하나의 완성된 형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5·18의 항쟁공동체였던 것이다. 나무의 성숙이 꽃과 열매와 씨앗에 있다면, 나무의 의미도 그 꽃과 열매와 씨앗 속에서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꽃과 열매와 씨앗의 의미 역시 자기를 피워낸 나무에, 그 나무가 뿌리 박은 대지에, 그리고 나무를 자라게 만들어준 비와 바람과 햇빛에 있을 것이다. 5·18도 그와 같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도 울었나보다”고 시인이 노래했듯이, 항쟁의 역사 속에서도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리도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세계사의 의미도 5·18속에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세계사가 피워낸 꽃이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물음이다.

4.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하여

그 의미는 간단히 말하자면 5·18이 그 항쟁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이상을 열어보였다는 데 있다. 그것은 가히 하늘나라의 계시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일이었다. 동학에서 시작된 낡은 세계의 거부는 낡은 국가 이념의 거부이다. 안으로는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밖으로는 침략을 일삼는 국가를 폐하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려는 열망과 동경이야말로 이 땅의 민중항쟁의 역사를 추동해 왔던 근본적 추동력이었다. 왜냐하면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불가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세상을 근본에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고통도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5·18이 계시한 새로운 나라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먼저 기존의 국가의 이념을 간단히 되돌아보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키케로가 정의한 공화국의 이념을 상기하면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공화국이란 모든 인민에게 속한 것[*res populi*]으로서 이익의 공유와 법률의 확립에 존립한다. 이로써 하나의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게 되는데, 권리는 국가를 통해 실현되는 자유의 내용이다. 그러나 권리를 통해 확보되는 이익은 무한정하게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왜냐하면 이익의 무한한 공유는 마지막에는 이익을 극소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공동체의 크기나 외연은 반드시 어떤 한계를 통해 제한되고 그 한계 외부는 이익의 공유에서 배제된 타자로 남게 된다. 더 나아가 그 타자는 자기의 이익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수탈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서양적 국가의 내적 모순이다.

그러나 5·18이 짧은 시간 동안 열어 보인 항쟁 공동체는 그런 서양적 국

가의 축소판이 아니다. 모든 공동체는 나와 너의 결속에 존립한다. 앞서 본 대로 키케로가 생각한 공화국의 결속 원리는 이익의 공유이다. 그리고 법의 지배는 이익의 균형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익의 공유를 위한 결속과 연대는 도구적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유할 수 없는 이익 앞에서는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만남인 것이다. 이에 반해 5·18항쟁 공동체는 이익의 공유를 위해 결속한 단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때문에 열리는 공동체이다. 국가가 압도적 폭력으로 시민을 공격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두 도망가야 할 것이다. 생존보다 더 중요한 이익도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시민이 도망한 빈 자리에 공동체가 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보존을 위해 도망치던 시민이 타인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항쟁 공동체는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5·18공동체를 가늠케 한 으뜸가는 결속의 원리는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다.

이 응답 속에서 주체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극복한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를 초월하는 것 속에서 서양적 국가의 이념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유의 이념이 계시되었다. 자유가 한갓 자기의 권리 주장이라면, 그런 자유는 동일성의 자기 확장일 것이다. 하지만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낳는 것은 생각하면 필연의 원리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다르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 타자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필연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자유를 내적 필연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외적 필연성이 타율적 강제인 데 반해, 내적 필연성은 자기 자신 속에 뿌리박은 충동이라는 점에서 자유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낳는다는 점에서 보자면,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내부로부터의 필연성이든 외부로부터의 필연성이든, 모두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낳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런 종류의 자유는 언제라도 자유가 아닌 필연성일 뿐이라는 논법이 등장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산 위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돌맹이의 운동을 두고 그것이 내적 필연성에 의한 운동인지 외적 필연성에 의한 운동인지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일 것이다. 어차피 내부적 동일성과 외부적 동일성이 동일성이라는 점에서 다를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스피노자는 구르는 돌맹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습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망상에 불과하다고 조롱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자기 동일성의 반복과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 속에 존립한다. 이를 통해 '달리 어쩔 수 없다'는 필연성의 정해진 경로에 틈이 벌어지고 동일성의 반복으로부터 타자성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된다. 동일성의 회로가 끊어질 때, 비로소 언제나 같은 원리 같은 법칙으로 운행하는 진부한 세계, 낡은 세계가 파국에 이르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적 필연성이라는 사이버 자유가 아닌 창조적 능력으로서의 참된 자유도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너로부터 도래한다. 그것은 나에게 들려오는 타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이다. 그 절규에 응답하라고 나에게 강요하는 필연성은 없다. 내적 필연성도 외적 필연성도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은 아무 이유도 까닭도 없는 나의 자유로운 결정이다. 그 자유로운 결정으로 내가 타인의 고통에 손 내밀어 응답할 때, 거기서 하나의 만남이 일어난다. 그 만남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한 사람의 일로 그치지 않고 만 사람의 일로 확장될 때, 만남들은 다시 한데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일정한 형식 속에서 지속적인 존재를 얻을 때, 그것이 나라인 것이다.

5·18공동체는 열흘로 막을 내렸으니, 아직 나라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열흘 동안의 항쟁 공동체 속에서 참된 나라의 형성원리가 계시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기의 권리주장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 위에 열리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끝은 아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자기부정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고통의 부정, 고통의 제거를 의욕하는 것과 같다. 고통의 원인은 국가 폭력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참여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적극적 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저항은 항쟁이 되고, 나와 너의 만남은 공동

의 수난과 수동성으로부터 공동의 능동성으로 전환된다. 그 능동성 속에서 자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이 능동성은 나로부터 너로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고 나와 네가 더불어 수행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서로주체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네가 서로주체로서 세계의 폭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서로주체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통에 대한 응답은 만남을 촉발하지만 지속적인 보존의 원리는 아니다. 너와 내가 나는 나, 너는 너로 분리된 속절없는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지속적인 서로주체성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같이 먹어야 한다. 같이 먹음이 같이 삶이요, 같이 삶이 같이 존재함이기 때문이다. 그 존재의 서로주체성이 바로 주먹밥의 나눔을 통해 일어났다. 주먹밥은 나만을 위해 축적하는 자산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평등한 식탁으로 부름으로써 공동의 존재, 또는 존재의 서로주체성을 담보해주는 일용할 양식인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 그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에 대한 공동의 투쟁 그리고 같이 싸우기 위해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5·18항쟁 공동체의 본질적 진리를 이루는 세 가지 계기이다. 이것은 폭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의 형성원리이다. 그리고 헌혈의 피와, 총과 수류탄 같은 무기와 주먹밥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상, [기독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성육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의 권리와 너의 고통 사이에서

그러나 우리는 항쟁공동체의 세 가지 계기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원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장 항쟁도 주먹밥도 모두 피흘리는 이웃을 향해 죽음의 공포를 잊고 달려가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언제나 타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실현일 것이다. 5·18은 그런 하늘나라의 모습을 계시해 보여주었다. 그것이 5·18의 영속적 의미이다. 그러나 계시된 하늘나라가 실현된 하늘나라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에서 계시된 하늘나라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5·18의 뜻을 이어가는 일일 것이다.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보다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존재의 중력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필연성인 것이다. 그 무게에 짓눌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 그러나 5·18은 자기의 안위와 권리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염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자연적 필연성의 원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인간의 인격적 만남에서는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순간에 필연의 굴레에 매여 살던 인간이 자유로운 인격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는 나의 존재는 그 날 그 자리에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자기의 존재를 지키는 것을 포기했던 분들의 결단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생각하면 그 빚지고 있음에 대한 자각이 5·18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불러왔고 그 응답이 다시 부름이 되어 또 다른 응답을 부른 것이 그 이후 모든 항쟁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런 응답의 이어달리기를 통해, 구한말(舊韓末) 절망밖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던 이 겨레가 불완전하나마 지금 이 자리까지 나아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 휴전선의 경계, 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를 넘어 그 응답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그리하여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자기의 권리와 이익이 아니라 남의 고통에 먼저 응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지금 여기 살아남은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자기의 권리와 타인의 고통 사이에서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전진희(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먼저 광주정신포럼에서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봉 교수님의 글을 통해 역사적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5·18, 즉 역사적 배경, 사건의 전개, 책임자처벌의 문제 등을 뛰어넘어 5·18이 갖는 철학적 함의와 세계사적 의미까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 안에 존재하는 5·18의 기억과도 인격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상봉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인적으로는 본 토론문을 쓰는 과정 자체가 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5·18을 끄집어내고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머리와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5·18에 대한 물음에 응답하는 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5·18에 관한 전문적 연구자가 아니므로, 토론이라기보다 김상봉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떠 오른 단상을 적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5·18에 관한 저의 설익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나의 권리와 너의 고통사이의 인격적 만남과 대화_5·18을 읊조리다.

그 잔인했던 폭력의 경험, 하지만 따뜻했던 그 인간애의 경험을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열흘간의 항쟁으로 국한 할 수 있을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던 그 고통과 분노의 힘으로, 살아남은 자가 저야할 역사의 무게는 무엇이었을까. 왜 광주학살이 아닌 광주민중항쟁이 되었는가? 그런

데 왜 ‘광주민중화운동’으로 명명되었는가? 항쟁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 이름이 중요한가? 왜 ‘오월광주’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이자 산실이 되었는가? 집단발포의 신호탄이 된 ‘애국가’, 그리고 그 집단발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울음을 머금고 불렀던 ‘애국가’와 그들의 몸에 휘감았던 태극기, 이 아이러니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왜 기억해야 하는가? 역사 앞에 그리고 인간이기 위해 우리는 내심의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항쟁의 마지막 그날 27일 새벽, 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억으로 남은 ‘오월 광주’.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두렵지 않았을까? 무엇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청에 남게 했을까? 광주의 모든 이들이 마지막까지 고뇌했을 것이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라고 했던 이들 때문이었을까. 전국에 광주의 불씨가 지펴졌고, 2019년에는 홍콩의 시위현장에서도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울려 퍼졌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상봉 교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바와 같이 5·18의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5·18의 세계사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 ‘5·18의 역사적 의미가 분명하게 정립되고, 보편적으로 공감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 정치적 위상만 부각되는 불균형은 5·18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18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부마항쟁도 담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읽고 보니 5·18이 6월 항쟁, 부마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다른 유사사건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5·18의 세계사적 의미를 참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적 의미를 규정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집니다. 5·18의 세계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광주 행정의 키워드가 되어 버린 ‘민주·인권·평화’나 ‘파리코뮌’이나 ‘68혁명’에 비견되는 것, 혹은 지금까지 정의되어 온

‘민주화운동’ 혹은 ‘민중항쟁’을 넘어 5·18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정의내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2. 빚지고 있다는 자각에 대하여.

평목향에서 유독 눈에 띈 프랑이 있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이미 고통을 겪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던진 메시지였기에 더욱 절절했다. 나의 권리와 너의 고통사이에서의 인격적 만남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의문을 이어가던 중 불경스럽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월호를 겪기 전에도, 광주에 아픔을 모두 다 알고 느끼고 있었을까.

나의 고통이 되었을 때만 타인의 고통이 단순히 나와 다른 타자로서 존재하는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서사가 되었을 때 그 처절한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알을 깨고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너무 끔찍하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타인의 고통의 존재와 무게를 근본적으로 공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에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 버린다. 그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일까. 느낄 수 없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나의 고통 이외에도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고통의 무게를 덜기 위해 거들 수 있는 손이 있다. 나의 사지육신이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왜 나에게 붙어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틀, 사고방식을 깨는 것은 너무도 쉽지 않다. 자신의 존재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 초월적 존재인 것 마냥 나와 너의 합일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나의 권리와 너의 고통사이의 인격적 만남,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는 자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5·18당시 광주의 시민들은 왜, 자신의 생명, 생존에 대

한 보호의 욕구 등 가장 원초적인 것들로 둘러싸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공동체’ 혹은 ‘해방광주’등으로 명명되거나 불리는 광주공동체, 즉 항쟁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빛진 자들과 자각한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광주정신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대중적·보편적 의미의 5·18정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지만 모두 주체가 되어.

교수님께서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나와 너로 분리된 자아, 서구적 개념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의 분출로서의 제국주의와 타자의 배제에 동참하는 자유를 갈구하는 주체인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서로주체성’을 확인하며 그 안에서 ‘성육신’한 사랑을 구현한 항쟁의 공동체가 바로 5·18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키케로의 ‘공화국’의 개념을 언급하시면서 “공화국이란 모든 인민에게 속한 것으로 이익의 공유와 법률이 확립에 존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키케로가 언급한 공화국의 결속원리인 이익의 공유는 도구적 개념장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5·18공동체의 결속의 원리라고 언급하신 타인의 고통에 응답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즉 5·18공동체에서 구현된 서로주체성을 구현해 낸 ‘궁극의 자유’의 실현과 ‘성육신’한 사랑이 공화주의라는 이념 속에 구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함석헌선생님이 말씀하신 ‘나라’라는 의미로 환언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기억하는 자와 기억해야 하는 자, 왜 우리는 5·18을 기억하라고 말하는가.

내년은 5·18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진다. 여전히 5·18을 떠올리면 울컥하며 북받치는 덩어리가 목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가슴으로 내려가 딱딱하게 하지만 5·18기념행사들은 예전만큼 감동적이지 않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5·18을 경험한 나는 5·18을 기억하는 자이다. 그러나 나조차도 박제된 것 같은 5·18기념물을 보면 아무런 감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광주에 있었건, 광주밖에 있었건 각자의 기억과 경험 속에 남은 5·18이 있을 것이다. 지나가버린 역사적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머무르는 공간과 내 결의 현실 속에 5·18은 퇴색된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광주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로서 존재하고, 기억되는 5·18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5·18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이다.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조차 일상의 삶과 5·18은 유리되어 있다. 이런 내가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5·18을 기억하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안다. 나도 그리고 후속세대도 먼 미래세대도 5·18을 기억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박제화 된 기억의 전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만한 기억의 전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교수님께서 발표문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과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를 넘어 그 응답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자기의 권리와 이익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고통에 먼저 응답하는 방식으로 5·18항쟁공동체의 정신을 구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5. 에필로그

팔열 횡대로 자리 잡은 병사들이 일제히 총구를 시민들을 향해 겨누었다.

설마 총을 쓰기야 하라. 십오만, 아니 이십만. 헤아릴 수도 없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향해. 시민들 사이에 잠깐 동안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어디선가 갑자기 ‘애국가’가 흘러나온다. 도청 옥상의 네 방향으로 설치된 대형 스피커였다. 바로 그 순간.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시작했다.

「애국가」. 시민들이 일제히 합창하기 시작한다. 느리고도 장중한 곡조의 그 노래는 마침내 온 시가지를 뒤흔들며 폭포처럼 메아리친다. 일절이 끝나고 다시 똑같은 노래가 반복되는 사이, 숨어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몰려나와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다. 골목과 골목, 건물 입구와 계단마다 시민들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대열은 오백 명, 칠백 명, 천오백 명……어느새 수천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노래가 멎었고,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살인마 공수부대 물러가라앗!” “광주 시민 만세에!” 이내 누군가의 입에서 처절한 구호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대열의 훨씬 앞쪽, 텅 빈 차도 안으로 태극기를 든 청년 대여섯 명이 돌연 튀어나갔다. 청년들은 차도 한가운데 멈춰선다. 공수부대 쪽을 향해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구호를 외친다.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 순간 ‘앉아 썩’ 자세를 취하고 있던 공수부대 저격수들이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타타-양. 타타타타타-양. 청년들이 툭툭 나가떨어진다. 태극기가 흘러당길바닥으로 굴렀다. 마지막으로 달아나던 청년마저 쓰러졌다. 머리와 가슴패기에서 검붉은 피가 쿵쿵 쏟아진다. 아스팔트 바닥이 흥건히 젖었다.

이내 또 다른 청년들 네댓 명이 차도로 뛰어나갔다. 길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태극기를 집어 들고 힘차게 흔들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타타타타탕. 다시금 총성이 터지고, 청년들은 짚단처럼 맥없이 푹푹 고꾸라졌다. 총성은 주변 고층 건물 옥상에서도 터져 나왔다. 저격수들이 보인다. 그들의 사격 솜씨는 한 발의 실수도 없다. 그러자 또 다른 청년들 서넛이 차도로 뛰어 들었다. “이놈들아, 죽여라아! 이 살인마들아앗!” 청년 하나가 옷통을 벗어 제치며 악을 썼다. 타타타타타타타……

수백 개의 총구가 한꺼번에 토해내는 어마어마한 총성. 총성. 총성. 허공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있는 병사들의 뒤통수를 마구 후려친다. 옆구리를 발길로 걷어차기도 한다. 엉겁결에 병사들의 총구가 아래로 각도를 숙였다.

타타타타타타타 마침내 시민들을 향해 집중 사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정적. 어디선가 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흐느끼고 있었다. “야, 이 개새끼들아아앗!” 분노와 절망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온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목구멍을 찢어내는 듯한 절규와 통곡 소리. 건물 벽에 바싹 붙어선 채, 혹은 담벼락 뒤에 숨어서, 혹은 빌딩 창가에 머리만 내놓은 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치밀하고도 계속적인 살육 현장을 지켜보면서, 경악과 분노, 절망과 충격에 온몸을 부득부들 떨어대며 미친 듯 통곡하고, 흐느끼고, 절규했다.¹⁾

1) 임철우, 봄날4, 문학과 지성사, 65-70쪽에 있는 일부 내용을 재구성.

자기의 권리와 타인의 고통 사이에서 :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하여

김정환(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김상봉 선생님은 5·18의 철학 또는 오월의 철학을 고민하고 사유하는 드문 철학자이다. 오늘 발표문에서는 보편적 세계사와 한국 민중항쟁의 역사를 모두 아우르는 5·18의 철학이 무엇인지에 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 매우 적절하게도 한국 민중항쟁사를 국가권력(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이면서 동시에 세계사적 모순(제국주의-반식민지-식민지)과의 대결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1) 주권국가의 모순(“국가 속에서 시민들의 상호 결속과 연대는 언제나 시민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배제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속한다.”)을 고려한다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타인(또는 타자)는 국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예컨대 유태인 레비나스는 타자의 고통스런 얼굴을 봐야 한다고 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얼굴이 없다고 했다.)

2) 한국의 반식민성을 강조하는 경우 민주주의를 소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이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

- 3.1운동, 4.19가 비폭력이고, 4.3이 무위(無爲)의 저항이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5·18항쟁이 제시했던 ‘새로운 세계’는 어떤 것일까?

4) 5·18의 세계적 의미를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5·18, 또는 새로운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 I

일 시 2019. 11. 19.(화) 19:30
장 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주 최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주 관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발표 및 토론

진 행 김꽃비(광주로 이사)

발 표 1 **일상에서 부드러운 방법으로
광주의 5월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박은현(‘광주의 오월’오르골)

발 표 2 **지금, 5월의 햇불이 비춰야 할 곳은 어디일까?**

김 설(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발 표 3 **밥먹듯이 기억하는 5월의 광주·5월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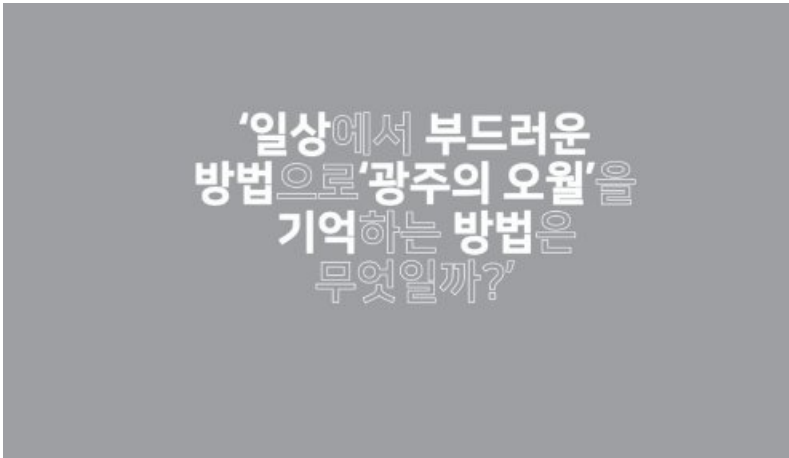
김소진(장동콜렉티브)

발 표 4 **청춘들의 5월**

박경록(5贈청춘서포터즈 ‘오월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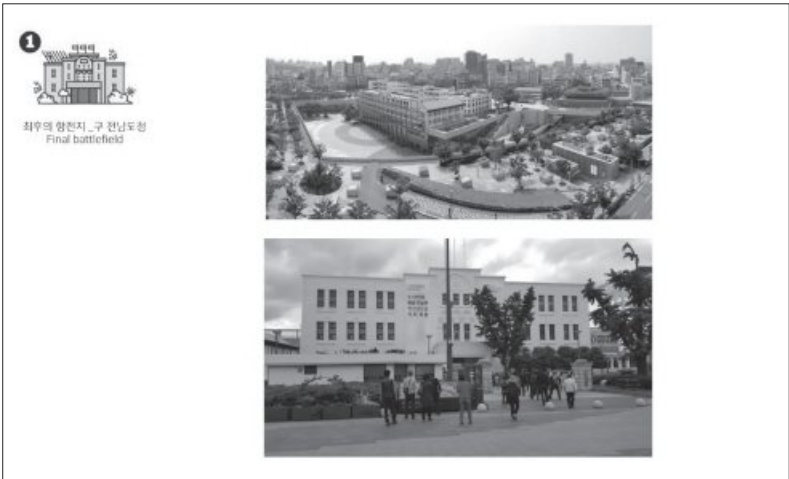
일상에서 부드러운 방법으로 광주의 5월을 기억하는 방법을 무엇일까?

박은현(‘광주의 오월’ 오르골)



다 양 성
지글-여기-가짜이
종양이 아닌 번두리





2



한글 끝까지 지킨 포상환 열사
Puro



3



시인들의 애국시인, 도성 앞 분수대
Square



4



여들의 여가-호봉의 켄
Candlelight Struggle



5



요금 없는 행동-택시기사들
Taxi driver



6



시흥의 주민, '남송위(南松圍)' 원곡 악보
Original score



MIX OF GWANGJU

이벤트 소개
이벤트 소개: 이 프로젝트는 광주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OBJECT INFORMATION

- 1. 전시 공간**
이벤트 공간은 광주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 2. 전시 시간**
이벤트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열립니다.
- 3. 전시 대상**
이벤트는 18세 이상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4. 전시 방법**
이벤트는 전시물과 함께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 5. 전시 내용**
이벤트는 전시물과 함께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
이벤트 신청은 광주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이벤트 신청처
이벤트 신청처는 광주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이벤트 신청기간
이벤트 신청기간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입니다.

이벤트 신청대상
이벤트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시민입니다.

이벤트 신청방법
이벤트 신청방법은 광주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이벤트 신청비용
이벤트 신청비용은 광주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이벤트 신청문의
이벤트 신청문의는 광주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오르골로 일상에서 부드럽게 '우리의 역사'를 느껴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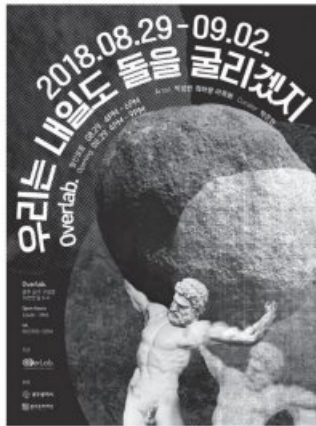
판매가 3,413,000원 119%

판매가 0원

판매가 91%



누가
'5·18'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까?





지금, 5월의 햇불이 비추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김 설(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내년이면 5·1840년. 지구적 시간에 빚대어보자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 긴 세월이 흘러버렸다. 40년 전 5월은 무엇이었는가. 5월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마치 5·18은 수많은 정의들과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어찌면 황량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나는 왜 다시 5월을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지금의 시기만큼 그 뜨거웠던 5월의 햇불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지 않는가라는 나의 질문과 나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0년 전 5월, 정당성이 없는 군부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매우 권위적이고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조금 더 평등한 사회, 소외 받는 이가 없는 사회, 더불어 어울리는 대동 사회를 꿈꿨고, 그리고 그 힘은 한국사회 전체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큰 동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시민”이하고자 하였던 강한 열망이 그 거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5월의 햇불이 비추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그 곳은 선뜻 잘 잡히지 않는다. 이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해졌으며 교묘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광주, 5월이라고 하는 역사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 충분한가? 과연 그 정도이어도 충분한가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5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5월 새로운 광주의 정신과 가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5월의 햇불이 다시 타올라 밝혀야 할 곳은 어디일까.

김미숙 씨는 서부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운명을 달리한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이 토론회가 있기 1주일 전 11월 12일,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후 338일 만에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였

다. 그리고 그 338일 동안 제2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그 원인이었던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고 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기를 염원하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2018년 10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광주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그리고 올해 10월 제 2회 광주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를 개최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 나는 처음으로 내 트랜스젠더인 친구와 1회 퀴어문화 축제를 참여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멸시와 혐오의 눈과 언어들, 존재함 그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들의 폭력들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 가장 상처 받은 일은 신성한 5·18광장, 금남로에서 더러운 축제를 열게 할 수 없다는 5·18구속 부상자회의 현수막이었다.

광주의 본촌 산단, 평동 산단, 하남 산단의 황량한 거리를 걷다보면, 한국어 보다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중국어를 더욱 많이 듣게 되는 때가 있다. 현재 광산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1만 4천여 명, 광산구 전체 인구의 3.6%이고 대다수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재 은폐, 불법과건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디차기만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 지난 9월 20일에 있었던 직장갑질119 주최 직장내 괴롭힘 토론회에서 오진호 총괄스텝은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50일간 직장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오진호 총괄은 방지방 시행 이후 50일간 3,272건으로 제보를 운영하지 않은 20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04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51.9%가 괴롭힘과 관련된 제보였으며, 그 유형으로는 부당지시, 따돌림/차별, 폭행/폭언, 모욕/명예 훼손 등이 순을 이루었다. 이렇게 폭발적인 제보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이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고통의 공간이며 괴로움의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완성

된 민주주의 속에 누군가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폭력을 마주하고 이를 묵인하며 삶을 살아낸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과연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시민'인가? 다시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오월의 햇불이 다시 필요한 그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밥 먹듯이 기억하는 오월의 광주: 오월식탁

김소진(장동콜렉티브)

Question. ‘광주’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주를 주제로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SNS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이었다. “광주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무등산’ ‘비엔날레’ ‘유노윤호’ ‘수지’ 등 다양한 대답이 돌아왔다. 이처럼 다양한 대답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건 ‘5·18민주화운동’이었다.

“광주는 5·18 말고 뭐가 없나? 왜 5·18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아무리 뼈아픈 역사라지만 가끔은 부담되기도 하고…….”

“저번에 일하는데 어떤 관광객이 ‘광주는 5·18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더라고.”

“학교에서 5·18 정신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주먹밥을 쥐. 영상 같은 거 보고, ‘화려한 휴가’ 이런 영화 단골로 보지. 그리고 5월이면 덥잖아. 그때 묘지가면 진짜 애들이 다 괴로운 표정으로 해설사 선생님 따라다니고, 선생님들도 해설사분들께 ‘어차피 애들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적당히 끝내 달라’ 이러시기도 하고…….”

광주에 애정을 가지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 화하고 있는 우리는 궁금해졌다. 어쩌다 우리는 5·18을 이런 식으로 기억하게 됐을까?

Question. 어떻게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기억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5·18을 주제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나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열어져 가는 5·18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억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영화와 소설에서 다뤄지는 잔혹한 이미지와 10일간의 투쟁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완성한 절대 공동체의 숭고함과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총을 들었던 시민군 이야기보다 주먹밥을 만들고 일상을 지켰던 여성들, 항쟁의 이야기보다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살았는지를 알리고 싶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가 아닌 ‘인간이 이렇게 숭고하고 고귀할 수 있구나’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하나가 된 절대공동체 광주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존재했음을 알게 된다면 ‘스스로’ ‘함께’ 5·18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특히 당시 여성들이 보여줬던 타인을 향한 연민과 돌봄, 연대와 공동체 의식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을지, 여전히 유효한 가치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지켜나가고 싶었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 광주 밖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요리’와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일상에서 밥 먹듯이 오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오월 식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Question. 우리는 왜 요리를 시작했을까?

우리가 밥과 요리에 주목한 이유는 삶과 일상의 중심에 음식이 자리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밥은 먹었냐’고 안부를 묻고, ‘밥 한 번 살게’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 우리의 일상이 밥으로 채워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역사적 기록이 아닌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상을 지켜준 음식 이야기를 모

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요리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였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흔치않은 기회이자, 요리를 하는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을 돌보려는 마음이 담긴 행위였다. 이처럼 요리가 돌봄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행위라면 요리에 참여하고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

럽게 기억에 동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TV 프로그램이 연예인과 셰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리는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필요성을 느끼며 즐기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담긴 음식들을 직접 요리하고 식탁에 올림으로써 5·18과 시간적 거리가 있는 후속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기억에 동참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오월식탁은 요리를 통해 연대기적 역사 공부가 아닌 여성들의 생생한 삶을 듣고 돌봄과 연대 공동체라는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치들을 지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18과 시간적 거리가 있는 후속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기억에 동참하고 상처를 꺾을 수 없도록 생생한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건의 잔혹함과 폭력성에 주목하기보다 '떡방'과 '국방'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그날의 광주에도 우리의 일상처럼 밥을 안치고,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며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존재했음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소망하고 있다.

Question. 오월식탁의 동영상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월식탁은 5·18을 겪은 광주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지켜준 다양한 음식들을 조사하고, 이를 레시피로 정리하여 직접 요리함으로써 '밥 먹듯이' 5·18을 기억해보고자 한다. 또한 요리 과정과 시식 과정에 자연스럽게 광주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더 많은 이들과 광주의 오월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월식탁의 동영상 콘텐츠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1. 할머니를 만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다. 무작정 찾아가 '5·18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요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가 제철인지 등 요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풀어진다. 할머니께서 긴장이 조금 풀리셨다 싶으면 5·18에 대한 기억, 당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 끝에는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기억과 관련한, 또는 주제에 맞는 음식의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린 후 이를 녹취한다.

2.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레시피를 토대로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는다. 할머니만의 요리 비결, 재료를 고르는 비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완성된 요리는 주제에 맞는 게스트를 초대해 시식을 부탁한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5·18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 할머니께 여쭙보고 싶은 내용이나 평소 5·18에 대해 궁금했던 점 등을 함께 나눈다.

4.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할머니를 찾아뵈다. 궁금했던 이야기를 질문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

Question. 오월식탁은 어떻게 기억될까?

콘텐츠를 제작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고 뜻밖의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여름에는 '할머니'와 '뉴트로'를 주제로 서울 연희동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해 타 지역의 젊은 세대들과 5·18을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별미 설탕국수를 소개하는 한편 국수 재료를 전시장에 비치해 관람객들이 직접 요리를 하고 광주의 오월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광주의 오월을 이야기하는 다른 청년들과 만남의 기회도 생겼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들과 오월식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월식탁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 단계에 있다. 동영상에 담아 내지 못한 이야기를 지역 독립출판사와 함께 요리책으로 제작하거나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해 전시, ‘이야기가 있는 도시락’팝업 스토어, ‘할머니가 알려주는 요리 교실’등을 운영하는 날을 꿈꿔보기도 한다. 광주에 계신 모든 할머니들을 만나 뵙는 날까지 밥상마다 찾아오는 오월, 오월식탁 프로젝트는 계속될 예정이다.

발제자 장동콜렉티브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큐레이터 콜렉티브로 사회, 문화 속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한 예술 실천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 뒤에 따라붙는 말들 예술 ‘행동’‘변화’‘평등’‘자유’와 ‘재미’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언급하며 함께 꿈꿨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예술가들,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세대 작업자들과 함께 ‘어떤 일들’과 ‘없던 일들’을 도모한다. (instagramID: @jangdong_collective)

* 일상을 지켜준 음식에 담긴 광주·여성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 ‘오월식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5maytable과 YouTube 오월식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의 얼굴은 과거 국가권력과 구사대의 폭력 속에서 일상 속으로 그리고 개인들 속으로 느슨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스며들어 얼굴을 달리했을 뿐 그 본질의 궤는 함께 하고 있다. 그렇기에 여전히 광주의 5월, 그 뜨거운 햇불이 또 다시 이 사회를 한 발 더 내딛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꿈꾸고 바라야 하는 이유이다.

5·18청춘서포터즈 ‘오월있다’ _ 청춘들의 오월

박경록(5·18청춘서포터즈 ‘오월있다’ 대학생회 총회장)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5·18청춘서포터즈 ‘오월있다’ 대학생회 총회장 박경록입니다.

<단체결성 배경 및 소개>

먼저 오월있다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2018년 05월 18일 고등학생회 정식 출범을 시작으로 2019년 05월 18일 대학생회가 출범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명의 청소년·청년 회원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회원 확대>

회원 수는 2017년 약 10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학교별 동아리 연합형식으로 2018년 70여명, 2019년 현재 6개교 약 100여명의 회원님들께서 활동 중이며 주로 17세 ~ 20세가 활동합니다. 학교별로 예를 들면 ‘상무고등학교 오월있다

박하’식으로 별칭을 사용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회, 대학생회,

청년회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

5·18청춘서포터즈 ‘오월있다’는 아래와 같이 활동합니다.

- 5·18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투쟁

[도청] 800일 후원의 밥집 자원봉사, 1000일 사진촬영
[오월 어머니] 크리스마스 몰래 산타 퍼포먼스 /
새해, 어버이날 도청 어머님들께
인사드리기

5·18민중항쟁 사적지 탐방

[사무식] 국립5·18민주묘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의 묘역
[역사 탐방] 광주 지역 (금남로 일대, 상무지구, 지원동, 망월동)

- 5·18민중항쟁 학습

[오월 역사 해설사] 회장단 중심 이수 준비 중
[학습] 학교별 역사 탐방 진행 및 스터디

행사참여

[행진]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 100인청소년자원봉사자’,
‘이석기의원 석방대회’
[대회사, 연대 발언, 울동]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폐기! 광주시민대회’

- 기타 활동

단합대회, 체육대회, 수련회, 등

5·18과 여성,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방향 모색

일 시 2019. 11. 27.(수) 13:00~15:00
장 소 광주여성가족재단 8층 강의실
주최/주관 광주여성가족재단
협 력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표 및 토론

- 좌 장 안 진(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표 1 5월항쟁과 여성의 투쟁
전용호(광주광역시 상임옴부즈맨)
- 토 론 1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오월 여성 정신 계승과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윤청자(오월민주여성회 회장)
- 토 론 2 5월 항쟁과 여성의 투쟁
정현애(오월어머니집 이사장)
- 토 론 3 장세레나(광주여성회 대표)
- 발 표 4 5월항쟁 여성 담론의 재구성과 문화화가 요구 된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토 론 5 5월 여성 정신 계승을 위한 제언
김경례(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본 발제문·토론문은 발제자·토론자 개인의 의견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5월항쟁과 여성의 투쟁

전용호(광주시 상임인권옹호부즈맨, 작가)

■ 5월항쟁 이전 여성 활동 상황

- 광주YWCA : 조아라(1912) 회장, 이애신 총무, 김경천(1941) 간사 등 중심 인물. 1970년대 후반부터 민주인사 초청 강좌, 민주회복 기도회 등 개최, 학생운동 청년운동 재야운동과 활발한 연대. 1980년대 초, 민주화운동가 정유아, 이운정(1955)을 사회문제부, 농촌문제부 간사로 영입
- 송백회 : 1978년 12월 결성. 회비로 운영하며 소모임을 구성하여 학습회 운영. 털양말 짜서 교도소의 양심수에게 넣어주기 등 활동. 송백회 초대 회장은 강신석 목사 부인인 나혜영이 맡았다. 목사 부인이 회장을 맡게 된 것은 목사, 신부 등 성직자는 사찰당국으로부터 민간인보다 탄압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었다. 실질적인 송백회 활동의 핵심 활동가는 홍희운 총무, 기독교청년 활동가 김은경, 윤경자, 부활절벽화사건과 3·1절유인물배포 사건으로 구금되었던, 임영희(1956), 동부교회 빛고을 청년회원인 이운정, 교사 박인숙, 이소라(고인), 박경희, 정현애(1952) 등 민청학련 관련 부인들 등 전남·광주지역 민주인사가족들로서 이미 민주화운동선상에서 고초와 폭압을 당한 여성들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 노동운동 :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지오씨) 여성 활동가. 전남방직, 일신방직, 광주어망, 남해어망, 호남전기 등 여성 노동자들이 소모임을 조직하여 교육 등 훈련. 김성애(1956, 고인), 정향자(1952), 윤청자(1958), 김순이(1960) 등
- 전남대 : 1978-79년 대학 이념서클 들불야학 등에서 훈련된 여성 학생운동가 박현옥(1956), 김금해(1956), 박기순(1958, 고인), 신민정(1957), 고희

- 숙(1959), 김경희(1958), 김정희(1958), 박유순(1959), 안진(1959) 등 배출.
 1980년 전남대 여성문제연구회 발족. 총학생회 발족 여학생부장 정경자.
 - 조선대 : 지하에서 소모임 형태의 이념서클에서 여성 학생운동가 배출. 류소영(1959), 모애금(1958), 이명희(1958), 안은경(1959) 등

■ 5·18-21일 기간 여성 활동

- 18일 0시, 류소영(조선대) 예비검속

• 연락의 중심이 된 녹두서점

- 18일 오전, 예비 검속된 민주화운동가 부인, 가족 등 녹두서점으로 연락, 대책 회의.
- 송백회 활동가, 학생운동, 청년운동 등 활동가들이 시내에 있는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연락을 취하며 시위에 참여

• 혜성같이 나타난 가두방송 여성 활동가

- 전옥주(춘심, 1950) : 전남 보성 출신. 여행을 하다 19일 저녁 광주 오빠 집 도착,
- 차명숙(1961) : 나주 친척집에서 살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광주의 양재학원에 다니다가 5월항쟁에 참여.
- 차명숙은 19일, 전춘심은 20일 오전 경부터 금남로 등 시내에서 시위에 합류. 시위대원들과 방송기구 확보 여성 특유의 선동적인 목소리로 시위대를 이끌. 20일 밤을 꼬박 새우고 21일 아침 광주역에서 발견한 2구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다니며 가두방송, 21일 오후 1시 공수부대 총격 직전까지 시위대를 지휘. 21일 오전 전춘심 시민대표단의 일원으로 도청에서 회담.
- 22일, 시간 미상,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시내에서 가두방송 중인 전춘심을 수상하다고 붙잡아 화정동 육군병원의 계엄군에게 인계.
- 22일, 시간 미상, 시내에서 부상자 구호활동하던 차명숙에게 전춘심 접근,

어디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 따라갔더니 광주 보안대에 체포.

- 당시 광주시청 직원 정0길 씨 구술, 자기가 전춘심 등을 연행해서 군부대에 인계 주장.

전춘심, 차명숙 체포 경위 규명되어야

• 여성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 여성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

5월 20일 시내에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도청으로 가기 위해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다. (중략) 일신방직 앞에서는 아가씨들이 수건에다 물을 묻혀 나눠주고 있었다. 나도 아가씨들한테 수건을 받아서 얼굴을(코 아래) 가렸다. 그때는 운전수도 다 죽인다고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차에는 일신방직 아가씨 30여 명이 올라탔는데 사람들이 나주로 가자고 했다. (증언 오역석, 남, 부상자)

5.21일, 우리 버스에는 남자 열댓 명과 여자 열 명이 있었다. 남자들은 전투에 대비해 창밖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고 여성 노동자들은 통로에 앉아 있었다. 누구의 입에서 시작되었는지 여성 노동자들이 울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죽음으로 가는 길, 용기를 주라는 내용 같았다. 찬송가를 들으면서 밖을 보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총을 들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평온하고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 후로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증언 이덕준, 현사연)

■ 5.22-26일 기간 여성 활동

• 궐기대회, 대자보, 가두방송, 모금 등 홍보 및 지원활동

- 궐기대회, 가두방송 : 극단 광대 - 최인선(1959), 이현주(1959), 임희숙(1960), 김영희(1959)
- 투사회보 : 들불야학 - 오정숙(1961), 이영주(1960) 노영란, 조순임 등

- 궤기대회, 모금, 헌혈, 대자보 : 송백희 - 홍희운, 이윤정, 임영희, 정유아, 김은경
- 모금, 헌혈, 대자보, 취사 :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지오씨) 여성 활동가
- 재야수습대책위원회 : 광주YWCA 조아라, 이애신 등
- 대학생수습대책위원회 : 김선옥(1959, 전남대 학생)
- 간호활동 : 이경희(1959, 대학생), 김순희(1961, 주남마을 앞 도로 미니버스 총격 때 접근)
- 가두방송 : 박영순(1959, 대학생) 등
- 기타 지원활동 : 사체 관리용 마스크 제작(송희성)

■ 가두방송 홍보반

항쟁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두방송에 참여했다. 19일에는 시위군중들이 즉석에서 모금하여 방송장비를 구입하였다. 진압봉과 대검, 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필요했던 것이다. 시위가 한창 고조되던 20일과 21일에는 동사무소 등 여러 군데 관공서에서 방송장비를 가져다 사용했다. 항쟁 후 광주시가 조사한 관공서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메가폰 피해사항 표’를 보면 전옥주나 차명숙 뿐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자발적으로 가두방송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광주항쟁시기 앰프, 스피커, 마이크, 메가폰 피해사항¹⁾

장소(동네)	내용	일시	앰프	스피커	마이크	메가폰
광주문화방송 주식회사						
민방위시설장비 기업체	탈취	5.20~26				36+39
광주중앙국민학교	탈취		1			
광주백운국민학교					2	2

1) 위의 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21권, ‘행정기관 소장문서 중 광주사태 피해현황 관련 문서’들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했다.

장소(동네)	내용	일시	앰프	스피카	마이크	메가폰
광주봉주국민학교					2	
광주고등학교			1	1	2	
광주소방서	차량피탈로 손실		4			
동구 대금동 동사무소				2		1
동명1동 동사무소						1
계림2동 동사무소						3
산수1동 동사무소	피탈					4
삼성동 동사무소						4
서석2동 동사무소			1	1		
학운동 동사무소	김○○외 전대생 4명 억압적으로 피탈	5.20 21:30	1		3	
동명1동 동사무소	데모대 침입 갈취		1	1		1
정○○	데모대 침입 갈취		1	1		
○○전파사	데모대 침입 갈취				2	
계림1동 ○○교회			1	1	1	
계림3동 김○○		5.21 09:00	2	2	2	
산수2동 동사무소		5.22	1	1		
학운동			1	2	3	1
주월동	조대생 5명에게 피탈	5.21 11:10				10
광천동 파출소			1			1
서구 양림동			1	1		
사구동	난동자에게 피탈					4
월산1동 동사무소	데모대에 탈취			1		
월산1동 중대본부	데모대에 탈취		1	1		
월산2동 동사무소	피탈		1			4
월산 4동	동사무소에서 데모대원들에게 피탈	5.21 08:00				2
복구						10
유동동사무소			1	1		
풍향1동			1			1
총금동			1		1	
화내동			1		1	
계			23	16	19	126

문서 <‘무기회수 및 기타 피해신고 접수상황 복명서의 집계표’ 1980. 6월중>를 보면 ‘피해신고 접수상황’중 “앰프, 스피카, 마이크, 메가폰 류”의 피해내용은 동구 19, 서구 5, 계 24로 기록되어 있다.

22일 이후에도 도청을 중심으로 여러 대의 방송 차량이 활동을 하였다. YWCA청년학생 홍보본부는 23일부터 전남대 스쿨버스로 가두방송을 하면서 항쟁지도부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파하였다. 홍보 차량에다 투사 회보를 싣고 다니면서 뿌렸다. 전남대 스쿨버스 방송차량은 주로 극단 광대 팀의 이현주, 최인선, 송백희의 임영희 등이 운용했다. 도청에 홍보팀이 있었다. 홍보차량은 '홍보차량'이라고 페인트로 표시했고, 홍보 1호차는 4.5t 페퍼포크 차였고, 2호차는 2.5t의 경찰 시위진압용, 3호차부터는 도청 승용차를 이용했다.

도청에서 직접 방송을 하기도 했다. 상황실 안에 방송실의 고성능 방송장비를 이용해 22일부터 26일까지 사망자 신원, 행사일정, 행동수칙 등을 알렸다. 김선옥, 이경희 등 여성들이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메시지를 방송했다. 27일 새벽 도청 상황실에서 마지막 방송을 담당했던 사람은 박영순(21세, 여, 송원전문대 2학년)이었다. 박영순은 23일부터 이흥철(18세, 음악 DJ) 등과 함께 방송차량에 합류했다. 26일 저녁 가두방송을 마치고 도청에서 머물게 됐고, 27일 새벽 마지막 방송을 했다.

■ 궐기대회(5.23-26, 1차-5차)에서 낭독된 성명서

23일 3시 (1차 궐기대회)

- 목념/애국가/경과보고(이 꼭지는 5차까지 동일)
- 시민대표 성명서
- 노동자대표 성명서
- 농민대표 성명서
- 학생대표 성명서

24일 3시 (2차 궐기대회)

- 국민에게 드리는 글
- 꺾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 민주시(민주화여~)

- 계엄군과 광주시민
- 전두환화형식

25일 2시 (3차 궐기대회)

- 희생자 가족에게 드리는 글
- 전국 종교인에게 보내는 글
- 전국 민주학생에게 보내는 글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26일-4차 궐기대회(오전 8:30), 5차 궐기대회(오후3시)

- 한국정치의 문제점 (한국 정치보복사)
- 한국 경제구조의 모순
-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
-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 광주시민의 결의
- 시민 자유발언대 - 스님, 아주머니, 교사 등

■ 여성들의 취사활동

5월 22일부터 주소연(18세, 광주여고 3년) 등 여고생과 대학생, 주부들이 도청에 들어와 밥 짓는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하루 세끼 수백 명 분의 밥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다. 인력뿐만 아니라 대형 솥과 버너, 식기, 수저, 젓가락 등 취사도구도 부족하고 식사할 장소도 여의치 않았다. 도청 민원실 지하 구내식당을 취사실로 사용하였다. 항쟁기간 중에는 아예 집에 들어갈 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밥을 먹어야 할 인원이 많았다. 구내식당은 비좁아서 밥만 짓는 취사실로 사용하고, 밥은 2층 강당으

로 옮겨 그곳에서 먹도록 했다. 24시간 계속해서 밥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2교대로 조를 편성하여 활동했다. 1조는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2조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 경까지였다. 식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먹밥을 많이 만들었다. 양동시장과 서방시장 아줌마들이 수시로 김치와 김밥을 광주리에 담아 리어카에 가득 실어 도청으로 가지고 왔다.

22일과 23일은 지역방위대들이 경계하고 있던 학동, 백운동, 산수동, 화정동에도 주먹밥을 만들어 보냈다. 24일이 지나자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씩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가 폭주하게 되었다. 취사 등 기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해방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취사반이나 상황실, 무기고 등에서 인원 보충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5일 김성룡 신부가 남동성당의 신자 정숙경(1955, 간호사)에게 도청에 와서 취사 등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녀는 김성애(1956, 세례명 로사리오)에게 JOC회원들이 도청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JOC회원들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이황(1955)이 운영하는 교육문화사에서 독서토론헌습에 참여하고 있던 이정(1950, 이황 누이)과 노동자들도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 JOC회원들은 이미 23일부터 YWCA에 모여서 헌혈, 모금, 대자보 작성, 검은 리본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때 참여한 JOC회원들은 정숙경, 김성애를 비롯, 호남전기 여성노동자 윤청자(1958), 신양희(1958), 최정남(1959)과, 김순이(1960, 가톨릭센터 근무), 임미령(1957, 남해어망) 등이었다. 이들이 25일 오전 도청에 들어가 3개 조로 편성하여 취사 등 지원활동을 본격적으로 맡았다.

양동시장에서 명태장사를 하던 김양애(고 박병규 모친)는 쌀을 거둬 김밥을 만든 다음 리어카에 싣고 도청에 가져다 줬다.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그녀는 아들을 찾으러 갔다 도청에서 학생들이 배를 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거둬 밥을 지었다. 쌀이 순식간에 한 가마나니 걸렸다. 양이 많아 식당에서 밥을 찌내고 양동시장 아낙네들을 모아 김밥을 썬다. 필요한 모든 재료는 양동시장에서 즉시 구입할 수 있었다. 물건을 스스로 내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누구나 일을 도와주었다. 양동시장 다른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만들고, 계란과 물을 준비하여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시위

대들에게 올려주었다. 도청에서 학생들은 몹시 배가 고팠던지 쌀 한 가마니 분량의 김밥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취사실에 있던 여성들은 26일 자정에 총을 받기 위하여 YMCA에서 도청으로 들어온 청년학생들에게 밤참으로 빵과 우유를 주고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본관 2층 부지사실에서 눈을 붙였다. 그때 부지사실에는 김순이와 광주여고 학생 주소연 등 십여명이 있었다. 새벽 2시경 계엄군이 들어온다고 웅성거리자 젊은 대학생 시민군들이 그녀들을 깨우며 피신하라고 했다. 그녀들은 시민군이 경계를 해주는 가운데 동명교회 문을 두들겨서 목사의 안내로 부설 유치원에 몸을 숨겼다. 그녀들은 대학생 시민군에게 그곳에서 함께 피신하자고 했지만 그는 도청으로 가봐야 한다며 기어이 발길을 돌렸다. 그 시민군은 박병규(동국대 학생)로 도청에서 아침에 계엄군의 총격에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녀들은 아침이 되어 2명씩 짝을 지어 교회를 빠져나왔다. 그녀들은 도청의 시민군이 죽거나 체포된 줄 모르고 아침밥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근처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청을 바라봤다. 도청에는 이미 군인들이 짝 깔려있었다. 정숙경과 윤청자는 다른 곳에서 있다가 청년 시민군의 경호를 받으며 도청 뒤의 남동성당으로 피신하였다.

“나는 대학생 한 명과 함께 YWCA 1층 회의실에 배치받고 경계를 서고 있는데 도청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2층에서 한 청년이 허겁지겁 뛰어와서 도청을 향해 총을 쏘라고 했다. YWCA 1층에서 도청을 향해 지원사격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나 공중을 향해 무조건 발포했다. 잠시 후 공수들이 YWCA를 향해 발포하자 나는 기어서 부엌으로 갔다. 전일빌딩 옥상에서 공수 2명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이 보였다. 여기저기에서 총에 맞아 질러대는 고탄소리, 신음소리가 들렸다. ‘총에 맞았으니 그만 싸라’고 외쳤으나 총성은 그치지 않았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총알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나와 함께 있던 여학생은 가슴에 총을 맞아 등에 구멍이 뚫렸다. 그 여학생은 어깨를 심하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학생이 ‘총에 맞았으니 그만 싸라’고 하자 ‘손을 들고 나와라’고 했다. 공수들이 그 여학생을 보더니 ‘이 쌍년, 집에나 처박혀 있지 가시내가 뭐 하러 여기를 나와, 이런 년은 죽여야 돼’하면서 끌고 갔다. 포승줄에 묶여서 도청 쪽으로 가면서 얼핏 보니 공수들이 YWCA를 향해 사격을 하고 있었다.”(구술 : 이덕준, 현사연)

■ 27일 도청과 YWCA 등지에서 체포된 여성

- 27일 도청 체포자 : 이경희(상황실, 1960), 박영순(상황실, 1959), 박미숙(상황실, 1962), 김순희(조사반, 1961), 최남심(도청 마당, 1923, 김태종 모친), 박미양(1959, 도청 인근) 등
- YWCA 부상 및 체포자 : 김윤희(총상 부상, 1961, 전남대 학생), 강임아(1958), 이남순(1957)
- 녹두서점 체포자 : 정현애, 정현순

■ 5·18구속자 가족회 활동

- 1980년 6월 말 경, 홍남순 변호사, 정동년 가족 등 이 모여 '구속자 가족회'라는 명칭으로 모임 결성. 회장 윤이정(홍남순 변호사 부인), 부회장 안성례(명노근 전남대 교수 부인), 총무 이명자(정동년 부인), 회계 및 서기 노영숙(노준현 전남대 학생 누나), 10월 말 정현애 석방 합류, 남성 김정부(김종배 형), 홍기섭(홍남순 변호사 아들), 하일남(하영렬 구속자 형)
- 1980년 12월, 5·18피해 가족 30여명 천주교 피정센터에서 1박2일 합숙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모임 가짐. 단체 결성 필요성과 과제 등 논의
- 1981년 2월 17일 전두환 대통령 광주방문했을 때, 금남로 YMCA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두환이 탄 차량에 육탄돌진하는 사건 발생, 이 사건으로 일부 가족(장삼남 - 구속자 박철 광주교 3년 어머니, 하일남 - 구속자 하영렬의 형)이 광주경찰서에 끌려가 물고문 등 폭행과 고문 당함. 그 후유증으로 하일남 씨 사망함.
- 1981년 3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법원의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늙은 노모, 갓난아기 업은 부인 등 30여명의 5·18구속자 가족들이 야간열차 타고 상경. 그러나 고등법원의 선고 형량과 같은 사형(정동년, 배용주, 박노정), 무기징역(김종배, 윤석루, 박남선 등) 법정 최고형량이 선고되었다.
- 1981년 3월 명동성당 사형수 감형 요구 단식농성, 김수환 추기경 집무실 접거 농성으로 광주에서 윤공회 대주교님이 올라와 전두환 대통령 방문

하여 사형수 감형 요구사항을 전달, 단식농성 4일만에 ㉠로 인한 사형수는 없다'는 답을 정부 측으로부터 전달받음.

- 1981년 4월 3일, 5·18관련자 83명 전원 특별감형,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 정동년 등 3인 무기징역, 잔여형기 5년 미만인 58명 형집행면제 등의 조치로 석방됨.
- 1981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 1981년 5월 - 5·18구속자가족회 어머니들 10여명, 광주미문화원 점거
- 1981년 8.15 김성룡 신부 광복절 특사로 석방
- 1982년 2월 말 - 5·18구속자가족회 어머니들 20여명, 광주미문화원 점거 농성. 강제 해산조치
- 1982년 10월 11일 박관현 사망
- 1982년 12월 24일 특별사면조치로 모두 석방

■ 5월항쟁 기간 여성들의 피해 일지

- 18-20일

백홍남(당시 35세, 주부) 공수부대 곤봉 우측 후두부 부상

70대 할머니 구타

여고생, 시내버스 안내양 곤봉구타로 실신

최미자(당시 19세) 남광주 연탄공장 앞에서 대검에 가슴 찢림

최영옥(당시 21세) 한국은행 부근, 공수부대 끌려가던 남동생 구하려다 구타당함

최정아(당시 44세) 북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상점운영, 직원을 추적해온 공수부대원을 말리려다 전신구타

s모씨(양림동 거주, 당시 35세 여성) 성폭행

k모씨(여성) 지병을 앓던 딸을 데리고 광주병원에 오던 중 화순 너릿재 부근에서 계엄군이 차량에 집단 발포하여 승객이 사상을 당하고 피신하는 과정에서 딸을 잃고 찾으러 다니다 계엄군에게 성폭행 당하여 이후 정신병을 앓다가 2년 후 사망함.

Y모양(당시 K여고 1학년)5월 19일 5명의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 당한 후 81년 초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요양원과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97년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5월 19일 오전 11시, 중앙여고 학생들 교내시위

장0희(당시 여고 3년) 5월19일 성폭행 당한 후 정신이상 후유증을 앓다 87년 10월 분신사망

5월 20일 이후 여성노동자들 시위 참가

이정진(당시 15세) 구시청 앞에서 총상 사망

임지명(당시 9세), 언니 임미송 서석동 자택에서 총상 부상

최미애(당시 24세, 임신 8개월) 21일 오후 2시경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사망

이성자(당시 15세) 21일 오후 금남로 동구청 앞에서 총상 사망

박금희(춘태여고 3년)기독병원에서 헌혈하고 나오다 총상 사망

김내향, 김성수 가족 피살사건 - 어머니는 사망하고 김내향은 척추부상, 아버지는 부상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2012년 사망

- 22-26일 피해사례

강해중(당시 47세, 주부) 총상으로 양쪽 눈 실명

손옥례(당시 19세) 처참한 주검,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1년만에 사망, 오빠 손병석도 항쟁기간 중 교회에 가다 공수대에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은 후 정신질환- 일가족이 풍비박살이 된 사례

이매실(당시 68세) 쌍촌동 화정동 기슭 충격으로 사망

제사 드리러 가던 방직여공들의 최후 - 23일 일신방직 노동자 김춘례(당시 18세), 고영자(당시 22세) 화순에 할아버지 제사지내기위해 도청 승합버스 승차, 주남마을앞에서 계엄군 총탄에 사망. 김춘례 어머니 박순임 씨는 딸의 시신을 확인한 후 충격에 휩싸여 5년여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세상을 뜨고 말았다. 고영자 어머니 또한 눈물의 세월을 보내다 4년후 지병으로 사망.

박현숙(당시 18세, 신의여고 3년) 주남마을 승합차 다발성 총상으로 사망

박연옥(당시 49세, 농업)송암동 거주하던 박씨는 오치에서 살고 있던 아

들이 염려되어 시내로 걸어가던 중 계엄군에게 총상 사망. 남편 김점술 씨와 아들 김광수씨도 정신적 충격으로 3년 후 사망

오정순(당시 53세) 23일 총상 사망

박난초(당시 42세) 아들 이성귀(광주상고 2년)가 총상으로 죽어 도청에서 시신확인 후 충격으로 실신 다음해 10월 사망

박귀주(당시 49세) 총상 후 후유증으로 사망

■ 여성 사망자 (일자별, 장소별)

성명	생년	직업	검찰 사망자 분석 자료(1980년 광주지검)			
			일시	장소	사인	경위
고영자	1957	회사원 (일산방직)	5.23. 09:00경	지원동 부근	M16	광주에서 화순읍 광덕리 소재 변사자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원동 부근에서 전흉부 다발성 총상(M16)으로 사망
김명숙	1965	서광 여중 3	5.27. 21:40경	전남대 앞	M16	외출중 계엄군의 수하에 불응 타가 치골맹관총상(M16)으로 사망
김오순	1923	주부	5.22. 09:00경	산수3동	차량사	산수3동 31소재 주거지 앞 길 부근에서 시위대 차량에 역과, 좌측두개골파열로 사망
김춘례	1962	회사원 (일산방직)	5.23. 09:00경	지원동	M16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소재 고영자의 집에 가기 위해 동인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지원동 부근에서 전신다발성총상(M16)으로 사망
박금희	1963	전남 여상 3	5.21. 14:00경	수미다실	M16	수미다실앞 부근에서 배흉부맹관 총상(M16)으로 사망
박연옥	1930	농업	5.24. 13:20경	진월동 인성고 부근	M16	아들의 안전여부를 알기위해 집을 나섰다, 진월동 소재 인성고등학교 부근에서 복부및회음부관통총상(M16)으로 사망
박현숙	1964	송원 여고 3	5.23. 09:00경	지원동	M16	지원동 부근에서 하복부총상(M16)으로 사망

성명	생년	직업	검찰 사망자 분석 자료(1980년 광주지검)			
			일시	장소	사인	경위
손옥례	1961	가사	5.22.경	지원동 (기록)	M16	우측용배부및좌골반관통총상(M16), 하악골개발골절, 좌흉측부및좌상박내측엄찰상으로 사망
오정순	1927	가정 주부	5.23.경	운암동	M16	운암동 479-18소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유탄(M16)맞아 두안부관통총창상으로 사망
이매실	1912	농업	5.22. 18:00경	쌍촌동	M16	쌍촌동 1002의37소재 가옥안 방에서 유탄(M16)에 맞아, 두부우측다발성맹관총상및후두부, 측두부다발성골절등으로 사망
이성자	1965	가사	5.21. 14:00경	동구청 부근	CAR	동구청부근에서 흉부관통총상(cal)으로 사망
최미애	1957	주부 (임산부)	5.21. 13:50경	중흥2동	M16	남편을 출영차 중흥2동 331-45소재 자신의집앞 노상으로 나오다 피격, 두부관통총창상(M16)으로 사망

■ 사진자료



해남읍에 도착한 광주 시위대- 트럭에 탄 여성의 모습(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계엄군 진입 후 YWCA, 가두방송용으로 활용되었던 전남대 스쿨버스(나경택)



계엄군 진입 후 YWCA, 가두방송용으로 활용되었던 전남대 스쿨버스(나경택)



전일빌딩 셔터에 붙은 대자보(나경택)



5.24일 제2차 시민결기대회 - 전두환 화형식 (나경택)

5·18광주민중항쟁 40년, 오월 여성 정신 계승과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윤청자(오월민주여성회장)

1. 발제자께서 5월항쟁 기간 동안 여성들의 활동을 각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셨다. 그렇지만 민주화운동사나 여성의 역사 쓰기에 있어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활동기록이 미진한 부분은 연구자들이나 연구단체에서 앞으로 아카이빙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 예컨대 광주항쟁 이전 민주화의 봄과 함께 1980년 3월에 있었던 호남로케트 임금 승리투쟁은 최초로 노학연대를 이끌어 내었고 광주항쟁 발발배경이 되는 의미있는 투쟁이었다는 것은 로케트에서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이 아직 가려져 있다. 광주항쟁에서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구술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해야 한다.

2. 5·18 광주민중항쟁 40년 이후, 특히 오월여성정신 계승과 실천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광주정신이 무엇이고 광주여성정신이 어떤 것인지 학계와 지역에서의 합의 되는 지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광주여성정신이 민주, 정의, 공동체, 평화, 인권, 등 무엇이라고 정의하기에 앞서 많은 토론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싶다. 우리가 걸어온 40년을 정리해 보고 미래시대에 계승할 지속가능한 오월여성정신을 담론화해야 한다. 아울러 오월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오월민주여성회는 광주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생존자와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 후대들의 모임이다. 조직의 목적이 ‘5·18민중항쟁의 민주정신과 여성들이 실천했던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이 땅

의 정의와 민주주의, 자주적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후대들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월여성정신 계승에 있어 오월민주여성회는 고민을 많이 해 온 여성단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후대들에게 지속가능한 가치로서 어떤 정신을 계승할 것인가? ‘오월여성 평화를 품다’는 아젠다를 가지고 광주오월이 광주 지역이 아니라 오월여성정신을 국내·외 세계적 지평을 여는 연대를 통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4·3, 강정마을, 성주 사드배치, 합천 원자폭탄피해자 모임, 노근리, 여수순천사건, 오키나와 (한·오키나와 민중연대, 헤노코기지 반대운동), 미얀마 (88항쟁), 베트남, 팔레스타인 등과 연대하고 있다.

4. 광주 5·18은 마을공동체와 상생해야 한다.

마을로 찾아가는 오월여성평화이야기 소개 -> 윤청자회장 자신의 소회를 소개하세요.

5. 광주 5·18여성들은 세계시민들과 상생해야 한다. : 광주는 광주정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세계시민들과 만나야 한다. 특히 광주항쟁에 지난 40년동안 광주에 도움을 준 전 디아스포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5·18재단 등에서 부분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6. 광주 5월여성정신을 문화적으로 형상화로 미래세대와 만나야 한다. 5·18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은 대모역할을 했고 계엄군을 향해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금남로에 그런 정신을 형상화한 조형물 하나 없다는 것은 여성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직도 부재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7. 광주항쟁 40년이 지났다. 광주항쟁은 분단체제 속에서 장기 군사독재의 독재자들의 시민화살이다. 광주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 본질적 원인인 분단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오월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분열과 갈등을 우리 안에서부터 극복하고 공동체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광주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오늘 이 같은 토론은 더 빛이 날 것이다.

5월 항쟁과 여성의 투쟁

정현애(오월어머니집 이사장)

발제문에는 5월항쟁기간 동안 여성들의 활동이 잘 정리 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항쟁 이전 1970년 말, 항쟁기간인 1980년 5월, 1982년 12월 사형수였던 구속자들이 모두 석방된 시기까지 약 3년 동안이다. 공간적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이다. 항쟁 이전의 활동은 재야운동가, 사회운동단체(송백회), 종교단체 속에서의 노동운동, 지역대학교내에서 여대생들의 활동별로 정리하고 있다. 항쟁기간 동안의 활동은 날짜별, 주요 장소별로 다양하게 여성활동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피해 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항쟁이후의 구속자 석방운동도 소개하고 있어 5·18과 전후의 여성활동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다.

이번의 주제가 5·18과 여성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방향 모색-이란 점에서 항쟁 당시의 여성 투쟁이 여성사, 나아가 한국 역사에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5·18여성투쟁사는 의미 있는 역사이며 앞으로로도 의미 있는 역사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집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미 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공간성을 지닌 객관적 현상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창출하고 공유하며 또 전승하기를 원하는 가치나 문화, 세계관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다.¹⁾ 5·18여성투쟁이 전승되려면 객관적 기록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 투쟁이 5·18민주화운동에서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들의 투쟁이 이후의 역사, 특히 여성의 사회 활동사에 미친 영향을 성찰할 필요가 있

1) 위의 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21권, ‘행정기관 소장문서 중 광주사태 피해현황 관련 문서’들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했다.

다. 이러한 성찰위에서 이후의 방향 모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여성 투쟁 기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6쪽 5·18구속자 가족회 활동 등은 개인의 기억이 구술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의 집담회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에게 의존할 일은 아니고 보다 관련기관들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여성투쟁이 시기별로 이루어진 점은 나와 있으나 그 활동이 5·18항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추구하고 있지는 못하다. 절대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 활동별로 항쟁에 미친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항쟁전의 여성 활동이 항쟁기간에 미친 영향, 구속자 석방운동이 이후의 오월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항쟁기간동안의 여성 투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지역여성들, 진보적인 여성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에 지역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승활동이 이루어졌다. 전승활동의 내용과 계승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까지 여성투쟁에 대한 조명은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 부분도 책임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예산, 인력배치 등의 할당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0년 이후의 방향 모색을 할 때 위에서 지적한 점 외에 고려해야 할 점은 진실규명의 문제, 5월 항쟁 이후의 지역의 여성단체, 오월여성단체 등의 활동내용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야 한다.

1. 진실 규명 실현

2. 여성단체들의 활동

- (오월여성단체) 2001년 ‘오월여성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사)오월어머니집’을 결성하였다. 2017년 (사)오월어머니집으로 통합하였다. 5·18 선양사업과 어머니들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월민주여성회는 2007년 결성하여 5·18민중항쟁의 민주정신과 여성들이 실천했던 숭고한 대동정신

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자주적·평화적 민족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단체들의 활동
 - 다양한 문화 활동-기록, 학술연구, 영화, 사진전, 등 다양
 - 오월여성제²⁾에는 오월여성단체를 비롯한 지역 진보적인 운동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오월여성길³⁾은 광주 YWCA 옛터- 광주 MBC 옛터-녹두서점 옛터- 금남로일대 옛 전남도청-5·18민주광장 - 상무관 등이다.

3. 투쟁 여성의 상황

- 지속되는 트라우마
 - 극복되지 못한 상처, 경제적 어려움,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5·18의 진실 등으로 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 참여자와 사망, 구속, 부상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표 1) 사망, 구속, 부상 가족들⁴⁾



박순금

최정아

임근단

박유덕

2) 황정아. 2010. 「518과 광주 여성운동(2차 토론)」, 『오늘날 5·18은 무엇인가?-5·18 30주년, 새로운 지평을 위한 시민강좌와 토론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25-29쪽.

3) 광주 '오월을 걷자'

4) 김은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현황

표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현황 통계(여성비율)

구분	계	남	여	여성비율	비고
합계	3,906건	3,668건	238건	6.09%	
사 망 자	155명	143명	12명	8.39%	
행방불명	82명	66명	16명	19.51%	
부 상 자	3,669건	3,459건	210건	6.07%	중복포함

• 새롭게 부각되는 성폭력 피해

- 언론에 나타난 사례

10여건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스스로 증언한 사례와 병원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⁵⁾

- 2018년 국가인권위, 국방부, 여가부등이 공동조사단을 꾸려 상담·접수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 자료 45건 등 발견하여 분

5) 언론에 보도된 5·18성폭력 피해 진술

연번	피해자	피해 상황
1	○○○ (60세) (당시 전남대 음악교육과 4학년) ○○○	1980.7.3. 당시 안내방송을 하였고 교생실습 중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옛 광주 상무대 영창에 연행됨, "얼굴이 반반하네" 데모 안하게 생긴년이, 너 이년 인자 무기징역이다"라는 말을 들음
		1980.9.4. 소령 수사관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비빔밥 한 그릇을 사준 뒤, 대낮에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 함
		1980.9.5. 기소유예
		1980.5.19. 동사무소에서 앰프를 가지고 나와 가두방송을 하였음.
2	전○○ 전○○	1980.5.24.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505보안대로 끌려가 몇몇은 총을 피해자의 귀와 허리에 대고 있었고, 수사관은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막 때리며 "니가 처녀냐"고 함
3	한○○ (가명)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음 당시 함께 있었던 가정주부도 당했음
4	○○ (사고 당시 여고생)	1980.5.19. 걸어서 귀가하던 중 공수부대 군인 5명에게 성폭행을 당함
		1987. 3개월간 나주 정신병원에 입원, 현재 승려
5	성명불상	MBC 옆 목욕탕에 끌려가서 성폭행 당함. 다른 여자 3명도 성폭행 당했다고 함, 80년대 중반 전 YWCA에 신고했다고 함
6	차○○	505보안부대와 상무대 영창을 거치며 성고문 가혹 행위를 당함

류한 결과 성폭행 피해내용 총 12건과 이외 연행 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33건의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3) 5·18여성 피해자 상황

종류	내용	비고
피해기간	1980년 5월	
피해자	대부분 생존(50-60대 추정)	
가해자	군인	
피해 형태	성고문(시위자, 연행자)가능성 성폭행(일반여성) 신체훼손(시위자 등)	
피해증언	일부 실명 증언 향후 피해자 증언 가능성이 있음	
가해증언	없음	
사회적 관심	극히 미미 정치권, 5·18단체 및 시민단체의 관심 필요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
구체적 증거	정황증거 군 내부문서에서 확인 가능	진상규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연번	피해자	피해 상황
7	오○○ (가명) (사고당시 고3)	1980.5.19.~5.20. 분신자살 딸의 행동이 이상해 같이 잠을 자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처녀막을 원상회복 할 수 있냐고 물어봐 운동을 심하게 하면 처녀막이 터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8	권○○ (사고 당시 고2)	1980.5.19.~5.20. 정신과 치료
9	최○○ (가명)	1980.5.19.~5.20. 군용 화물차 2대가 와서 군인들이 내려 총을 대면서 차에 타라고 했다. 아줌마들이나 나나 울면서 내려 달라고 사정했는데 총을 들이대면서 산속으로 데려갔다. 우리가 반항하자 발로 머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해 울면서 당했다. 계엄군의 복장은 얼룩무늬였다.
10	임○○ (가명) (당시 22살)	1980.5.22. 새벽기도를 가다가 군인에게 끌려간 뒤 몇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음,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던 피해자는 이후 가출을 반복. 대구 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적도 있음. 유독 남성을 무서워 했음. 지금도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

- 후속 조치의 필요

국방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으나 이후 정확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과 대책 수립, 국가수준의 치유대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분위기 형성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대책이 필요하다.

5월항쟁 여성 담론의 재구성과 문화화가 요구 된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5월항쟁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대하다.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도자였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체적으로 또는 주어진 역할에 대한 수행자로 5월항쟁을 떠받쳤다. 5월항쟁이 이름난 누구누구의 역할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어느 집단의 주도적 역할에 기댄 항쟁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시민 모두의 항쟁으로만 기록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구체적인 역사로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다. 추상과 관념은 상징과 의미 부여에 적합하겠지만 생동하는 ‘나’의 언어로는 다가서지 않는다. 구체적인 무엇으로 감각될 때 나의 기억으로 치환되고 5월은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다시 정립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5월항쟁에서 여성을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인류 보편으로서 남성의 다른 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5월의 역사를 여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당위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5월운동’의 지난 40여년을 정리하고 40년 이후의 5월의 기억과 계승을 의미 짓고자 할 때 우리들의 관심은 매우 정제되고 정치하게 유도될 필요가 있다. 현장 당사자들의 생생한 기억을 정리하고 그 기억을 객관화하는 일이 출발이다. 현장을 지키고 실천했던 사람들의 면모를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개념화하는 일은 문제의식을 풍부하게 하는 일이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성찰하게 되며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를 숙고하게 한다. 지난 날의 의미와 나아갈 날의 지향을 찾는 일의 출발이기도 하다. 40년 이후를 모색하고자 하는 5·18과 여성을 화두로 삼는 일의 취지일 것이다.

1. 5월 항쟁기간 여성이 수행한 활동에 대한 발제자의 정리는 분야별로

활동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일목요연하게 항쟁 당시 여성의 역할을 조망할 수 있었다.

한편, 항쟁 당시 현장에서 실천한 여성들의 구술 기록은 적지 않다. 그 역할을 실천활동의 분야별로 정리한 연구 논문도 다수 존재한다. (2000년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발간한 『여성, 주체, 삶』이 대표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가 재정리한 내용은 기존의 수집 내용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잘 알려진 활동 그룹(송백회, JOC, 광대, 들불야학 등)이나 이미 널리 알려진 개인들의 실천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의 수많은 여성들의 활동을 재수집하고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5월 항쟁과 여성』을 재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발제자의 몫이 아니라 ‘광주여성재단’ 등 유관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2. 5월항쟁 기간에 여성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의 미론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시대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당대의 관점으로 지난 사건을 평가해야 한다, 현장을 겪은 당사자의 지나친 자기 중심적 해석도 위험하지만 평가자의 주관이 과도하면 당시의 상황은 깡그리 무시되거나 조작될 위험에 빠지며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역사 해석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반면 특정한 사건은 해석자의 주관이 작용하여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역사화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5월항쟁에서 여성들이 행한 실천의 각각에 대해 의미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적 시점에 있되 당대의 맥락과 흐름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전취해야 할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개념화하는 것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5월항쟁과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과 의미 부여가 요청된다.

3. 40년 이후를 위해 5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의미의 재구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화가 필요하다.

5월항쟁과 여성을 역사화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가치로 정립하려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기록과 기억의 저장화가 1차적이라면 인구에 회자되고 전

파되는 ‘소문’으로 현재화하는 것은 문화화가 중요한 방법이다. 말하자면 다양한 매체로 5월 여성의 이야기가 생산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금희의 오월’, ‘모란 꽃’ 등으로 희생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연극콘텐츠로 창작되어 많은 사람들을 걱정케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소년 동호’를 내세웠지만 이야기를 끌고가는 주인공은 여성들이다. 엄마이고 여자 대학생이며 오월 이후 힘겹게 생을 버티기는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이다. 연극(휴먼 푸가)이 주는 감동도 별 다르지만 영화화도 좋을 것이다.

오월 항쟁 시기 여성의 실천활동을 주목할 때 감동적인 이야기는 넘친다. 피해자의 관점을 넘어 행위자와 실천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작금의 청년세대는 물론 40년 이후의 세대에게 다가서는 ‘예술적 승화’, 즉 문화화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활동이 필요하다.

5월 진상규명 문제는 진실규명과도 연관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상으로 미흡하지만 5월문제 해결의 다섯가지 원칙을 수행했다. 가해자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5월’의 진상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자의 맨 얼굴을 역사 앞에 드러내야 한다. 5월당시 여성 성폭력 문제가 끔찍한 5월현장을 드러내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는 것과 같다.

‘5월항쟁과 여성’은 5월의 변방이 아니라 전인미답의 5월역사저장소의 매우 소중한 역사적 알곡이자 자산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손길을 은은하게 기다리는 5월의 황금창고와도 같다.

40년 이후의 5월을 위해 뭔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마음씀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5월 여성 정신 계승을 위한 제언

김경례(전남대 사회학과)

1. 들어가며

5·18 민주항쟁 40주년(2020년)을 앞두고 있다. 1980년 5월 이후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즐기치게 투쟁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 구성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 뉴스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5·18은 폭도들이 일으킨 광주사태에서 군부독재와 국가 폭력에 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재정의 되기는 하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완수되지 못했고 여전히 담론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완의 혁명이다. 칼 마르크스는 ‘혁명은 영원히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혁명의 목적은 변화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성취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특정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혁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제들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80년 5·18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과거에 박제화 되지 않으려면 현재적 관점에서 5·18과 5월 운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릿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의 의미화와 해석, 현재의 역사적 책무와 당면 과제 설정은 누구의 시각과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의 역사는 많은 연구자들이 통찰하였듯이 기득권층(지배층), 남성, 백인 중심의 역사

였다. 피지배층, 여성, 유색인종 등은 역사 속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아 왔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역사, 여성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여성사는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역사 새로 쓰기 운동이며 전체사를 보완하여 균형 잡힌 역사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5월 여성정신은 무엇일까?

5·18 광주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있지만 10일의 항쟁기간 동안에 광주시민이 보여준 대동평화 세상에 주목하여 공동체 정신을 주로 꼽는다. 5·18 광주정신이 ‘공동체’로 상징화된 데에는 여성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주먹밥’과 취사를 통해 시위대와 시민군의 투쟁에 기여했던 여성의 역할은 이후 5·18기념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주먹밥 나눠먹기)이 되었으며 5·18기념재단의 소식지 제목(‘주먹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와 공동체의 복원이 5월 여성정신이자 계승해야 할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먹밥과 취사활동을 비롯해 가두방송, 시민홍보, 헌혈, 시체수습 등의 여성 활동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어 왔는가? 페미니스트들은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의 활동 영역이었던 시민군이나 지도부의 활동에 비해 일반 시민, 여성의 활동은 부차적인 것으로서 저평가 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여성의 활동이 주먹밥으로 상징화되는 것이 성별분업구조를 반영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생산,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5월 여성정신을 공동체와 연계하더라도 당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및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 구성과 연동하여 계승해 나가야 한다. 둘째, 5·18이전과 항쟁 당시, 그리고 이후 5월 운동 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을까?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70년대 말 민주노조건설투쟁에 참여했던 여성노동자들,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어주었던 여성 상인들, 헌혈에 동참했던 황금동 성매매여성들, 5월 운동 과정 중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독재반대 등을 함께 외쳤던

여대생,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등은 왜 개인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갈망했기 때문은 아닐까? 평등과 정의라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가치가 눈앞에서 제압당하고 불평등과 부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도, 행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실 공동체 사회 조성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과제이다. 그리고 차이의 존중은 평등을 매개로 할 때 시혜나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5월 여성정신은 성평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5월 여성정신의 계승과제임을 제안하고 싶다.

3. 5월 여성정신계승,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5·18당시 여성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아카이브화 해 나가야 한다.

-기간 많은 구술과 증언이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구술과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기록, DB화 작업이 필요함

둘째,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재평가와 여성사 연구가 필요하다.

-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를 통해 지역 여성정체성 정립과 역사의 주체로서의 위치설정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여성사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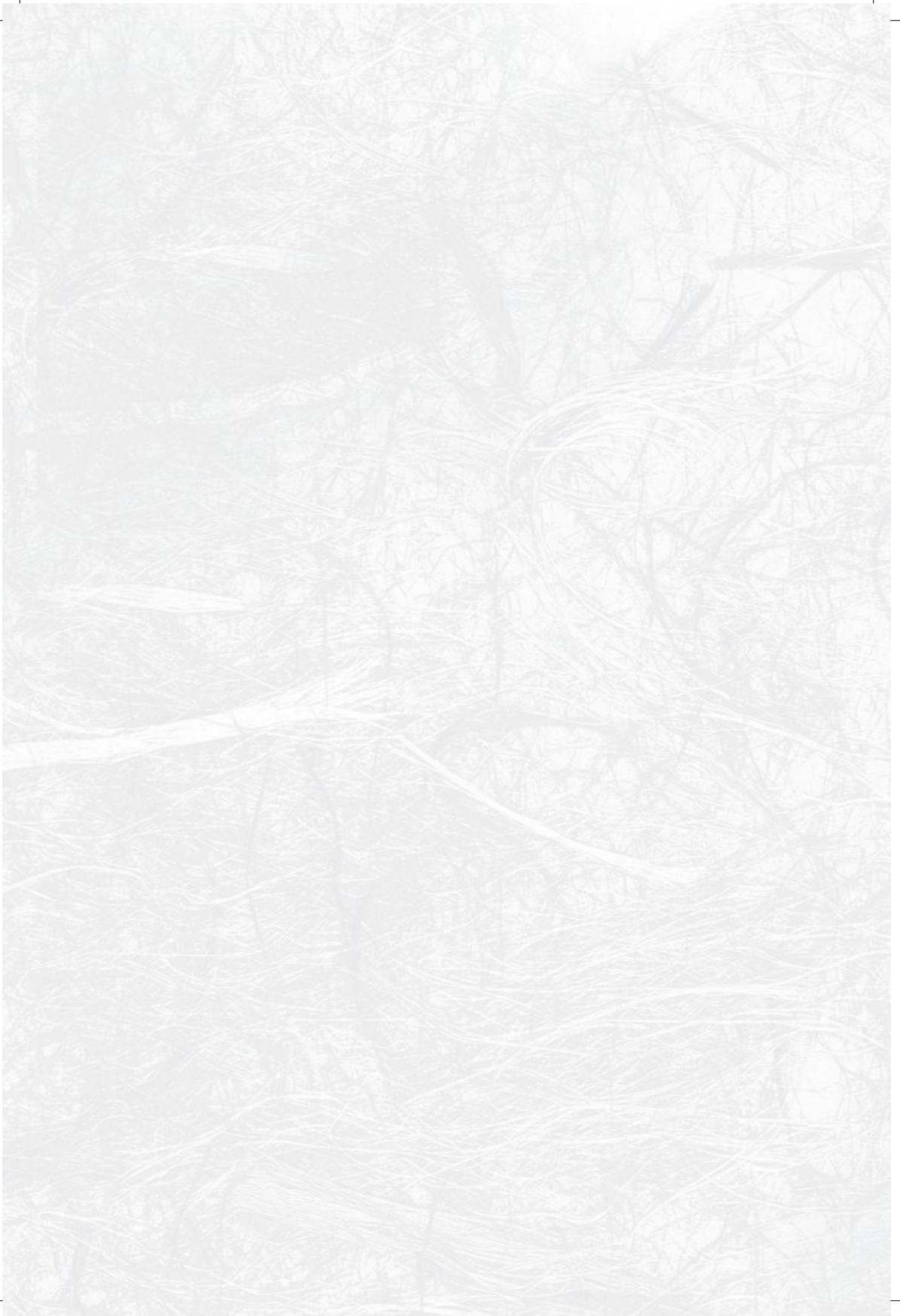
- 아래로부터의 여성사 연구는 5·18뿐만 아니라 학생, 노동자, 농민 여성운동, 87년 민주화운동 등 한국사를 관통하는 민중 저항사를 재해석하고 여성의 경험과 활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현재, 민주인권재단 설립 논의 과정에 여성이 또다시 배제되어서는 안됨)

셋째, 5월 여성정신의 현재화와 계승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성평등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지원, 실행되어 나가야 함(성인지적 5월 연구 지원, 5·18기념재단 및 5·18기록관 여성 전담 연구자 및 인력 배치)

-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대중화 노력(공간 확보 필요)

- 5월 여성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5월 해설사 성인지 교육 필요
 - 5월 여성 정신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발굴 및 실행(일차적으로 5월 관련 단체 및 기관 교육 필요)
- 마지막으로, 5월 여성 정신의 담론화를 통한 지속적인 가치투쟁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 II

일 시 2019. 12. 11.(수) 19:00
장 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주 최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주 관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발표 및 토론

진 행 김꽃비(광주로 이사)

발 표 1 **극으로 마주하는 5·18**
이단비·조수현(프로젝트 면밀)

발 표 2 **세대를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문정은(광주청년센터the숲 센터장)

발 표 3 **5·18의 전국화, 세계화**
김동규(‘광주오월을 기억해주세요’페이스북 운영자)

발 표 4 **주먹밥, 5·18과 함께한 186일간의 기록**
이수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지킴이 주먹밥 팀장)

극으로 마주하는 5·18<다시, 광주>

이단비·조수현(프로젝트 면밀)

프로젝트 면밀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두 청년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광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광주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광주의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거듭되는 고민의 끝에는 늘 5·18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교육받습니다.
5월이 되면 영상을 통해 당시의 참상을 되짚어 보고
희생당하신 분들을 기리는 묵념을 합니다.
광주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5시 18분이 되면 5·18민주광장 시계탑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5월이 되면 곳곳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사들이 열립니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혀 왔습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것들을 교육받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였는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후 대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이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너무 교육만 받아온 게 아닐까?’

왜 광주는 5월이 되면 도청으로 모여드는 것인지
왜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지
왜라는 질문만 가득한 채 우리는 삶 속 깊숙이 자리 잡힌 5·18민주화운동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의 오월은 늘 무거운 주제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 유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아직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오월정신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 당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한 교육받아온 세대로서 그때를 이해하기에 또 다가가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칫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까봐

하지만,
광주가 5·18민주화운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기억하는 것처럼
다음세대 그리고 그 다음세대까지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가 그 시대에 다가가 80년 5월을 기억하고 기록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5·18민주화운동

그렇다면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5월 18일에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항쟁.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몇 일간 진행된 일이나고 물어보면 거기서부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후항쟁지가 구 전남도청인 것도, 힌츠페터라는 독일 외신 기자가 광주의 참상을 알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화<화려한 휴가>, 영화<택시운전사>, 소설<소년이 온다>

여기 이 작품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매체화한 작품들입니다.

특히 <화려한 휴가>나 가장 최근 나온 <택시운전사> 내용의 경우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동일한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기억. 저희는 이것이 매체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공연

저희는 그 중 공연이라는 매체에 집중했습니다.

80년 5월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 중 극회 '광대'가 있었습니다.

들불야학과 함께 투사회보를 제작하고

일부는 항쟁 지도부의 일원이 되었고

마지막 새벽을 함께 지켰습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광대는 81년 5월 해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광주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오월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극단들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이야기를 담은 극들을 오월극이라 통칭하며 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 민주열사의 이야기, 소시민들의 이야기 등 극단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연들을 통해 당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받습니다.

저희는 그중 네 극단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찾아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놀이패신명>

놀이패 신명은 1982년 창단하여 광주,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당극 전문공연단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마당극의 효시인 '고구마'를 시작으로 '호랑이 놀이', '안담살이 이야기', '일어서는 사람들'로 이어지는 작품을 통해 '전라도 마당극'의 전통을 확보하며 마당극 전문공연단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오월극 : <넋풀이>, <호랑이놀이2>, <88일어서는 사람들>, <어머니 당신의 아들>, <88일어서는 사람들>, <어머니! 당신의 아들>, <97일어서는 사람들>, <금남로 사랑 곳>, <언젠가 봄날에>

- <토박이>

극단 토박이는 1983년 11월에 창단, 광주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극 중심의 전문공연단체입니다. 극단 토박이는 이웃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진정한 웃음과 눈물을 연극예술로 재창조하여 인간성의 전진, 사회와 역사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월극」인 <금희의 오월>, <모란꽃>, <오! 금남식당> 등 뿐만 아니라 「청소년극」, 「환경극」등 다양한 장르에 대표작들이 있고 「어린이 연극학교」, 「위기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배움터-아우라지」, 「어린이환경뮤지컬단-가이야」등을 개설해 건강한 연극문화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월극 : <잠행>, <금희의 오월>, <모란꽃>,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청실홍실>, <상중(현 마중)>, <오! 금남식당>

- <푸른연극마을>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1989년 창단된 극단 코스모스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93년 11월 창단되었습니다. '지금-여기서-인간답게!'라는 모토를 가진 푸른연극마을은 현장성을 중시하며, 해마다 쉬지 않고 좋은 연극 만들기의 대표적인 극단입니다. 1996년 전용 소극장 연바람을 열고 대중문화 속에서 올바른을 찾아가는 연극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동명동으로 소극장을 옮겨 시민들과 가까운 공간에서 연극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월극 : <못다부른 그해 오월의 노래(새)(현 그해 오월의 진혼곡 새)>, <오월의 신부>, <꿈, 어떤 맑은 날>, <망월>, <한남자(현 너에게로 간다)>, <오월의 석류>, <그들의 새벽>, <고백: 얼굴 뒤의 얼굴>

- <얼·아리>

극단 얼·아리는 1993년 11월 창단하여 현재까지 순수창작극 공연을 끊임없는 올리며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관객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연극을 하고자합니다. 2010년 제7회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에서 '매품입니다'작품으로 대상, 희곡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고 2014 제32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발톱을 깎아도'작품으로 대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월극 : <꿈... (회상 5월)>, <기억이 미래다>, <어쩌면 스무개의 이야기, 아리네 하우스>

네 극단, 스물 다섯 개의 작품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프로젝트 면밀의 작업물은 책으로 출판됩니다.

<다시, 광주>

1. 오월극 초연 당시의 기록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2. 극단별, 초연 순으로 나열됩니다.
3. 실연자, 기획의도, 시놉시스, 포스터, 사진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인터뷰를 통한 실연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 에피소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문정은(광주청년센터 센터장)

아래 질문을 보고 당신이 어디에 가까운지 궁금하다.

A. 나는 정의와 평등,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위험이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개인의 삶보다 조직의 사명이 우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직을 건강하게 운영하려면 분산된 리더십이나 참여형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 나는 개인의 삶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새로운 방식의 조직운영을 비롯하여 아이디어와 혁신에 관심이 많다.

- 프랜시스 쿤로이더 외,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슬로비, 2015.
인용 및 재구성.

당신은 어디에 가까운 편인가? 다소 거친 구분이지만 이는 최근 제시된 세대를 구분하는 물음이다. A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통상적으로 1955~1964년에 출생한 50대 중반~60대 세대를 일컫는다. B는 X 세대로 1965~1979년에 출생한 30대 후반~50대 초반 세대다. 마지막으로 C는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밀레니얼 세대로 1980~2000년에 출생한 20대~30대 중반 세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미래세대에 대한 느슨한 규정은 1980년 ‘오월’이후에 태어나거나 1987

년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미래세대에 대한 너른 정의와 생각을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해 본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는 흔히 말로 요즘 ‘젊은이’이다. 1980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이들을 칭하는 용어로, 닐 하우(Neil Howe)와 윌리엄 스트라우스(William Strauss)가 1991년 출간한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들은 급속도로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태어난 첫 세대로,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기술에 능통.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자라왔으며 디지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기도 한다.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대학 진학률이 월등히 높아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세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고용 감소나 일자리 질의 저하 등을 겪었으며 평균 소득이 낮고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저성장 속 높은 실업률로 취업, 결혼, 주택마련, 출산 등을 포기하여 스스로를 ‘N포 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강력한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다. (실질적인 권한과 정치의 영향력 측면은 아직까진 별개다)

내년이면, 5.18 40년이다.

그간 훼손되어 왔던 광주 오월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및 공식 발화가 그 역할을 해 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영화와 대중매체 등을 통한 광주 오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은 과거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만원, 전두환 등의 역사 투쟁과 오월에 대한 훼손 및 혐오가 적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측면도 있다.

이 과정에서 40년의 시간을 마주한 오월 광주는 오월을 겪은 당사자 세

대를 넘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젊은 세대들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은 BC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서도, BC 300년경 그리스 아테네 유적에서도 그리고 BC 200년경 중국 한비자에서도 발견이 되었다. 젊은 세대가 광주 오월을 기억하지 않거나 역사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명 그 자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젊은 세대는 먼 곳이 아닌 바로 자신이 밭 딛고 있는 곳에서부터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있다. 그에 반해 선배 세대는 실무자와 함께 사명과 비전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조직과 작업을 넘어 광주라는 도시 안에서 오월 세대와 오월 이후 세대가 어떻게 만나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지 질문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본다.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자신이 단지 기계의 작은 부품으로만 존재하기보다 조직이나 작업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길 원한다. 이들은 공유가치에 근거한 의사결정, 피드백, 전 구성원의 높은 참여도를 지향한다.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아우르는 균형과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 계급과 상관 없는 권한 부여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타고난 사회 혁신가로서의 ‘요즘 젊은 것들’의 가능성

밀레니얼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집단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각 개인의 관점을 이해하려 하며, 위키피디아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처럼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지식수렴 방식으로 보다 큰 공동체에 더욱 열심히 참여한다.”고 말한다. 또 한편, 밀레니얼 세대는 공익 활동에 대한 경험과 인지가 남다르며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데 열정이 높은 것으로 본다. 그들은 비교적 어

린 시기에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아, 빈곤, 환경, 역사 문제 등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자원봉사 활동이나 모금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더불어 해외 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을 통해 이전의 다른 세대 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와의 연결도 높은 편이다. 최신 유행에도 민감하지만 사회와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순하고 수동적인 연대 활동보다는(흔한 말로 ‘가성비가 낮은’) 개성이 반영된 적극적인 참여와 실제적인 변화(‘가성비가 높은’)를 추구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강력한 사회 혁신가 그룹을 형성한 이들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이다. 최근의 기후환경 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도 역시 그렇다.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참사, 심지어 100년이 된 3.1운동 등까지도.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요즘 젊은것들’

다만, 또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얼리어댑터(Early Adapter) 등의 보편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하여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세분화하여 대응해야 하는 세대이다. 개인마다 경험, 가치, 행동 양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세대로 구분하거나 획일화 된 방식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려고 들 때, 단박에 ‘제가 밀레니얼이라고요?’라고 반문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밀레니얼은 이렇다고 그들을 규정짓거나 그들에 대해 모두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하는 첫걸음이다. (오늘 토론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시작이 좋다!)

밀레니얼 세대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회의 주체, 소비자 그리고 동료로 등장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세대

이며 타고난 역량을 지닌 이 세대의 잠재 가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다. 탁월한 운동은 언제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며 그렇게 어느 순간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이 매우 기대 된다.

밀레니얼에게 공익활동이란?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만드는 일’
‘좋은 일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것’
‘(남들 술 마시는 시간에) 내 인생의 가치를 채워나가는 활동’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도래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는 행동’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치를 발현시키고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것’

공익활동을 하는 밀레니얼은
‘촉발되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가치를 발견하여 몰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밀레니얼은 공익활동의 정의와 방식을 재창조하고 있다.”

공익 활동 참여에 있어 밀레니얼의 선호도는 지금까지의 기부 방식이나 사회 혁신 방법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밀레니얼은 이미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정의를 바꾸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그간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부/모금 방식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공익활동에 대해 발견하고 학습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자기 주도적인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여정을 따라, 그들의 온/오프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공익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면서 밀레니얼은 또한 그들의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해간다.

밀레니얼세대가 ‘공익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밀레니얼에게 공익활동은 덜 형식적이고 더 즉

각적이며 실제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작은 노력이 변화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 해야 한다.

[참고] 밀레니얼이 세상을 바꾸는 5가지 방법

5C (Cause, Change, Connect, Cohort, Cross-Sectoral)

Cause

나를 발견하고 움직이게 하는 열쇠

#사회적감수성 #내가나일수있는삶 #감정 #재미

1. 원인 2.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 3. (정치 사회 운동) 조직 (대의명분)

‘코즈*(Cause)’란, 사람들의 내면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신념이나 가치, 선한 의도를 말함. 밀레니얼의 공익활동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독특한 부분. 밀레니얼에게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 지 그리고 밀레니얼로 하여금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출발점이 ‘이슈에 대한 깊은 공감(문제의식)’이라는 것. 밀레니얼은 그들 스스로 혹은 사회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코즈(Cause)가 있다. *‘Cause’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가 없어서 원어 그대로 ‘코즈’라고 부른다. 밀레니얼이 그들 안에 내재된 이 코즈(Cause)를 발견하고 자극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몇 가지 강력한 열쇠들이 있다. 즉, 밀레니얼의 코즈(Cause)와 공익활동 간의 연결고리인데, 그것은 바로 ‘감정’과 ‘재미’이다. 부당한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 내가 나일 수 없게 하는 구조에 대한 ‘빡침’,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재미’.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 밀레니얼은 이 ‘감정’과 ‘재미’를 통해 그들 안의 코즈(Cause)가 건드려졌음을 알게 된다.

Change

명분보다는 변화

#실행가능한변화 #직접참여 #영향력 #담론보다액션 #일상의영역

1. 변하다. 달라지다 2. 변화시키다. 바꾸다

밀레니얼 세대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인 변화(Change)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지구촌의 가난, 환경 문제, 정치 사회적 사건 등 국내외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며 자라왔다.

주로 베이비붐 세대 혹은 X세대인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에 참여하도록 가르쳤으며, 성장기의 이런 경험과 활동들은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이슈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슈에 대해 탁월하게 표현하는 방식, 문제 해결의 주변에 가만히 앉아있기 보다는 새로운 해결책, 즉 변화(Change)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들을 갖추게 했다.

특히나, 정부나 기업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언제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드는데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다. 그들은 참여하고 경험하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흥분한다. 밀레니얼에게는 공익활동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실행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만큼이나 영향력도 중요하다. 그들은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확산되는 것을 볼 때 흥분한다. 밀레니얼은 빛의 속도로 정보에 접근하는 기술에 힘입어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또 활동한다. 한 마디로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밀레니얼의 공익활동에서 이 '연결', 즉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에게 네트워크는 단순히 명함을 주고 받는 인맥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언제든 기회가 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 교류망이다. 그들은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도 온라인상에서 사회, 문화, 정치에 대해 글을 쓰고 댓글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 한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서로에게 충분히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오프라인 관계로 전환되기도 하면서 인생을 함께하는 강력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 이 '느슨한 연대'는 활동이나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밀레니얼에게 '소속'은 '소속감'과 달라서, 이들은 '조직이 곧 나'라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할 수 있다.

Connect

느슨한 연대

#페이스북 #가두리양식 #본다 #간접의직접화 #조직#나#프로젝트

1. 있다. 연결하다; 이어지다, 연결되다 2.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다
밀레니얼들은 느슨한 연대(Connect)에 대해 '페이스북'과 '프로젝트'로 설명되는 '느슨한 연대'라는 그들만의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풀어내고 있다.

Cohort

코드가 맞는 사람들

#밀레니얼카운터파트 #마음맞는사람 #동료 #독자님과고객님 #감정적탈출구
#방아쇠

1. (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2. 특정의 경험(특히 연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체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개성이 뛰어난 세대이다. 동일한 집단이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들이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팀 (Team work)’은 중요하다. 밀레니얼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의 ‘구조’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팀(Team)중심의 구조이다. 이름뿐인 파트너십보다는, 나와 ‘코드가 맞는’동료와의 팀이 더욱 힘이 된다. 밀레니얼의 창의적인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서로를 자극하면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고, 그들의 월등한 팀워크 덕분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밀레니얼에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저지를 수 있도록 자극하는’방아쇠(Trigger)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밀레니얼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이슈를 공유하는 개인들과의 네트워크와 연결망을 통해 군대(army)를 형성하려는 본성이 있다. 앞서 우리는 밀레니얼을 통해 공익활동의 방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밀레니얼은 방식의 전환 뿐 아니라 경계도 뛰어넘고 있다.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욕구를 지닌 밀레니얼에게는 실행과 성장이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그들은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하며 영리든 비영리든 영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익 영역에서는 기업-정부-비영리 영역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껏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Cross-Sectoral

영역의 구분 없이

#가치에공감하는행동이곧활동 #애매한영역구분 #착한가치만으로는할수없다
#이직의흐름 #굿즈_가치를사고팔다

Relating or affecting more than one group, area or section

하나 이상의 그룹[분야, 영역]과 연계된, 영향을 미치는

예, ‘Cross-sectoral collaboration’

공익활동에 있어 영역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것에 대해 영리와 비영리를 넘나들며 이직이든 창업의 형태로 새로운 공익활동의 모습들을 개척해나가는 이들이 많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활동을 계획하는 이들도 많고. 혹은 굿즈의 제작 판매와 같이 가치를 사고파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는 이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리와 비영리를 넘나들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밀레니얼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익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우리는 “보호색이나 투명색이 아닌, 저마다의 짙은 색깔로 함께 모였을 때 조화를 이루며 중국에 아름다운 무지개색을 완성”하는 것이 아닐까?

오래된 열정과 새로운 방식이 만나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활동을 벌이는 환경단체분의 사례 발표를 듣게 되었어요. 이슈가 엄청 오래된 이슈더라고요. 60년대부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정책이 있었대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길에 멸종위기 산양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가분들이 직접 들어가시는데, 90일씩 출장을 가신대요.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산양 배설물 채취하고 등등. 거기서 90일씩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 산에 올라 확인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오래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90일씩 산에 올라야 하는 활동이 있구나, 10년 후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거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조직이구나 싶었어요. 10년, 20년 동안 산양을 추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에 올랐던 것을 과연 한 사람의 개인이 프로젝트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슈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힘같은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고 의미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남

“저도 20년 동안 갯벌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셨다는 단체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일하는 편인데, 그분들처럼 한 우물을 파며 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20년 넘게 갯벌에 자원봉사자들 투입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오래된 열정과 새로운 방식(기술)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멋쟁이 사자처럼’에서 코딩 기술을 가지고 오래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식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있게 오랫동안 고민해온 열정이 없었다면 또 알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오래된 열정과 새로운 방식이 만나려면 서로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30대, 여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방식이 이전 세대 혹은 조직들이 이어온 오래된 열정과 만나다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배우면서 가야된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젊은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에게

기존의 질서에 수많은 진동을 일으키는 ‘요즘것들’이 등장했다. 채용공고에 [끈대없음]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칼퇴가 아니라 정시퇴근이며,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칼퇴근 하자마자 춤을 추러 가고, 새로 출시한 핸드폰이나 한정판 물건은 줄을 서서 사고야 마는 이들. 심지어 시위 현장에서조차 그들은 변칙이는 야광머리띠를 쓰고 핸드폰 화면에 초를 띄어놓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신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신선함과 기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과 못 마땅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들은 변화의 상징이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다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에 대한 적응의 연속이다. 누군가는 지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있어 이전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다. 당신이 만약 스마트폰을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받는 용도 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스마트폰은 일부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옆의 밀레니얼 세대도 그런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들에게는 당신이 아직 사용해보지 않는 기능과 기술이 장착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익숙치 않은 앱과 기능에 익숙해져야 한다. 처음부터 어플을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없다. 자주 접속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손에 익기 마련이다. 어쩌면 우리가 밀레니얼이라는 대상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도 그러할 수 있다.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관찰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시도를 해 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더 잘 알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밀레니얼이라는 세대가 더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이 있다고 한다.(진저티 프로젝트)

하나. 밀레니얼에게는 안전한 실험실이 필요하다.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그들은 새로운 실험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처럼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가는데 좀 더 적합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은 ‘능동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다. 기존의 해답들이 힘을 잃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실험들을 해나갈 공간, 즉 실험실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실험실의 그라운드룰은 하나이다.

“우리가 이 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실험이다”

실험실은 새로운 방식이 허용되며, 실패가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안전한 실험실은 자신이 품고 있었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촉진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실험은 또 다른 이들의 시도를 자극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협력적 실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한편, 밀레니얼에게는 완벽한 기성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장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실이 더 필요한 환경일 수 있다는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인식은 실험이 이끌어내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게 해 주기 때문이다. 각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주제에 맞는 방식으로 실험을 구조화해 나가는 과정은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내면의 호기심을 들여다볼 뿐 아니라 외부의 현상에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답들을 발견하고 또한 기존의 세계를 변화시킬 도구를 얻게 된다. 밀레니얼들이 새로운 실험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실험의 과정을 관찰하며 그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읽어 내주는 것은 선배 세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며 특권인 것이다.

둘. 밀레니얼에게는 새로운 학습과 소통의 구조가 필요하다.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에 대한 욕구’는 이전 세대에 비해 두드러진다. 밀레니얼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험하고 시도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며, 이러한 실험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학습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범위는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다. 밀레니얼이 원하는 소통은 목표나 결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세

한 발견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빠른 변화 속에서 자라 온 밀레니얼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강하고, 이러한 상황과 변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의 변화를 끊임없이 소통하며 확인하고,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학습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이다. 지속적인 학습과 즉각적인 소통에 대한 밀레니얼의 요구는 이전 세대가 구축해 놓은 조직 구조에서 만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밀레니얼들의 성향은 그들이 새로운 조직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래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밀레니얼 직원이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카운터 파트너가 밀레니얼 세대 일 때였어요. 그들에게는 또래 학습(Peer Learning)이 중요해 보여요. 제 이야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밀레니얼 직원이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동료가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반응하고 움직여요.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또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밀레니얼 직원들을 관찰했던 한 리더의 말처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성향을 고려한 학습의 구조, 소통의 방식이 새롭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셋. 밀레니얼에게는 자기결정권(Self-permission)의 연습이 필요하다.

스스로 실험의 흐름과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실험에 대한 책임감과 주도성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결정을 적용하는 과정 자체는 강력한 학습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많은 밀레니얼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업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며,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직 누구도 찾지 못한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선배 세대의 경험과 노하우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합의된 실험의 방향이 있

다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물론 이런 권한과 기회를 넘겨주는 것은 매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며, 전문성이나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활동에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밀레니얼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성장을 가져 올 확률이 크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늘려주고, 자신이 원하는 실험을 위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선배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디렉팅(directing)보다는 코칭(coaching)에 가깝다. 자원과 권한을 받은 밀레니얼이 실험을 해 나가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함께 해석해주는 것이다. 왜 그런 실험을 설계를 했는지, 새롭게 나타난 변수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그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 결국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못 다한 이야기.

40년 이후 오월을 그리는 사람들

518기념재단과 행사위원회, 그리고 결정권한

BTS '마시티'062-518

텀블벅, 와디즈, 소셜클라우드펀딩

영화, 음악, 연극 '소년이온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오월 담론과 홍보, 기획

현재의 오월, 더 많은 오월과 함께하는 연대. #소수자 #퀴어 #홍콩 #젠더 #장애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518NOW, 오월 정보 플랫폼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오월

물리적 공간과 플랫폼으로서의 오월

80년 오월, 오늘의 오월 - 장소, 이야기, 참여

지속가능한 오월, 기억하는 오월을 위한 청소년, 청년 세대와의 만남의 장

#오월학교 #청소년 캠프 #오월교과서 #오월플랫폼 #시나리오 #콘텐츠 제작 등

#오월안내자(여행, 답사, 맛과 멋, 공연, 지역특산물, 사람, #맞춤형광주 등)

5·18의 전국화, 세계화

김동규(광주오월을 기억해주세요'페이스북 운영자)

소개.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광주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김동규입니다. 1980년 5월 그날, 아버지는 시민군 버스에 올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돌을 옮겼습니다. 그날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버지는 대학생이 된 후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집회현장에서 머리에 최루탄을 맞았고, 머리카락 사이에서 시작된 붉은 선혈은 발목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사경을 헤맸고,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역사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18의 사진들을 보게된 날의 기억입니다. 사진을 본 장소가 전남대학교 였는지, 망월동 묘역 이었는지는 흐릿하지만, 저는 우연히 그날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군인들이 곤봉으로 시민을 때리고 있는 장면, 대검을 장착한 군인이 시민을 쫓아가는 장면, 군인이 M-16 소총을 시민을 향해 겨누고 있는 장면, 그리고 도저히 말과 글로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잔인한 모습으로 살해당한 시민들의 모습. 저는 그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노출된 것처럼 깊은 마음의 상흔을 입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광주는 아픔이었고 소외감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슴 한 칸

에 묻어둔 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광주의 붉은 빛깔을 돌아본 건 2014년의 일입니다. 그해 저는 다시금 광주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끝내 은폐하려는 모욕과 비방의 칼날이 광주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계엄군에게 살해당한 아들이 누워있는 관 앞에서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홍어 택배’로 희화화되었습니다. 저는 깊이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 9일, 저는 페이스북에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라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페이지를 통해 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용준, 윤상원, 전용호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낸 ‘투사회보’라는 유사언론이었습니다. 그 시절,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투사회보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1. 5·18 정신, 그 지평을 넓혀야 한다.

처음에는 막연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오월을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5년의 시간이 오월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오월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픈 일이었지만, 그 도시에서 열흘간 있었던 일이 진정으로 소중한 위대한 이유는 아픔에 있지 않았다. 그날, 광주에는 아픔을 넘어서는 긍지와 주체성이 있었다. 1980년 5월 26일, 도청에 남은 윤상원 열사는 청소년분들께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남아 달라고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싸워주십시오.”

1980년 5월 27일,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의지를 이어 내일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 신뢰했다. 이들이 정신이 5·18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5·18 정신은 민주주의 쟁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그날, 내일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들에 따라 5·18 정신은 그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처음으로 발견한 건, 지난 2018년 10월 25일에 열린 어느 축제를 목격한 순간이었다. 그날, 제 1회 광주퀴어문화축제가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는 드디어 민주와 인권의 성지에서 성소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동료시민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함께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광주가 원했던 더 나은 세상에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는 포함될 수 없다면, 그것은 대동세상일 수 없다. 제 1회 그리고 제 2회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목격하며, 광주가 나아가야 방향 중 하나를 알게 되었다. 나는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5·18 계승밧지'라는 이름의 굿즈를 제작해 제 1회 광주퀴어문화축제 때 나누었다. 200개 모두 나눌 수 있었다. 이후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 : 오월밧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5·18을 상징하는 밧지와 5·18의 정신이 그 지평을 확대해야 함을 상징하는 (계승) 밧지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때 프로젝트 소개의 말미에 “윤상원 열사가 이야기한 내일, 제가 싸우는 방식이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라고 소개했다. 5·18의 지평이 이제는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하여 더 넓은 곳으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2. 5·18, 전국에 자리잡아야 한다.

1980년 5·18 민중항쟁은 10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코 10일만에 끝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광주는 지난한 기억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날의 사진을 배포하기 위한 노력부터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르러 39년간의 시간을 조망하며 우선 그 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5·18 전국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3가지 고민이 듭니다.

첫째, 기념행사 진행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5·18 기념행사가 국가 주도의 틀에 박힌 행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5·18 기념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여 실행하는 신명나는 행사였지만 예산을 받게 된 이후로는 새로움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년 간 5·18 기념행사 위원회 모니터링단의 일원으로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매년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버리게 현실입니다. 꼭 해야 하는 행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들의 전면재검토와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이 재고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몇 주변 청년들이 5·18 청년행사위원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행사의 새로움 역시 일정부분 미래세대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둘째, 5·18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가.

기념행사와 별개로 광주를 알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5·18을 왜곡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18 기념재단과 민연련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을 보니, 수십여개의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들에서 5·18을 왜곡하는 내용들이 버젓이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같은 영상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5·18 왜곡 영상 200개 중 49%가 2019년에 업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전달된 영상도 17개나 되었습니다. 저는 5·18을 올바른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유튜버들을 몇 사람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들에게 영상을 의뢰하고 재단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이트 글을 조회할 수 있는 구글 검색을 시도하면 5·18과 관련해서는 왜곡세력의 글

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구글 검색시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전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통해 5·18에 대한 글을 쓰는 걸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다 있는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5·18이 궁금해서 검색을 할 경우 노출될 수 있도록 각종 키워드를 동원했습니다. 왜곡세력이 쓴 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다양하고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

얼마전, 4.3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을 뵈는 적이 있습니다. 1년전, 4.3 사건 70주년을 맞이해서 4.3행사위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합니다. 70만개의 동백꽃 배지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했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배지를 착용하고 기념사를 낭독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내년은 5·18 40주년입니다. 재단 차원에서 5·18 배지를 전국에 배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힘써주셔야 합니다.

3. 5·18 정신,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1980년 5월 27일, 광주는 외로운 섬이었다. 도청에 남아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영영 끝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적막이 내려앉은 새벽 3시, 한 여성이 도청 방송실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오셔서 학생들을 살려주세요.”방송이 끝난 직후 M-16 소총을 앞세운 3공수여단이 도청으로 진입했다. 10일간의 항쟁은 막은 내렸다. 그러나 광주의 외침은 세계로 전달되었다. 이윽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광주의 핏빛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홍콩의 소식은 또 다른 광주였다. 보고 듣고 느껴온 오월의 광주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홍콩의 소식

을 접할 때면, 마치 1980년 5월 27일 새벽 3시, 도청에 남은 누군가가 자꾸만 전화를 걸어오는 것 같았다. 홍콩 시민들이 압제에 맞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는데,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꼭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 5·18 민주광장에 홍콩 시위 지지를 표명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사실을 SNS를 통해 알리자, 전남대학교에 레논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며 함께하자는 연락이 왔다. 어느새 여섯명의 시민이 모여 함께 레논벽을 설치했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5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중 ‘송환법 공식철회’를 제외한 4가지는 광주 시민들이 계엄사에 요구했던 조건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지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홍콩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찰은 다시금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고 지하철역에 진입했다. 대표와 의회 구성원의 절반을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돌이켜보면, 1980년 5월 이후 광주는 세계의 시민들에게 빛을 쬐다. 독일인 기자 워르겐 힌츠페터는 목숨을 걸고 광주의 사진과 영상을 독일로 보냈다. 독일 공영방송 9시 뉴스에 보도된 광주의 소식은 다음날 오전 미국 전역에 알려졌다. 분노한 교민들과 미국인들은 광주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독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의 소식을 접한 일본의 인권작가 도미야마 다에코는 눈물을 흘리며 광주를 그렸다. 우리는 그들을 잊을 수 없다. 지금 홍콩이 광주를 부르고 있다. 나는 오늘 광주의 이름으로 홍콩에 연대하기 위해 5·18 민주광장에서 1인시위를 한다. 우리는 홍콩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현재 광주의 홍콩 연대 현황

1. 홍콩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 (2019.10.25)

홍콩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주시민사회 (가칭) 명의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음. 해당 기자회견은 광주인권회의에서 주도하였으며, 홍콩 활동가를 광

주로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하고, 40주년 5·18 행사에 조슈아 윙을 초청하는 등 홍콩 문제를 중심으로 삼을 계획을 추진중임. 광주인권회의는 홍콩 활동가 초청 강연을 1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2. 전남대학교 인문대 쪽문에 대자보 게시 (2019.11.14)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재학생 김산하씨가 대자보를 제작해서 부착하였으며, 해당 대자보는 당일 중국인유학생들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음. 이어 그 자리에 “홍콩폭동의 본질은 테러리즘”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으며, 이 역시 한 재학생에 의해 철거되었음.

3. 전남대학교 및 금남로에 현수막 게시 (2019.11.14)

“홍콩은 광주입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 4장이 각각 2장씩 전남대학교 후문과 금남로에 게시되었음.

4. 전남대학교 인문대 쪽문 레넌벽 설치 (2019.11.15)

지난 14일,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김산하씨가 부착한 대자보가 즉시 중국인유학생들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그 자리에 게시자 등을 비난하는 다양한 종이가 부착되었음. 몇몇 재학생들이 현수막과 레넌벽을 설치하였음. 이 과정에서 전남대 중국인유학생회 회장 등 중국인유학생 20여명이 강하게 반발하였고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일도 발생하였음. 이후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전남대 박물관에 기증되었음.

5. 홍콩시위 관심촉구 퍼포먼스 (2019.11.17)

전남대 사학과 윤동현씨가 제안한 퍼포먼스로 11월 17일 오후 1시~5시에 송정역, 전남대, 5·18광장 등을 돌며 우산에 홍콩시위와 관련된 멘트를 적어서 펼치는 플래시몹을 진행함.

6. 억압에 맞선 시민들 (홍콩시민활동가 초청 대담 - 2019.12.10)

홍콩활동가를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임

주먹밥, 5·18과 함께한 186일간의 기록

이수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지킴이 주먹밥 팀장)



소개

2011년 5월 25일 공개
한국 현대사 최초,
세계 인권관련 14번째 기록물



1980년 5월 광주,
그 날의 기억과 현재의 기록물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문서 4271권 총 858,904페이지

"그것은 권력을 감당하려는 신군주의 폭력에 대한 의로운 저항이었다."

- 이바른 박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구락) 치안력 절대 무제의 상황에서서도

악랄, 방화, 매점매석 없이 시민스스로

공동체 의지와 질서를 지켰다."

- 모슬린 리셀 박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장



팀 소개



전국 각 지역의 세계유산 현장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알린다.

활동 대상 : 세계유산(잠정목록 포함),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문화재청



2019년 한국 문화재지킴이 대학생연합회

팀 소개

※ 팀원 구성



김미선
인문대 사회학 1과
장학생팀



김근영
인문대 사회학 1과
부원장(교사)



김혜민
인문대 사회학 1과
교수(교사)



김은교
인문대 사회학 1과
4기(학생팀)

※ 로고 (마스크) 캐릭터



‘막걸리’
2019년 6월 출간

팀 소개

※ 영입, 현수익



팀 소개

팀 SNS

 @historygwanghee

 @jumeokbap518

 역사콘텐츠제작팀 공회

 /Dasein



활동 보고 - 콘텐츠 제작



활동 보고 - 콘텐츠 제작



주제명: 1980년 꿈과, 그날은 현실 상



주제명: 1980년 꿈과, 그날은 현실 상

현재의 주인공(혜민)이 1980년으로 들어가, 5.18의 추억들을 만나고 기록물의 중요성을 깨닫는 내용의 UCC
단편 영화 협시, 문화유산재설 영상공모전 수상작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 정희상 수상>

교육

교재 및 교구 제작

- 5.18 사적지 만들기
- 5.18 기록물 키트
- 5.18 심사할 줄이
- 내가 만드는 기록, 열린그림의 체험

중추공무원연차 초등학생 역사교실

- 2019.07 ~ 2019.08

남여청소년의 세운 학교 역사교실

- 2019.08

그레안마을 자원학교를 역사교실

- 2019.09

영진고등학교 나람 역사학교

- 2019.09~

교과 제작



교구 제작



교육

교재 및 교구 제작

- 5.18 사적지 문 놓이
- 5.18 기록물 카드
- 5.18 십자말 풀이
- 내가 만드는 기록, 캘리그래피 체험

광주공유센터 초등학생 역사교실

- 2019.07.-2019.08.
- NC버전센터 제주 영포 역사교사
- 2019.08.
- 교래인마을 미워리아름 역사교실
- 2019.09.
- 영천고등학교 나항 역사학교
- 2019.09.-

수업 사진



활동 보고 - 굿즈 제작



투정하는 시민군과 태극 문양

벗지, 스티커 제작
오프라인 판매,
원불비 온라인 판매 성공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배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가격 650,500원 100% 5년 55원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어머니

휴대폰케이스 제작

활동 보고 - 굿즈 제작



답사



-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
- 옛 전남도청
- 5.18 연구소
- 제주 4.3 기념관
- 5.18 기념재단

· 답사 사진



활동 보고 - 부스, 행사참여



충청·호남권 문화유산 캠프

전국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 캠프

충청·호남권 간담회

활동 보고 - 부스, 행사참여



2019 광주 동구 문화재 야행

울양줄방 공유정터 / 이동 라디오

광주 공유의 날 부스 운영

활동 보고 - 부스, 행사참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부스 운영

5.18 전문가 토론회 참석

전남대학교 교내 축제 부스 운영

활동 보고 - 부스, 행사참여



<대통령-보편적 의미의 5.18 청산> 토론회 참석

5.18 기념제단 소규모 공부모임 최종보고회 참석

활동 보고 - 부스, 행사참여



백화 그리기 봉사



5.18 오디오북 녹음

활동 보고 - 부스, 행사참여



광주 지하철 문학전당역 부스 운영



5.18 기록관 방문 나의갑 관장님과과의 인터뷰



2019 인문주간기념행사 굿즈 전시

활동 보고 - 부스, 행사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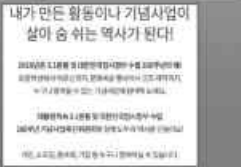


충청호남권 활동경진대회

2019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참석 부스운영 & 발표

선정, 수상

- 충청호남권 활동경진대회 선정
- 2019 지방제도 공보포럼 선정
- 전남대학교 문화유산 연구회 선정
- 과천문화재단 문화유산 연구회 선정
- 2019 문화유산청년 방문포럼 선정
- 충청호남권 2019 문화유산 연구회 선정
- 2019 지방제도 공보포럼 선정
- 문화유산청년 방문포럼 선정
- 충청호남권 문화유산 연구회 선정



선정, 수상

광주시민대학 학생동아리 선정
5.18 기념재단 공부모임 선정
전남대학교 영문 학회 동아리 선정
국립중앙도서관 선정 예정
2019 문화유산재능 향상공모전 참가상
광주소상공인 자라다에 공모한 100% 선정
5.18 기념재단 나눔 장학금 선정
광뉴스사모집 어워드 국제 기사장 수상



언론보도

광주FM 라디오 진행
불교방송 출연
광주일보
전남일보
MBC 뉴스 <생방송 오늘 아침>
전남 CBS <생방송 전남>
KBS 광주 <남도 루터아>
광주 MBC <오후 전라도>
뉴스스
무등일보
한겨레 신문
광향신문
NPBC 라디오 <일민세상 오늘>

88.9MHz 광주FM



88.9 MHz 광주 FM 가을 정규방송 <주말밤>
매 주 금요일 오후 6시

BBS 불교방송



BBS(불교방송) NEWS
전국 마라톤다 침소년 연합 캠프 활동 모습
2019.08.08. 출연